차 례

이야기를 펼치기에 앞서

봄빛이 무르녹는 4월초 어느날 오후였다.

《똑똑.》

서재에서 책을 읽고있던 나는 문두드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입문을 여니 아래층에서 살고있는 근혁이가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작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 꼬마작가로구만. 어서 들어오너라.》

나는 기꺼이 그애를 맞아들였다.

근혁이는 얼마전에 중학생이 된 아이였다. 최우등으로 소학교를 졸업했고 마음씨도 여간 곱지 않았다.

소학교 1학년생인 우리 손녀 선아를 친동생처럼 대해주며 가까이에 있는 문수유희장에도 곧잘 데리고다니였다.

내가 근혁이를 각근하게 대해주는것은 결코 이때문만이 아니다. 그애가 책읽기와 글짓기를 무척 즐겨하고 《우리교실》문학상까지 받은 아이였기때문이다.

나는 그애를 볼 때마다 아득히 흘러간 나의 어린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였고 그런 까닭에 그애에게 책장에 가득 차있는 책들을 마음내키는대로 볼수 있게 하는 특전도 주었다. 그것도 한번에 서너권씩이나…

《선생님, 잘 보았습니다.》
근혁이가 나에게서 빌려갔던 소설책들을 책상우에 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래, 다 읽었느냐?》
《예, 그런데 〈어린 참나무〉의 주인공들은 그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포1〉호가 새싹이 나온 다음에는?》
근혁이는 히죽이 웃으며 맨우에 놓여있는 소설책뚜껑을 손가락끝으로 꾹 짚었다.
《응?!…》
《어린 참나무》는 20여년전 내가 작가생활을 시작할 때 내놓은 첫 중편소설이였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느끼며 넌지시 물었다.
《그걸 알고싶으냐?》
《예. 경준이, 태호, 계성이가 어떻게 되였는지?…》
근혁이는 웬일인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말꼬리를 이었다.
《나랑 같이 우리 학급의 두 동무가 읽었는데 다같이 궁금해합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근혁이의 눈에는 간절한 소망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나는 선뜻 입을 열수 없었다. 그것을 어찌 한두마디에 담을수 있단 말인가.
《따릉, 따르릉―》
때마침 울리는 전화종소리가 나를 구원해주었다.
《근혁아, 그 이야기는 차츰 하기로 하자꾸나.》
《예, 알겠습니다.》
그애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그날 나는 밤깊도록 추억의 갈피를 번지였다.

최전연마을에서 보낸 나의 어린시절생활이자 곧 소설의 주인공 경준이와 태호, 계성이들의 생활이였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루밤사이에 어른이 된듯 깨달은것도 많던 그 시절, 사랑하는 어린 주인공들의 장한 모습과 그들의 걸음걸음을 마저 펼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중편소설 《어린 참나무》는 해방후 농사를 잘 지어 알곡소출을 많이 낸 경준이 아버지가 평양으로 올라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게 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략상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금포1》호 벼종자를 깊숙이 숨겨두고 비밀을 지키다가 원쑤놈들에게 희생된다. 그후 경준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반동놈들과 싸우면서 끝끝내 벼종자를 찾아내여 마을어른들과 함께 모판에 벼씨앗을 뿌린다. 이것이 소설의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후에는 새로운 직무에 조동되여 사업하다나니 미처 뒤이야기를 쓸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꼬마작가의 부탁, 어린 독자들의 소망은 나로 하여금 창작적열정에 다시금 불꽃을 튕겨주었다.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소년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던 뜨거운 마음, 전쟁승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던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오늘날 아이들에게 넘겨주고싶은 심정으로 나는 70고개에 올라선 나이지만 또다시 붓을 들었다.

1. 푸른 모퐌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양지바른 길가며 산기슭에 갖가지 풀들이 새파랗게 자라나고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여오르던 산과 들에는 하루가 다르게 신록이 짙어가고있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봄비가 멎자 심술궂게 불어오던 찬바람은 어데론가 자취를 감추고 하늘은 씻은듯 맑게 개였다.

이따금 들려오는 둔중한 폭음만 아니라면 지금이 전쟁때라는것을 잊을 지경이였다.

색날은 군복을 줄여서 만든 저고리에 창이 낡아빠진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쓴 열두셋쯤 나보이는 소년이 언덕길에 오르고있었다.

태호였다. 무엇인가 작은 꾸레미를 손에 든 그는 지금 음턱골 밤나무밑에 있는 경준이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마침 까만 무명치마에 분홍색광목저고리를 입은 옥이가 마주 걸어오다가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반기였다.

학습장과 연필꽁다리를 손에 쥐고있는것을 보니 공부를 하다가 집을 나선것 같았다.

《공부하러 가니?》

《응, 은옥언니한테…》

은옥이네 집은 가까운 산기슭에 있었다. 그래서 옥이가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옥이가 집에 와서 학

습을 도와주기도 했다.

《오빠 집에 있니?》

옥이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량쪽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응, 알만해. 또 모판에 간게구나.》

태호는 싱긋 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경준이는 요즘 새벽마다 모판으로 나가군 했다. 새파랗게 자라기 시작하는 벼모의 잎을 세여보기도 하고 키를 재보기도 했다. 모판의 물에 손을 잠그어본 다음 옆에 있는 논에서 물고를 열어놓아 맞춤하게 대주기도 하였다.

오늘아침도 모판을 살틀히 돌보고난 경준이는 허리를 쭉 펴며 눈길을 쳐들었다.

금포강기슭에 논들이 장기판처럼 펼쳐져있는데 여기저기에 벼짚과 강냉이짚으로 엮어서 둘러친 모판들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그중에서도 논벌 한가운데로 뻗어간 물길이 특별히 눈에 띄였다.

해방후 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의논하고 금포강과 부압산중턱의 물당치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에 수문을 건설하고 논벌가운데 있는 방축을 헐고 밭들을 전부 논으로 풀었다.

그리고 물길을 깊게 쨴 다음 새로 푼 논들에 물을 끌어들이였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흰쌀밥을 먹게 되였다고 성수가 나서 벼농사를 알심있게 짓군 했던것이다.

사위를 빙 둘러보던 경준이는 푸름푸름하게 바라보이는 도장골언덕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곳에 푸른 잔디로 감싸인 아버지의 묘가 있었다. 그뒤로 참나무들이 산기슭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아버지!》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민지주의 집에서 대대로 머슴을 살다가 나라가 해방되여 기름진 논과 밭을 무상으로 분여받은 경준이 아버지는 온갖 정성을 다 바쳐 벼모를 튼튼히 길러 논에다 냈다.

벼는 땅이 꺼지게 잘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수확고가 더 높아졌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알수 없으나 금포땅에서 처음으로 많은 소출을 낸 벼라고 하여 《금포1》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농사경험은 여러 신문들에 크게 소개되였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경준이 아버지를 평양으로 부르시여 친히 농사경험도 들어주시면서 《애국농민》이라는 높은 칭호와 함께 벼농사를 더 잘 지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평양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이미 얻은 농사경험을 더 잘 살리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직심스레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인민군대에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는것이 농민의 임무라고 말씀하시였다.》라고 하면서 온 여름내 논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아버지는 전략상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새로 수확한 벼종자들을 알알이 골라서 가마니에 넣은 다음 마을세포위원장과 함께 깊숙이 숨겨놓았다.

그런데 미국놈을 따라 고향땅에 기여든 옛 지주 민덕보놈이 《금포1》호벼종자를 숨겨둔 곳을 대지 않는다고 발광하다가 아버지와 마을세포위원장을 무참하게 학살하

였던것이다. …

문득 등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경준이는 뒤를 돌아보며 반겨맞았다.

《태호왔구나.》

태호가 싱긋 웃으며 모판을 바라보았다.

《너 벼모가 자라지 않을가봐 걱정이니?》

《걱정이야 무슨… 어떻게 해서든 〈금포1〉호가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자는거야.》

부리부리한 검은 눈섭과 코날이 오똑서고 꾹 다물린 입… 경준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금포1〉호두 너의 마음을 다 알아줄거야. 아버지가 숨겨둔 벼종자들을 찾아내느라고 네가 얼마나 애썼니.

그런데 난 반동놈들이 가짜벼종자를 불태운걸 모르고 그만 맥을 놓았댔으니. 네가 아마 속으로 날 무척 나무랐댔을거야.》

《나무라기야 뭘, 나도 그때 눈앞이 아뜩했댔어. 우리 어머닌 나보구 아버지처럼 마음을 굳세게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셨어. 그래서 우린 끝내 벼종자들을 찾아내지 않았니.》

《그때 계성이가 마음을 수태 썼댔지. 아버지의 소때문에…》

《어쩌겠니. 이젠 다 지나간 일인데…》

경준이와 태호는 벼종자를 찾아헤매던 때의 일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어린 벼모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 벼모들이 드넓은 논판을 누런 이삭으로 뒤덮으면 얼마나 멋있을가!

태호가 웃음을 지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민덕보놈도 잡아냈겠다, 벼모들도 줄대같이 자라고있으니 이젠 마음을 놓아두 될거야. …》

경준이는 말없이 태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루 찾아왔니?》

《일은 무슨…》

태호는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사실 경준이한테 재미난 놀음감을 얻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준이는 지금 《금포1》호생각에만 옴해있기때문이였다.

논벌에서는 마을어른들이 수문쪽에서 뻗어나간 물길을 가셔내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경준이 어머니와 태호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정말 어머니들은 할 일이 많아지고있구나. 봄파종도 빨리 끝내야 할텐데…》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였다.

사실 그랬다. 봄철이 다가오자 마을사람들은 농사차비로 분주했다.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구호들이 사방 꽂혀있는 드넓은 벌판.

이제 저 논밭들을 몇마리 안되는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씨앗을 묻어야 했다.

가장집물이 전부 불에 타고 남겨두었던 종곡도 모자랐다. 게다가 농쟁기도 변변한게 없었다.

적기들은 수시로 금포강다리와 자동차도로에 폭격을 마구들이댔다. 그때마다 파괴된 다리와 도로를 복구하는 일도 해야 했다. 그러니 할 일은 얼마나 많아지고있는가. 급한건 밭을 갈고 씨앗을 묻는것이였다. 그다음 논에 모를 내야 했다.

《우리도 가서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자. 어때?》

《음, 그게 좋겠어.》
《그럼 먼저 계성이네 집에 가보자.》
《계성이? 그 〈토끼〉한테?》
태호가 얼굴을 찌프렸다.
《넌 왜 계성일 그렇게만 보니?》
《안그러게 됐어? 담이 커야지. 콩알만 해가지구.》
경준이는 히죽이 웃음을 지었다.
며칠전이였다.
부압산에 올라 땔나무를 한짐씩 해지고 내려오던 금포마을 아이들은 뜻밖에도 승즈골아이들을 만나게 되였다.
그애들도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 원호를 한다면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였다.
잔디밭에 둘러앉아 서로 반가와하며 이말저말을 하던 아이들은 갑가기 승벽심이 살아올랐다. 전쟁이 일어난 후 다같이 모여본적이 없는 그들이였던것이다. 마침내 새끼줄을 둘둘 감아 단단한 공을 만들고 시합을 벌리였다.
미국놈비행기들이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판이라 한꼴만 나면 시합을 끝내기로 했다.
치렬한 공차기가 벌어졌다. 아이들은 저리 밀려갔다 이리 밀려왔다 하며 승벽내기로 뛰여다녔다.
태호가 발에 걸려든 공을 상대편꼴문에 차넣으려고 정신없이 몰고가는데 승즈골 꺽다리가 날쌔게 뒤로 공을 빼내여 냅다질렀다. 그런데 공이 계성이 코앞으로 날아가는게 아닌가.
상대편아이와 계성이가 마주선 아차! 하는 순간이였다.
태호가 소리쳤다.
《계성아, 이리 보내라!》
그러나 계성이는 두눈이 왕사발만해서 굳어지는것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상대편아이가 계성이 오른쪽으로 슬쩍 빠져나가며 우리쪽꼴문을 향해 힘껏 내질렀다.

영낙없이 멋진 차기였다. …

태호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잡쳐져 쓰겁게 입을 다시였다.

《맞받아나가면서 다리라도 콱 걸것이지. 잔뜩 겁을 먹구…》

경준이가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계성이한테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네 잘못두 커.》

《내 잘못?》

《네가 명남이한테 살짝 련락만 했어두 우리 편이 꼴을 먼저 넣었을게 아니냐. 꼭 네가 넣어야 맛이니? 계성이한테 소심한데가 있다면 너한텐 공을 혼자 차면서 우쭐대고 싶어하는데가 있어.》

《뭐? 내가?》

태호는 마을의 생활반책임자이고 무슨 일에서나 대가 바른 경준이앞이라 감히 맞서지는 못하고 뒤더수기로 손을 가져갔다.

경준이가 다정히 태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가겠니, 안가겠니? 계성이 아버지가 마을의 논밭들을 다 맡아서 갈아주자고 했다는데 얼마나 고맙니?》

《에참, 그날 재미있게 놀아볼수 있는건데. 공을 떼우는 바람에…》

태호가 여전히 그때 일이 아쉬운듯 공모는 시늉을 해가며 제말만 해댔다.

《넌 아직두 그 생각이야? 계성이 아버지 상처가 좀 나아진다구 우리 어머니가 반가와하셨는데…》

《그래?》

태호가 슬며시 머리를 떨구었다. 자기도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앓고있는 계성이 아버지를 잊고있었기때문이였다.

경준이가 다정하게 태호의 어깨를 툭 치며 눈짓을 했다.

《자, 그럼 얼른 가보자.》

몇걸음 앞서 걸어가던 태호가 말없이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운 숲속에 뛰여가서 무엇인가 찾아쥐였다.

《그게 뭐니?》

경준이는 태호가 펼쳐든 꾸레미를 보다가 흠칫 놀랐다.

어제는 신관이 없는 박격포알을 안고 다녔는데 오늘은 또 터지지 않은 수류탄이 나진것이였다.

태호는 우물거리며 말꼬리를 사리려고 했다.

《너 이제 보니… 아예 장난꾸러기가 됐구나.》

《뭐? 너는 아니구?》

경준이는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실 그랬다. 경준이와 태호는 처음 탄피를 가지고 맞힐내기를 하다가 싫증이 나자 그다음부터는 탄피의 아구리를 돌로 두드려 납작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더 재미있는 놀음을 놀아보고싶었던것이다.

그러다가 자위대장아저씨에게 들켜 단단히 꾸지람을 듣기까지 했었던것이다.

태호가 경준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금포장에 먼저 갔다와서 계성이네 집에 가는게 어떻니?》

《금포장에? 그건 다음번에…》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야 할텐데 언제 시간이 있겠니? 오늘밖에…》

고개를 수긋하고있던 경준이가 싱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빨리 갔다오자.》

태호의 속심을 알아챈 그는 호기심이 동해서 발걸음을 다그쳤다. 지금까지 수류탄을 터뜨려본적이 없었기때문이였다.

겨울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다 풀린 금포강에는 푸른 물이 출렁거리였다. 경사진 뚝에서는 실버들가지가 봄바람에 가볍게 흐느적거리였다.

태호가 히쭉 웃고나서 꾸레미속에서 수류탄을 꺼낼 때였다.

《너희들 거기서 뭘하는거냐?》

웅글은 목소리에 깜짝 놀란 경준이와 태호가 눈이 왕사발만해져 뒤를 돌아보았다.

(자위대장아저씨구나!)

당황해진 태호의 손이 저도모르게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아이들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던 자위대장아저씨가 태호의 손에 들려있는 수류탄을 띠여보았다.

《그게 수류탄이 아니냐?… 너희들 점점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리 내라!》

태호의 손에서 수류탄을 넘겨받은 자위대장아저씨가 놀라운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얼굴표정은 엄엄했다.

《우린 저…》

태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는데 아저씨는 경준이를 못마땅하게 쏘아보다가 돌아서며 엄하게 말했다.

《위험한 놀음을 다시한번 해봐라. 그땐 경칠줄 알아.》

《에참, 오늘 재미있게 놀아보는가 했더니…》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동뚝으로 사라지는 자위대장아저씨의 등뒤를 바라보았다.

《욕을 먹어도 할수 없지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

경준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자위대장아저씬 귀신 한가지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군 하니…》

며칠전에는 밤사이에 금포강다리주변에다 미국놈비행기가 폭격을 했는데 터지지 않은 폭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 경준이와 함께 갔다가 자위대장아저씨가 쫓아버리는 바람에 되돌아섰던것이다.

《아저씨도 우릴 걱정해서 그러실거야.》

《걱정한다구?》

못마땅한 눈길로 경준이를 바라보던 태호는 무엇인가 말을 할듯 하다가 단념한듯 머리를 가로 흔들며 중얼거렸다.

《너두 꼭 자위대장같구나. 이젠 재미난 놀음도 못하게 됐으니…》

《무슨 재미난게 또 있다는거야?》

《이제 알게 될거야.》

경준이와 태호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이때 경준이 어머니가 손에 삽을 들고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신발이랑 치마자락에 흙이 묻어있었다. 태호가 꾸벅 인사를 했다.

어머니가 경준이와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데 갔다오느냐?》

《예, 저…》

《너희들, 또 장난을 하러 다니는게 아니냐?》

경준이는 가슴이 뜨끔해나서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어머니는 나직이 숨을 내쉬고나서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본신임무를 잊고있는게 아니냐?》

어머니의 얼굴에 근엄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경준이의 목소리는 잦아들고있었다. 자기도모르게 가슴이 찔리우는것 같았다.

학습반을 조직해놓긴 했지만 말뿐이지 언제한번 제대로 모여본적이 없었다. 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장작불을 때서 뜨끈한 방에 모여앉아 강냉이와 콩을 가지고 닦음질도 하고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전투담을 주고받으면서 시간가는줄 몰랐었다.

그런데 언땅이 녹고 봄철이 되자 마을사람들이 제가끔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옮겨가면서 아이들도 흩어져가기 시작했다. 그런데다 농번기가 시작되자 집일도 바쁘고 하여 이래저래 모이기가 힘들었다.

더우기 화창한 봄날에 아이들이 어둑시근한 방안에 붙어있을리 만무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어찌 아이들의 가슴속인들 계절이 안겨준 즐거운 마음이 부풀어오르지 않겠는가. 마을에 선생님까지 아직 배치되여오지 않다보니 아이들은 말그대로 풀어놓은 망아지들과 다름없었다. 어떤 아이는 아예 공부할 생각은 감감 잊고있는것 같았다.

《지금 온 나라가 미국놈들과 싸우고있는 때에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니? 학습도 전투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어요.》

가슴을 울려주는 어머니의 곡진한 음성을 되새기던 경준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어.》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면 오실가?》

《이제 오실거야.》

경준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동구밖을 바라보았다.

2. 끝나지 않은 싸움

희미하게 비치던 초생달마저 어느사이에 어둠의 장막속으로 사라졌다. 사위는 먹물을 뿌려놓은듯싶었다.

컹—컹— 짖어대던 개들도 잠에 취했는지 마을의 집들은 조용했다.

접동새울음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릴뿐이였다. 때를 기다리고있은듯 부압산기슭의 소나무숲속에서 기여나온 검은 그림자 몇이 논벌을 향해 소리없이 움직이고있었다.

논머리와 잇닿은 동뚝에 이르자 키가 껵두룩한 놈이 석쉼한 소리로 지껄였다.

《모판위치를 모를게 없는가?》

《기억하고있는걸요.》

《먼저 모판의 물을 뽑아내야 한다. 야밤인지라 물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라. 그다음 알겠지? 흔적을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뒤이어 검은 그림자들은 논뚝과 물길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논뚝을 넘어선 꺽다리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소리없이 걸음을 옮겼다.

어둠속에 습관이 되였는지 놈은 거침없이 모판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실하게 자란 벼모들을 꾹꾹 눌러 밟기도 하고 발끝으로 가래질을 하듯 뒤엎는 소리가 절벅절

벅 났다.

《야, 이건 아직 너무 어려서…》

옆에서 어물대던 놈이 어린 벼모를 발로 짓밟으며 갑자르는 소리를 냈다.

《야, 이놈아, 뭐 어쨌어? 사정을 보지 말고 짓뭉개라.》

꺽다리가 이발을 사려물고 독기어린 소리를 내뱉았다.

절버덕, 절버덕…

모판을 돌아치던 놈은 《가자.》하고 앞장에 섰다.

개울물을 따라 절벅거리며 얼마쯤 올라가던 놈은 잠시 서서 귀를 도사렸다. 돌돌 흐르는 개울물소리뿐 사위는 고요했다.

《흥…》

놈은 코소리를 내며 또 다른 모판에 덤벼들었다.

《사정을 보지 말라. 우린 〈금포1〉호를 요정내야 한다.》

《그럼 〈금포1〉호라는 이 벼때문에 이렇게…》

꺽다리를 따라 오던 놈이 게두덜거리는 소리였다.

《〈금포1〉호를 없애버리는건 빨갱이놈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거나 같단 말이다.》

악청을 돋구며 서둘러 벼모들을 짓밟던 놈은 모판머리에 나서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앗!》

《?!…》

옆에서 어물대던 놈이 그자리에 굳어졌다.

《제기랄…》

놈은 비스듬히 눕힌채 세워져있던 갈퀴모양의 쇠스랑을 밟는 바람에 벌떡 일어서는 긴 자루에 이마빡을 얻어맞았던것이다.

옆에 있던 놈이 까닭을 알아채고 킥킥거리였다. 꺽다리놈은 화김에 쇠스랑을 집어서 홱 내던졌다.
첨벙! 물소리가 났다.
이때였다.
《땡—땡—땡—》
별안간 폭탄깍지 두드리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났다.
《뛰자.》
놈들은 물도랑을 따라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을은 삽시에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되였다. 사람들이 홰불을 쳐들고 와—와— 소리치며 달려오고있었다.
《반동놈이다! 반동놈 잡아라!》
《모판을 살리자!》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여난 경준이는 웃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여나왔다.
어머니가 급할 때 쓰려고 못쓰게 된 고무신짝들을 쇠줄로 묶어 만들어두었던 홰불뭉치에 불을 달았다. 주위는 대번에 환해졌다.
폭탄깍지를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귀따갑게 울려왔다.
《어머니, 빨리요.》
경준이는 어머니를 따라 굴량골 모판으로 달려갔다.
종소리는 여전히 기운차게 울렸다.
사방 논판에서 종소리에 화답하듯 홰불이 활활 타올랐다.
《아니 이게 뭐요?》
《죽일 놈들같으니…》
논벌 여기저기에 있는 논판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

들이 울려나왔다.

경준이는 어머니를 따라 종주먹을 쥐고 달려가다가 모판머리에 우뚝 멈춰섰다.

불빛속으로 모판이 환히 드러났다. 모판은 발길에 짓밟혀 엉망진창이 되였다. 가로세로 마구 밟으며 돌아친 모판은 말이 아니였다. 깊숙이 패인 발자국, 거기에 가득 고인 흙탕물… 벼모들은 물속에 깊이 파묻혀있었고 어떤 것들은 허리를 꺾이운채 물우에 둥둥 떠있기도 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는 모판을 껴안을듯 두팔을 벌리였다.

온몸이 부르르 떨고있었다. 어머니는 치마가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판에 뛰여들어 애어린 벼모들을 일으켜세우기 시작했다.

《야, 이 원쑤놈들아!》

경준이는 돌처럼 굳어진 주먹을 내흔들었다. 가슴속에서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금포1》호를 얼마나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으면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았을텐가.

한잎두잎 자라는 이파리들을 세여보며 키를 재여보던 벼모들이 이 지경으로 되다니…

금시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경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물속에 뛰여들었다.

어머니는 홰불막대기를 모판가운데 쿡 박아세우고 정신없이 벼모들을 세워나갔다. 경준이도 어머니한테 뒤질세라 부지런히 두팔을 놀리였다. 애리애리한 벼모들은 하나둘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모판을 헤매던 경준이는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물창

에 웬 모자가 떨어져있었던것이다.

(이건 또 뭐야?)

그것을 집어들던 경준이는 그자리에 굳어졌다.

웬 모자일가?

의아해서 들여다보던 경준이의 가슴은 철렁했다.

갑자기 숨이 꺽 멎는것만 같았다. 너무도 낯이 익은 납작모자가 아닌가. 엊그제 보았던 그 모자였던것이다.

(아니 그럼 그때 만났던…)

경준이는 납작모자를 꽉 움켜쥐였다.

어머니가 급히 다가왔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경준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자를 내흔들었다.

《아니 그게 웬 모자냐?》

경준이는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꼭 사려문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며칠전이였다.

공부를 끝마치고 어머니들이 일하는 밭머리로 걸어가던 경준이는 길가에 멈춰선채 뒤를 돌아보았다.

태호를 기다리는중이였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밭에서는 어깨와 잔등에 위장을 한 어머니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바람결에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 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어머니들이 일손을 다그치누나. 우리들도 빨리 일손을 도와드려야 할텐데…)

이때 태호가 불쑥 앞에 나타났다.

《어떻게 된거야?》

경준이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다가오는 태호에게 짜증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에—덥다. 빨리 온다는게 그만…》

태호가 손부채질을 해가며 너스레를 떨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경준이는 꿋꿋한 눈길로 태호를 지켜보았다.

《사실은 길을 질러 음턱골 오솔길로 걸어오는데 앞에서 웬 사람이 길가에 앉아 담배를 태우지 않겠어. 나를 보자 그 사람은 약간 놀라는 기색을 짓더라니까. 그래 이상스러워서 슬그머니 물어봤더니 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라더구나.

나를 보더니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교는 다니느냐, 어른들이 농사준비는 어떻게 하고있느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겠어. 그리고는 갈 길이 바쁘다면서 슬쩍 떠나더구나. 그바람에 이렇게…》

경준이는 고개를 기웃했다.

《그게 사실이야?》

《사실아니구, 날 믿지 못해 그러니?》

《아니.》

경준이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도 그와 비슷한 일을 당

했기때문이였다.

어제오후 산에 오르느라 굴량골쪽으로 나있는 개울을 따라 덤불이 우거진 지름길로 들어서던 경준이는 숲에서 낯모를 사람이 걸어나오는것을 보았다.

색은 날았으나 견장을 달았던 자리가 뚜렷한 군복상의를 입었는데 키가 껑두룩하고 잔등에 배낭을 지고있었다. 머리에는 채양이 달린 납작한 모자를 썼다.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흠칫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이 입을 벙글써 열었다.

《왜 그렇게 놀라니?》

경준이는 두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누구나요?》

《나말이냐? 허, 경각성이 높은걸…》

그는 혼자 껄껄 웃더니 손바닥으로 이마에 부채질을 하며 넌지시 물었다.

《너 금포마을에 사는 애지?》

《예?! 우리 마을을 아시나요?》

《암, 알고말고. 〈금포1〉호가 신문에 크게 소개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농사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경준이는 《금포1》호를 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띄이는것 같았다.

《〈금포1〉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구만요. 지금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쓰고있어요. 그런데 누구신지?…》

《아, 참 내가 아직 자기 소개를 안했던가?》

그는 한눈을 찡긋해보이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난 군에서 사업하면서 여기에 와서 강연도 둬번 해

본 사람이란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애국농민〉이 아니냐?》

《아니, 우리 아버지까지 아시는군요.》

《그러니 네가 그의 아들이였구나. 〈금포1〉호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겠는데 어른들을 도와 농사를 잘 짓기 바란다.》

그 사람은 경준이를 피끗 바라보고는 야릇한 미소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웬일인지 어딘가 초조해하는것 같았다.

(누굴가?)

경준이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걸음을 옮기다가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 어느새 낯선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군에서 사업한다지, 강연두 했다지,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대해서두 알고있겠지.)

경준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묻지 않았던것이다.

태호가 경준이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긴, 나도 만났댔어.》

《그게 정말이야?》

태호는 저으기 놀라면서도 고개를 기웃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심한게 아니야?》

《그런지도 모르지. 뭐나 너무 의심하다간 제 그림자를 보고도 놀란다더라.》

《히히… 그럼 빨리 가자.》

태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싱긋 웃었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발길을 옮기였던것이다.

(내가 너무 경각성이 무디였댔어. 누군지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금포1》호요 뭐요 하는 말을 듣고서도 여태 가만있었으니…)

이때 모판가까이로 세포위원장아저씨와 자위대장아저씨가 뛰다싶이 걸어왔다.

세포위원장아저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여기는 이만하면 다행이군요. 저아래에 있는 모판들은 적지 않게 상했습니다.》

《그래요? 놈들이 여기까지 기여들긴 했지만 미처 못된짓을 다하지는 못한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며 경준이는 모자를 들고 세포위원장아저씨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이 모자를 보십시오.》

《아니, 이건?》

아저씨는 저으기 놀라며 모자를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자위대장아저씨도 바투 다가섰다.

순간 경준이는 가슴이 뜨끔해났다. 아저씨들의 얼굴을 쳐다볼수가 없었다.

아저씨들과 어머니의 긴장해진 얼굴을 흘끔 쳐다본 경준이는 입을 열었다.

《세포위원장아저씨, 제가 원쑤놈들을 가려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경준이는 며칠전에 있었던 납작모자에 대해 자초지종 말을 꺼냈다.

《그게 사실이겠지?》

아저씨는 심각한 눈길로 경준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자위대장아저씨는 입만 쩝쩝 다실뿐이였다.

어머니는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들고 활활 타오르는 홰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곡진한 음성이 경준이의 귀가를 울리였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목소리였다.

《경준아. 원쑤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금포1〉호를 없애지는 못한다. 지금도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계실거다.》

《아버지!…》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눈굽에 맺히는 눈물을 주먹으로 뻑 문대고나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불빛에 비친 얼굴에는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번뜩이고있었다. 다음순간 경준이는 어머니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수 있으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벼종자를 찾기 위해 애쓰시던 어머니, 마침내 원쑤놈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튼튼히 뿌리내린 저 벼모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무경각성이 이런 사태를 빚어낸것이 아닌가.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한순간의 해이가 이렇게 큰일을 번져놓을줄 몰랐던것이다.

가까이에서 자위대장아저씨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기에 놈들의 발자국흔적이 있습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급히 돌아섰다.

《두놈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별로 큰 군화자국입니다.》

《군화?》

세포위원장아저씨가 허리를 굽히고 발자국을 유심히 들

여다보았다.

아저씨는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딘가 한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얼굴을 돌렸다. 불빛에 비친 구리빛얼굴에 심중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모판에 남긴 흔적을 보면 무엇인가 노리는 놈이 또 있는것 같소. 민덕보놈은 뒈졌지만…》

《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금포1〉호를 노리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아저씨들이 주고받는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경준이의 머리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맴돌고있었다.

(원쑤놈을 찾아내야 한다. 민덕보놈 말고 다른 놈이 또 있다면 그게 어떤 놈일가?)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오고있었다.

자위대장아저씨가 결연히 말했다.

《자위대에서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판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마을사람들을 더욱 각성시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경준이는 앞으로 성큼 나섰다.

《세포위원장아저씨, 우리들도 반동놈들을 잡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하겠다. 원쑤놈을 놓쳐서는 안되지. … 알겠느냐?》

《예.》

잠시후 모판손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며 무엇인가 깊

은 생각에 잠기였던 어머니가 추연한 얼굴로 경준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렸을 때 본 민덕보의 아들놈이 생각나니?》

《예?!》

놀란 눈길로 어머니의 얼굴을 지켜보던 경준이는 큰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놈을 잊겠어요?》

경준이가 일곱살나던 해 봄날이였다. 경준이는 이웃에서 살고있는 은옥이와 함께 굴량골 논옆의 돌배나무주변에서 냉이를 캐고있었다. 그들이 바구니에 냉이를 가득 채웠을 때는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집을 향해 발길을 돌리던 경준이는 웬놈이 자기네 논머리에서 패말을 뽑고있는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땅을 무상으로 분여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손으로 어루쓸던 패말이였다.

《패말을 왜 뽑아요?》

경준이는 야무지게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요놈의 새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던 놈이 어이가 없는듯 코웃음을 치더니 독수리가 병아리를 덮치듯 달려들어 경준이를 사정없이 발로 차고 때리였다.

그래도 성차지 않는지 놈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경준이를 질질 끌고가 가까이에 있는 돌배나무에 꽁꽁 묶어놓았다.

깜짝 놀란 은옥이는 어쩔줄몰라 두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날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 헤매다가 은옥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실

신한채로 쓰러져있는 경준이를 살려냈던것이다. 바로 그놈이 민덕보의 아들 민응복놈이였다. 그때 그놈의 살기띤 상통이 경준이의 눈에 또렷이 새겨졌다. …

어머니가 증오심이 번뜩이는 눈으로 모판쪽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눈길로 경준이를 보며 말했다.

《방금전에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 민덕보의 아들 민응복놈이 마을주변에 기여들었다구. …》

《예?! 그게 정말이나요?》

경준이는 와뜰 놀라며 못박힌듯 굳어졌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였다.

어머니는 경준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경준아, 우린 언제나 원쑤놈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쑤놈들과는 끝까지 싸워이겨야 해.》

《알겠어요, 어머니.》

경준이는 두주먹을 꾹 부르쥐였다.

민덕보놈이 죽었다고 잠시나마 경각성을 늦추었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놈들의 준동은 더 심해지고있었다.

투쟁은 계속되고있었다.

3. 혼자서는 안된다

경준이는 부압산비탈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재촉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놈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어제오후에 아이들은 새끼줄과 낫을 들고 부압산기슭을 에돌아 숲속으로 들어섰다. 마침 인민군대후방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나무를 하기로 되여있었던것이다.

경준이는 풀 한포기와 묵은 삭정이까지도 놓치지 않고 찬찬히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이 기회에 놈들이 남긴 흔적이라도 찾아낼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귀전에서는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모판에서 하던 말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원쑤놈들이 《금포1》호를 노리고있는것이 뻔했다.

(민응복놈을 꼭 찾아내서 복수해야지!)

경준이는 이런 결심을 다지며 발밑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주춤했다.

마른 삭정이에 이상한것이 붙어있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모판자리의 거밋한 진흙이였다. 거기에는 시든 벼모잎이 두개나 붙어있었다. 반동놈의 신발에서 떨어진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놈들이 부압산으로 오른것이 틀림없구나.)

경준이는 신경을 바늘끝처럼 세우고 주위를 살살이 살

피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더는 흔적을 찾을수 없었다.

그러는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하는수없이 동무들과 함께 나무를 한짐씩 걸머지고 마을로 돌아갔다가 오늘아침에 혼자 집을 나선것이였다.

경준이는 무성한 나무가지사이로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눈길을 돌려 주변지형을 살펴보았다.

멀리 안개속으로 백룡산에서 시작된 선바위골이 바라보였다. 선바위골은 부압산기슭에 와서 물당치기골안과 합쳐지였다.

선바위골근방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다. 동굴에서 갈라진 굴은 백룡산기슭까지 나있었다. 때문에 동굴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하여 웬만한 사람들도 동굴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때 어른들도 동굴속에 《금포1》호종자가 숨겨져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경준이는 산기슭을 따라서 비탈길로 오르다가 선바위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좁은 골안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개울 량쪽 산기슭에는 참나무들이 앞을 다투며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지난봄에 왔을 때는 겨울철흔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었는데 지금은 한창 봄이 찾아들고있었다.

(야, 전쟁이 끝난 다음 여기에 동무들과 함께 원족을 왔으면 멋있겠구나.)

경준이는 새들의 지저귐소리와 물소리에 취한듯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았다. 산기슭에 고비며 고사리, 참나물이 한창 자라고있었다.

얼마간 더 오르자 험한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깊은 골안이여서 올라갈수록 서늘한 기운이 풍기였다.

경준이는 앞에 막아선 벼랑을 올려다보았다. 언제인가 태호와 함께 올라가본적이 있는 동굴입구가 소나무가지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싹 긴장해서 주변을 살피는데 풀색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사람이 얼핏 나타났다.

(엉?!)

경준이는 두손을 꽉 거머쥐고 눈길을 한곳에 모았다.

그 사람은 바위턱에 의지하여 주변을 살피며 동정을 엿보다가 경사진 숲속으로 슬슬 걸어갔다.

(반동놈이 아닐가?)

경준이는 간격을 두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 사람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더니 주위에 귀를 기울이는것이였다.

풀색으로 얼룩진 옷, 무엇인가 경계하는 행동…

(반동놈이 틀림없구나!)

경준이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얼룩옷을 입은 놈은 다시 릉선을 따라 걸어가다가 연자방아처럼 생긴 둥그스름한 바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바위옆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풍성한 가지를 드리우고 서있었다.

그놈은 목에 걸었던 쌍안경을 쳐들고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소나무가지에 가리워 더는 보이지 않았다.

(저 연자방아처럼 생긴 바위가 혹시 놈들의 감시소가 아닐가?)

경준이는 산아래를 굽어보았다. 부압산기슭으로 뻗은 자동차길과 금포강다리, 탕수골을 지나 상만리로 통한 도로가 한눈에 안겨왔다.

경준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초조한 눈길로 앞을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다. 어느새 놈은 오던 길과는 달리 반대켠 비탈길로 급히 사라지는것이였다.

경준이는 당황했다. 지금 오르고있는 릉선을 넘어서면 아찔한 벼랑이 나지였다. 거기에 발을 붙인다는것은 어림도 없었다. 어른들도 그쪽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걸 들어서 알고있는 경준이였다.

원쑤놈은 자기뒤에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 하여 방향을 바꾸고있는게 분명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원쑤놈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것이였다. 그런데 눈을 뻔히 뜨고서도 어쩌지 못하고있으니 어떻게 할것인가? 가슴은 진정할줄 몰랐다. 수상한 놈을 놓쳐버린다면…

생각조차 하기 두려웠다.

(엥이, 이런 때 누가 있었으면…)

맥없이 주저앉았던 경준이는 온몸이 노근해서 동구길에 들어섰다. 생각할수록 분했다.

놈의 소굴을 알아내야 할텐데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납작모자》를 스쳐보냈는데 오늘은 또…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벌에서는 점심시간이 퍽 지나 오후작업이 한창이였다.

축동쪽에서 명남이가 헐레벌떡 뛰여오며 반기였다.

《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난것도 모르고…》

《소동?》

《어데 갔는지 누구도 모르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몰라.》

사실 그랬다. 요즘은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어데 가서 인

차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이 여간 아니였다.

미국놈비행기폭격을 당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쁜 놈들의 손에 걸려들지나 않았는지 모두 걱정뿐이였다.

경준이는 대뜸 눈을 치떴다.

《어떻게 된거야? 어머니에게 알리라고 옥이한테 그만큼 말했는데…》

오늘아침이였다.

경준이가 잠에서 깨여나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또 모판에 나간 모양이였다.

(어떻게 할가?)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는데 옥이가 부엌에서 들어와 고개를 갸웃하고 물었다.

《오빠 왜 그러나?》

(옳지!)

경준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옥이의 두손을 꼭 잡았다.

《옥이야, 너 오빠 부탁 하나 들어주렴.》

《무슨 부탁인데?》

경준이는 얼른 종이에 글을 몇자 써서 내보이며 어머니에게 꼭 드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두눈을 깜빡깜빡하며 생각에 잠겼던 옥이가 도리를 젓는것이였다.

《싫어.》

뜻밖이였다.

《그럼 넌 어머니를 돕는 일을 모른척 하겠다는거야?》

《오빤 인차 못올텐데 나 혼자 있어야 하지 않나.》

《야, 참. 그럼 어쩌자는거냐?》

《나두 따라갈테야.》

《너두?! 정신있어? 안돼.》
《흥, 어머니의 일을 돕는 일이라구 하구서두…》
경준이는 속으로 혀를 찼다. 동생이 꾀바리에 옹고집쟁이라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생각던 끝에 아껴오던 새 연필 한자루를 꺼내 손에 들었다.
《자, 이걸 줄게. 우리 옥이 오빠 말 잘 듣지?》
그제서야 옥이가 생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경준이는 옥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잊지 말고 꼭 전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 오빠의 부탁을 바람처럼 날려보낸것이 아닌가. 맹꽁이같은거…
다급하게 걸음을 옮기던 경준이는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다.
몇발자국 떨어진 앞에서 옥이가 반색을 하며 뛰여오고있었다.
그애를 보는 순간 경준이는 화가 불끈 치밀었다.
《요 맹추야, 너 어쩌면… 그만큼 일렀는데 왜 까먹었니?》
《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옥이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너 오빠 말을 뭘루 아는거야? 그러단 나쁜 사람 돼.》
옥이는 눈이 올롱해졌다가 홱 돌아서버렸다.
《엥이, 너같은걸 믿은 내가 잘못이지.》
경준이는 길섶에 꺽두룩하게 서있는 풀대를 발길로 탁 걷어찼다.
《으—앙—》

옥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집쪽으로 뛰여갔다.

《너무하지 않니?》

뜻밖에 태호가 앞에서 한마디 하며 다가섰다. 경준이는 들은척도 안하고 자위대가 있는 곳을 향해 투덕투덕 발걸음을 옮기였다.

태호는 이상한 눈길로 경준이의 바지가랭이를 살펴보았다. 전에 같아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태호가 무슨 눈치를 챘게 아니야? 저한테 말하지 않고나 혼자 사라졌댔으니…)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은옥이가 앞에 불쑥 나타나 총알처럼 내쏘는것이였다.

《경준오빠 틀렸어. 옥이를 왜 울리니?》

경준이는 퉁명스레 대꾸했다.

《넌 뭘 안다고 참견이냐?》

늘쌍 부드럽고 온순하던 은옥이가 새침해서 말마디에 날을 세웠다.

《방금 옥이한테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래.》

《이상한 소리?》

《응, 철식이가 말하는걸 옥이가 들었대. 그래서 오빠가 오면 말하겠다고 기다리다가 나한테 먼저…》

《그게 뭔데?》

경준이는 온몸이 꿋꿋해지는것을 느끼며 다급히 물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두 지난해 가을처럼 후퇴를 또 하게 된다는거야.》

은옥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뭐라구? 다시 말해봐라.》

경준이는 와뜰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해. 글쎄 후퇴를 또 한다지 않니.》
경준이는 억이 막혀 말문을 열지 못했다. 무슨 왕청같은 소리를 하고있는가. 경준이는 큰숨을 몰아쉬며 다우쳐물었다.
《누가 그따위 소릴 했다니?》
《에이, 내 말을 듣니 먹니? 철식이라구 하지 않았니.》
《뭐, 철식이가?》
《자민이란 애 있지 않니. 저의 아버지가 속상해하는 소리를 듣구 철식이한테 슬쩍 말했다는거야. 그런걸 옥이가 귀동냥했지 뭐. 옥이야 후퇴가 뭔지 알기나 하니?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던건데…》
은옥이는 사뭇 긴장해서 경준이의 얼굴표정을 살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경준이는 가슴이 후두두 떨리고 다리맥이 쑥 빠져나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인차 마음을 다잡았다.
《은옥아, 그건 나쁜 놈들이 퍼뜨린 허튼소리일거야. 어쨌든 더 소문내지 말어. 알겠지?》
은옥이에게서 단단히 다짐을 받은 경준이의 생각은 깊어졌다. 오늘 하루동안 있은 일을 놓고보니 생각되는 점이 많았다.
선바위골근방에서 나쁜 놈을 놓쳐버린 일, 아이들속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 결국 제 혼자 큰일을 칠것처럼 나돌았지만 얻은것은 실패와 소동뿐이였다. 그렇다. 혼자서는 안되였다. 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것을 경준이는 오늘 하루일을 놓고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4. 검은 동굴

침침한 동굴안은 송탄유그슬음냄새로 코가 막힐 지경이였다.

굴밖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뒤따라 천둥소리가 동굴안을 들었다놓았다.

《하늘이 왜 이리 야단인가.》

대머리에 구레나룻이 더부룩이 난 놈이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느낀듯 입에 물었던 담배불을 바위벽에 꾹 눌러끄며 중얼거렸다.

《그래 요즘 형세는 어떤가?》

놈은 실눈을 해가지고 앞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놈의 마늘쪽같은 얼굴을 쏘아보았다.

《모판습격을 잘했어야 하는건데… 강뚝쪽에서 그만 들장나는 바람에…》

《머저리같은 놈들! 그렇게 일이 서툴어서야 어떻게 거사를 하겠나? 공연히 잠자는 호랑이들을 깨워놓은셈이 되지 않았는가. 애새끼들까지… 그날 꼬리를 밟힐번 한걸 생각하면… 허지만 어쩌겠나.》

놈은 밸이 나는걸 누르지 못해 씩씩 숨을 몰아쉬였다.

이놈으로 말하면 처단된 지주 민덕보의 아들 민응복놈이였다.

놈은 해방전에 서울에 가서 대학공부를 하다가 위병을

만나 중퇴하고 병치료에 좋다는 약수터란 약수터는 다 찾아다니며 돈만 탕진했다. 나라가 해방되자 놈은 먼저 남쪽으로 달아났다. 거기서 애비가 괴뢰군 장성을 한다는 대학동창을 만났다. 놈은 그 연줄을 타고 괴뢰군 소령자리까지 차지한 다음 권총을 차고 거들먹대며 애국자들을 체포학살하는데 미쳐날뛰였다. 이놈은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대가 질풍처럼 남으로 진격할 때 락동강계선까지 쫓겨갔다가 부상당하여 동창생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다.

놈은 우리의 전략상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운신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흥, 공화국이 며칠을 견디는가 보자 했더니… 역시 미군은 미군이야, 원자탄 뒤개에 왜놈들도 손을 들지 않았는가.》 하고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루는 동창생이 풀이 죽어가지고 찾아왔다.

《이건 무슨 놈의 판인지. 미군도 믿을건 못돼. 다시 이남으로 밀려나왔네.》

《아니 라지오에서는 계속 북으로 나간다고 하던데?… 우리 부친님은?》

《듣지 못했네. 내 알아볼터이니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구. … 미군이 그저 밀려나고말상싶은가?》

아닌게아니라 진달래가 다시 필 때 보자고 했다던 미군이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고향땅에서 미군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땅굴속에 배겨있던 부친이 마을사람들의 손에 체포처단되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다.

《아,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내 기어코…》

놈은 가슴을 북북 쥐여뜯다가 지팽이를 내던지고 다

시 싸움판에 뛰여들었다. 괴뢰군 특수계통에서 임무를 받은 다음 졸개 몇놈을 달고 은밀히 전선가까이에 있는 금포마을 깊은 산 동굴속으로 기여들었다. 그곳이 바로 여기 선바위골동굴이였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윙—윙— 소리를 치며 사납게 불고있었다.

동굴안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놈이 미국제술 한병과 뚜껑을 뗀 통졸임통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소령님, 준비되였습니다. 너무 약소해서…》

《음, 일없다. 때가 때인만큼 어쩌겠나.》

놈은 웃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사진을 한장 꺼낸 다음 잠시 들여다보다가 바위턱에 기대세워놓고 그앞에 통졸임통과 술잔을 올려놓았다.

구석짬에 앉아있던 놈이 웬일인가싶어 멀거니 쳐다보았다. 금포마을은 물론 주변마을들까지 돌아치며 정탐과 파괴암해책동을 하던 놈이였다.

《알아두게. 오늘이 우리 부친의 생일일세. 그저 지날수 없어 술이라도 한잔 붓는걸세. 겸해서 모일 일도 있구…》

놈은 일어서서 세번 허리를 꺾어 절을 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두놈이 부시시 다가와서 절을 세번씩 했다.

《아버님, 불효막심한 이 자식을 용서해주십시오. 부친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흑… 부친님의 유언을 지켜 우리 땅을 기어이 찾고 원한을 풀어드리겠으니 그리 믿어주십시오.》

놈은 어둠속에서도 두눈에 불을 일구며 절을 세번이나 더 하고나서 자리에 앉아 독한 술을 쭈욱— 들이켰다.

놈은 좌중을 둘러보며 술을 마시라고 손짓했다.
잠시후 놈은 취중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참, 사람의 운명이란 야릇하단 말이야. 금포마을에서 제노라고 하던 부친이 고향땅에서 무주고혼이 될줄 생각이나 했는가.
글쎄 밭밑에서 설설 기던것들이 제세상이 왔다고 떵떵거릴줄은… 쪼끄마한 애새끼들까지 제 애비들을 닮아가고있으니… 경준이란 놈이 여간하지 않다면서? 내가 남으로 넘어갈 때 그놈의 씨종자를 없애버렸어야 하는건데. 그만 놓쳐버렸거던? 그뿐인줄 아나? 락동강계선에서 한개 부대가 인민군대의 습격을 받고 거의 전멸된 일이 있었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습격조의 조장이 금포마을사람 즉 내 한고향내기였다는거야.》
《거참 운명이란…》
구석쪽에서 누구인가 허구픈 소리를 했다.
《그런데 하루는 상급에 불리워가던중 미군어른들의 비행기와 맞다들지 않았겠나. 복새통이였으니까. 난 들구뛨지 별수 있나? 살구봐야 할 판에 다리를 상하긴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보니 난 살았더란 말야. 하하, 그런데 한쪽다리가…》
《소령님은 정말… 하늘이 도왔구만요.》
《난 원래 하느님은 믿지 않아. 미군나리만 믿는단 말이야. 어쨌든 목숨은 붙어있지 않은가. …》
놈은 무슨 생각이 났던지 흐덕흐덕 웃고나서 다시 지껄였다.
《우리 조부모님이 봉건이 심했던것 같애. 초립동이를 일찍 장가들였는데 덜컥 아들을 낳지 않았겠나. 그

게 바로 나였단 말일세. 으흐흐…》

좌중엔 허구픈 웃음이 겨드랑이에 찬바람이 스며들듯 일었다.

구석쪽에서 쐑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괘씸한 고향내기소식은 그후 못들었는가요?》

《응, 언젠가 이북신문 한장을 본적이 있는데 아, 글쎄 훈장까지 척 단 그놈의 사진이 났더란 말이야.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

놈은 우거지상을 하고 입을 쩝쩝 다시였다.

늙수그레한자가 너털웃음을 웃고나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소령님은 고향내기의 도련님과 맞대면을 하게 되겠군요.》

《엉? 그건 무슨 뜻이야?》

《하하, 소령님 그 말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겠수다. 여기 금포마을 애놈한테 달려들었던 부친님께서도… 그러니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옆에서들 큰소리로 웃으며 민응복을 바라보았다.

《음, 알만 하이. …》

며칠전 민응복놈은 형세를 보자고 큰 소나무곁의 바위에 걸터앉아 쌍안경을 눈에 대고 주변을 살피다가 와뜰 놀랐다.

열두셋쯤 나보이는 사내애들을 발견했던것이다.

손에 낫과 새끼오리를 든것을 보면 나무를 하려 산에 오른것 같은데 거동이 이상스러웠다. 저녀석들이 무슨 흔적이라도 찾아내지 않았는지… 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자 애녀석들이 코앞에 선것처럼 보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검은 눈섭과 오뚝한 코, 나무랄데 없는 그 애비에 그 아들 경준이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녀석은 사진에서 본 고향내기와 모습이 비슷했다.

놈은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저 애새끼들을 그저 장난밖에 모르는 철부지로 보아선 안된다. 빨갱이들의 새끼가 아닌가.)

순간 놈의 머리속에는 치안대에 나무를 해다 바치던 어리숙한 놈의 아들녀석이 제법 소고삐를 잡고 어른들의 농사일을 돕고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놈은 다시한번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요놈들, 어디 두고보자. 때는 꼭 오고야말테니까. 소를 다루던 그 애비와 새끼까지 윽…)

민응복은 술기운이 빠지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굴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미국놈들이 내버린 군화를 한켤레 얻어신은 놈은 발에서 벗을줄을 몰랐다. 오늘따라 군화는 유별나게 뚜걱뚜걱 소리를 냈다.

비바람이 멎었는지 밖은 조용했다. 구두발소리만 유난히 굴안을 울리였다.

벽에 켜놓은 희미한 등잔불빛에 놈의 허리에 매달려있는 가죽권총갑이 번들거렸다.

잠시후 얼룩진 바지에 수염이 꺼칠한 놈이 들어와서 손에 들고온것을 민응복놈에게 내보였다.

《음, 오늘은 어떻게 됐는가?》

《예. 여기에…》

놈은 접은 종이장을 펼치였다.

《이게 정확하겠지?》

종이장에는 탕수골을 지나 전선으로 가는 땅크와 대포, 자동차를 비롯한 군수물자수송시간과 수자들이 적혀있었다.

숨을 후— 내쉰 민응복놈은 뚝뚝 소리가 나게 손가락매듭을 꺾으며 서성대다가 우뚝 멈춰섰다.

《제군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곧 전선형편은 크게 달라질것이다. 우리는 최전방 톱날짬에서 활약하게 될것이니 임무는 두가지다. 우선 빨갱이들의 후방을 교란시켜 전선원호를 파탄시키는것이다. 특히 〈금포1〉호벼농사를 망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벼농사 그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포1〉호벼농사를 기어이 성사시키려는 마을놈들의 기를 꺾어놓자는것이다.

다음은 전선으로 향한 공산군의 력량과 무장장비를 탐지해내야 한다. 이것은 아군의 전투승리보장에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길 날은 멀지 않았다. 마음을 든든히 먹고 일심을 다해야 한다.

에, 그리고… 거사를 단행할 날이 각일각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잊지 말라.》

쿵—쿵—

멀리 남쪽에서 들려오는 포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던 놈은 번쩍 머리를 쳐들며 목청을 돋구었다.

《여기 금포마을도 머지않아 미군관할지역이 될것임을 명심하라, 알겠는가.》

웅크리고 널려앉아있던 놈들이 일제히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5. 새로 오신 선생님

《빨리 가자, 오늘부터는 아이들이 다 공부하러 나올거야.》

경준이가 태호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알겠어. 그런데 어머니들은 지금 한창…》

태호가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 어머니들을 바라보았다.

《그렇다구 학습을 뒤로 미룰순 없어. 그것두 전투라고 하지 않았니.》

《하긴 그 말이 맞아. 파종두 전선이구.》

이때 머리우에서 까치가 깍깍 울었다.

경준이는 고개를 쳐들다가 다급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얘들아, 말 좀 묻자꾸나.》

애기를 업은 한 아주머니가 서있었다.

《아니?》

경준이는 깜짝 놀랐다. 희남이 어머니였다. 한때 경준이는 《금포1》호벼종자를 찾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주던 김진국아저씨네 집에까지 찾아갔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에 원쑤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되였다는 말을 듣고 경준이는 실망하고말았다.

그런걸 미국놈비행기폭격으로 집이 불탈 때 가까스로 끌

어낸 농짝속에서 종이봉투에 건사한 벼종자를 찾아준것이 바로 희남이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을가?

희남이 어머니도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아주머니가 물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어데 계시는지 모르느냐?》

《밭갈이하는데 계실거야요.》

경준이가 팔을 쭉 펴며 벌판을 가리켰다.

아주머니가 경준이를 눈여겨보다가 화제를 돌렸다.

《참, 너희들은 그새 공부를 어떻게 하고있니? 애로되는게 많겠지?》

경준이는 뒤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입안의 소리로 대답했다.

《잘… 못하구있어요. 그래서 오늘두 어머니한테서…》

희남이 어머니가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듣자니 경준학생이 책임자라던데…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 자, 어서 가봐라.》

희남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멀리 바라보이는 밭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경준이는 희남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되였는가를 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만 건성으로 하고 밭에까지 데려다드리지 못한게 여간 미안스럽지 않았다.

벼종자를 찾으려 읍에 갔을 때 기어이 붙들어앉히고 점심을 성의껏 차려주던 모습이 안겨와서 더욱 그러했다.

(돌아가실 땐 그러지 않을테야.)

경준이는 어서 빨리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도 아시면 얼마나 반가와하실가? 온갖 성

의를 다해 대접할것이다.

그런데 난 어떻게 한담? 그저 인사만 하고 마는게 너무 멋적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희남이한테 권총을 깎아주자.)

희남이네 집에 갔을 때 한창 걸음발을 떼면서 무엇이나 손에 잡으려고 고사리같은 손을 내밀며 해죽거리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 손에 권총을 들려주면 얼마나 기뻐할가?

경준이는 태호한테 말했다.

《나무권총을 하나 깎아주지 않겠니?》

총밖에 모르는 태호이니 권총쯤 하나 깎는건 식은죽 먹기일것이다.

《뭐? 권총?》

《희남이한테 주려고 그래.》

태호는 히쭉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점심시간이 지난지 얼마 안있어 태호가 싱글싱글 웃으며 나타났다. 그애의 괴춤에는 나무권총이 척 꽂혀있었다.

《자, 이만하면 됐지?》

《야, 수고했다. 빨리두 만들었구나.》

경준이는 권총을 받아들고 앞을 겨냥한 다음 《땅－땅－》 하고 입총을 쏘았다.

이제 희남이가 권총을 쥐면 좋아서 막 캐득거릴것이다.

경준이가 권총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있을 때 태호가 어데서 났는지 빈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아니, 너 그건?》

경준이는 눈이 둥그래졌다.

《왜 놀란 토끼처럼 그러니?》

《넌 뭣때문에 그런걸 또 들고다니는거야?》

《놀랄건 없어.》

태호가 싱긋 웃으며 수류탄을 경준이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너네 집 등잔이야. 오늘저녁부터 써봐라.》

《그새 등잔까지 만들었니?》

《응, 너네 집에 있는 기관총탄피등잔은 어디 쓰겠던? 오늘 손님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태호가 만들어준것인데 매일저녁 심지를 손질하기가 불편했다.

《야, 그런걸 난… 고맙다.》

《뭘, 그쯤한걸 가지구.》

태호가 코밑을 훔치며 제법 어른스레 말을 받았다.

이때 은옥이가 달려왔다. 그애는 어찌나 급히 뛰여왔는지 얼굴이 발그레해진채 흩어진 단발머리를 쓸어넘기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오셨대.》

《선생님?》

《응,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나보고 전하랬어. 동무들을 빨리…》

《야— 그게 정말이겠지?》

태호가 궁금해하며 얼굴을 쳐들었다.

《빨리 교실에 모이게 하랬어.》

경준이는 아이들을 시켜 련락을 띄웠다.

(야, 이젠 됐구나.)

얼마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구인가 큰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남자선생님일가? 녀자선생님일가?》

《선생님이면 됐지 뭘 그래?》
《난 녀자선생님이면 좋겠다.》
《흥, 학습을 뚜꺼먹으려고?》
《칫, 녀자선생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잘 알아주신단 말이야.》
문득 얼굴이 환해진 세포위원장아저씨가 희남이 어머니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섰다.
《얘들아, 인사해라.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다.》
《?!》
모두 어리둥절해진 가운데 경준이는 그 누구보다도 눈이 커졌다.
(희남이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으루?)
그는 희남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야—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나요?》
그러자 아저씨가 급기야 놀란 소리를 질렀다.
《이녀석아, 아주머니가 뭐냐? 선생님보구 버릇없이…》
아이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다.
경준이는 그만 무안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세포위원장아저씨는 경준이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바라보며 읍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사업하던 희남이 어머니가 이곳 형편을 전해듣고 금포마을과 문암마을아이들을 맡아 공부를 시키기 위해 자진해서 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경준이는 코등이 찌르르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모두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어려있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선생님에게 눈길을 주자 선생님이 가볍게 웃으며 아이들을 정다운 눈길로 둘러보고나

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우선 한명도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어요. 그러자면 규률을 더 잘 지켜야 하겠어요.》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은 여기 교실에 매일 한데 모이기 힘들거예요. 놈들의 비행기가 수시로 달려드니 위험하기두 해요.

경준학생이 가까이에 사는 학생들끼리 학습조를 무어 공부를하게 한다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계성이가 머밀머밀하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전 우리 집 누렁이때문에…》

순영선생님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말이지요? 소를 계성학생 혼자서만 다룰수 없습니다.

학생동무들이 다같이 나서면 소를 더 잘 키울수 있습니다.》

계성이가 머리를 기웃거리자 몇몇 애들이 키드득 웃었다.

태호가 그애들쪽으로 눈을 부라렸다.

《우리는 공부도 하고 전선원호두 잘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금포1〉호벼농사를 도와서 대풍을 안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누렁이를 계성학생 혼자서 돌봐야 하겠나요? 아니예요. 계성이네 소는 우리모두의 소와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다 마음을 합쳐서 소를 더 잘 키워나가자요. 알만 해요?》

키득거리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제법 진지한 기색이 어

리였다.

계성이만은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듯 슬금슬금 애들의 얼굴을 훔쳐보고있었다.

《알겠습니다.》

경준이가 가슴을 쑥 내밀며 힘차게 대답했다.

그제서야 계성이의 얼굴도 한결 풀어지는것이 알렸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마을어른들이 이제 모내기만 끝나면 미국놈비행기들이 아무리 날쳐도 안전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큰길에서 멀리 떨어진 밤나무숲속에 교실을 새로 크게 짓기로 했다고 하면서 며칠후부터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였다. 음턱골주변 학습조는 계성이네 외양간옆에 잇닿은 방에 자리를 잡고 밤나무골건너편 학습조는 특별히 방이 큰 태호네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뒤이어 학습조의 운영방식도 설명해주었다.

《야, 멋있겠네. …》

《그런데 조장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니?》

《뭘 어떻게 부른다고 그래? 〈태호조장동무〉, 〈계성조장동무〉 하면 될걸가지구.》

《야, 그건 인민군대에서 부르는 정찰조장같구나.》

아이들은 제나름으로 이름을 불러보며 좋아했다.

태호는 별스러울 정도로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임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자 계성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경준이옆으로 다가왔다.

《이제라도 학습조장을 바꾸면 안될가?》

《왜 바꾸자는거야?》

경준이가 놀란 눈길로 마주보았다.

《당장 논갈이를 해야 한다는데 소를 누가 돌보겠니? 어

머니 혼자 돌볼순 없단 말이야.》

《방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리모두가 제집 소처럼 생각하자구…》

옆에서 듣기만 하던 태호가 마뜩지 않게 쳐다보며 말했다.

《왜 못믿겠다는거니?》

《글쎄, 그런건 아니지만… 소가 일을 하자면…》

《자식, 너두 수걱수걱 일밖에 모르는 소를 닮아가는구나.》

경준이는 공부도 하면서 어머니들의 농사일을 잘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그날저녁 어머니는 희남이 어머니를 위해 성의껏 음식을 차렸다.

오래간만에 경준이네 집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수류탄등잔불이 불빛막이를 한 방안을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6. 계성이네 소

오늘도 계성이는 소먹이감을 구해보려고 승즈골에 갔다가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돌아왔다.

겨울에 먹이려고 준비해두었던 강낭짚이며 콩깍지들은 미국놈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 바람에 집과 함께 다 불타고말았다. 어느 집이나 소한테 먹일 여물이 긴장했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나섰댔는데 거기도 신통치 않았다. 겨우 콩깍지를 한광주리 얻어지고 돌아왔다.

(래일부터는 어머니들이 보탑을 잡아야 할텐데…)

계성이는 속이 상했다. 어데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수도 없었다. 그러니 소먹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계성이는 소외양간앞에 멈춰섰다.

오늘따라 하늘에는 구름이 흩어진채 어데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도 계성이의 안타까움이 구름이 되여 떠가는것 같았다.

(소를 잘 돌봐야 하겠는데. 우리 누렁이가 어떤 소인가.)

계성이의 귀전에는 며칠전에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마을에 장정들이라고는 별로 없고 힘쓸 소는 몇집밖에 없는데 서로 도와줘야 하겠구나. 〈금포1〉호가 어떤 벼냐?》

계성이는 그 말에 귀가 번쩍 티이면서도 생각이 복잡했다.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아버지가 소를 살려내기 위해 《치안대》놈들에게 나무를 몇번 해다준 일때문에 계성이 아버지와 계성이는 물론 소까지 경준이와 태호한테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가. 그 일로 아버지, 어머니는 숱한 속을 썩였고 자기는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녔었다.

아버지가 긴숨을 쉬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나간 일을 말해서 뭘 하겠니. 내가 하두 청맹과니가 되다보니 큰 죄를 지었지. … 그래두 마을사람들은 날 리해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데 이럴 때 모른척 하면 되겠느냐.》

계성이는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겨울을 나고 약해진 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알찌근하기도 했다.

며칠전에는 마을에서 제일 기운을 쓰던 은옥이네 누렁소가 도로 한가운데서 미국놈비행기의 기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날 계성이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했다.

《악착한 놈들, 소 한마리가 얼마나 귀한 땐데 생소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다니. …》

계성이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마치 자기네 누렁소가 쓰러진것만 같았다. 그래 그런지 요즘은 외양간에 누워있는 소가 더욱더 소중해보였다. 더우기 약해진 소를 볼수록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아서 짬짬이 소먹이감을 구하러 분주하게 뛰여다니며 소심부름을 도맡아하다싶이 했다.

계성이는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소외양간에 들어서다

가 짐짓 멈춰섰다.

뜻밖에 경준이와 태호가 외양간앞에 나타난게 아닌가.

며칠전에 왔다갔는데 또다시 찾아온것이였다. 계성이는 무척 반가왔다.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와.》

경준이가 얼른 말을 받았다.

《우리가 진작 왔어야 하는건데 너 혼자 소를 돌보느라고 바빴겠구나.》

경준이는 부엌에 잇달려있는 외양간을 둘러보았다. 이미 몇번 와본 외양간이지만 별로 낯설어보였다.

산경사면을 따내고 지은것인데 세면은 흙벽이고 앞이 탁 트인 두 기둥사이에 커다란 구유가 놓여있었다. 흙벽 량옆으로 옹이가 뭉툭한 소나무기둥을 든든히 박아놓았기때문에 소가 잔등이며 옆구리를 옹이에다 마음대로 비벼댈수 있게 해놓았다.

소목에 달려있는 구리방울과 이마에 붙어있는 엽전도 늘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방울소리는 먼곳에서도 유난히 쟁쟁 울렸다.

《정말 네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경준이는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물었다.

《참, 너의 아버지 몸은 좀 어떻니?》

계성이의 얼굴색이 대뜸 흐려졌다.

《어제 오후부터 아버지의 상처가 다시 도졌어.》

《뭐라구?》

경준이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붉어졌다. 자기때문에 심한 상처를 입은 계성이 아버지인데 그런것도 모르고있었으니…

어둑시근한 방안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있던 계성이 아버지가 경준이의 두손을 꽉 잡아주며 반가와하였다.

《경준이 왔구나. 그래, 모는 잘 자라니?》

《예. 잘 크고있어요.》

《암, 그래야지. 그 벼가 어떤거라구…》

계성이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후— 내쉬였다.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어려있었다.

《계성이 아버지, 지금도 아프나요?》

계성이 아버지가 한숨을 톺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경준이는 얼른 계성이 아버지를 바로 눕혀드리고 베개를 고쳐베워주었다.

미국놈비행기들이 어데다 또 폭격을 하는지 둔중한 폭음소리가 들려왔다.

《상처가 빨리 나아야 밭이랑 논두 갈고 써레질두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성이 아버지가 잠시 뙤창을 바라보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농사란 절기가 있어서 제철을 놓치면 안되겠는데 비행기까지 저렇게 날치고있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경준이와 계성이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였다.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였다. 소가 있다쳐도 보잡이가 든든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논과 밭을 다 갈아엎겠는지 걱정되였다.

이럴 때는 자기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것이 막 속상했다. 갑자기 훌쩍 어른으로 되는 수는 없을가. 그렇다면 태호며 계성이며 명남이, 철식이랑 번갈아가면서 며칠사이에 밭갈이, 논갈이를 다 끝낼수 있을텐데…

그런데 며칠전까지만 해도 인차 나을거라고 하던 계성이 아버지의 상처가 다시 도졌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경준이의 눈앞에는 지난봄에 있었던 일이 불쑥 떠올랐다.

미제원쑤놈들이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자 땅굴속에 숨어있던 민덕보놈은 《금포1》호벼종자들을 찾아 소에 싣고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며 먼저 뛰여내려오는 경준이한테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계성이 아버지가 놈을 막아나서 경준이는 무사했으나 계성이 아버지는 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것이다. …

태호와 함께 계성이의 집을 나선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였다. 계성이 아버지의 상처가 빨리 낫도록 도와드리지 못하는게 안타까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났다.

불현듯 경준이의 머리속에 래일부터 마을어머니들이 보탑을 잡게 될거라고 하던 계성이의 말이 떠올랐다.

《태호야, 이제 어머니들이 보탑을 잡는다고 했지?》

《응,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가.》

《그러게말이야.》

두 아이는 생각에 잠겨 수굿하고 걸음을 내짚었다.

경준이는 래일부터 아버지대신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일찍 잠에서 깨여난 경준이는 얼른 부엌으로 나

갔다. 부뚜막우에 씌워있는 무명보자기를 벗기자 죽그릇이 놓여있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또 나물죽을 잡수신게 아닐가?)

불탄 집터에서 긁어모은 벼와 콩, 수수, 좁쌀을 가지고 한겨울을 근근히 났으나 봄철에 접어들자 집집마다 식량사정이 더욱 긴장해졌다. 그래서 나물을 뜯어다 멀건 죽을 쑤어 끼니를 에우군 했다.

경준이가 가마뚜껑을 열어보자 죽그릇이 놓여있었다. 쌀알은 거의 없고 멀건 나물뿐이였다. 자기들한테는 그래도 쌀알이 많이 섞여있는데 어머니의 점심은 말이 아니였다.

옥이와 함께 밥상에 마주앉은 경준이는 숟가락을 들수가 없었다.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어머니가 나물죽을 잡숫고 어떻게 보탑을 잡는담?)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던 경준이는 상을 물리기바쁘게 위장망을 두르고 집을 나섰다.

실개울을 건너 뛰다십이 걸어갔다.

밭머리에 한아름되는 돌배나무가 자라고있었다.

우산을 펼쳐든것처럼 펴진 가지에 파란 잎이 활짝 피여있었다. 그밑에 넙적넙적한 돌들을 빙 돌아가며 깔아놓았는데 마을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정오가 되면 그 나무밑에 모여 점심을 끝낸 다음 돌베개나 쑥베개를 베고 잠간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날이 저물 때까지 일을 하군 하였다.

최뚝에 이르자 경준이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밭에서는 어머니가 보탑을 잡고 계성이가 앞에서 소

를 몰고있었다.

어머니는 검정무명치마를 걷어올려 허리에 동여맨채 보습으로 흙을 뒤엎으며 나갔다. 그때마다 온몸에 위장을 한 나무잎과 풀들이 가볍게 흔들리였다.

태호가 털썩털썩 걸어오며 경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벌써 나왔니?》

《응, 나도 방금 왔어.》

경준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어머니들쪽을 바라보았다.

태호 어머니와 계성이 어머니는 괭이와 쇠스랑으로 보습이 닿지 못한 밭머리를 푹푹 뚜지기 시작했다.

경준이와 태호도 얼른 괭이와 삽을 손에 쥐고 이랑머리를 뚜지다가 손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예리한 파편쪼각이 논바닥에 박혀있었다.

(엥이, 이놈의 파편…)

경준이는 파편을 집어서 멀지 않은 밭머리에 있는 돌각담에다 던졌다. 어데를 가나 논과 밭은 물론 산기슭과 길가의 수풀속에 칼날같은 파편쪼각들과 미국놈비행기에서 날려보낸 누런 기총탄피고리가 너더분했다.

언제 오셨는지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흐뭇해서 말했다.

《하여간 아주머니들 용습니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정말 못하는 일이 없구만요.》

경준이와 태호가 꾸벅 인사를 하자 그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너희들두 나왔구나. 정말 용타.》

쉴참이 되자 모두 밭머리에 둘러앉았다.

계성이네 누렁소가 헐썩헐썩 코김을 내불며 퉁방울눈을

데룩거리고있는데 소방울이 쩔렁쩔렁 울렸다.

경준이 어머니가 머리에 썼던 수건으로 이마에 내밴 땀방울을 씻으며 말했다.

《보탑을 잡아보니 헐치 않군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맥을 놓고 주저앉을순 없지 않아요?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힘껏 일해보겠어요. 전선에서도 녀성들이 남정네들 못지 않게 싸우고있지 않나요.》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으로 땅의 주인이 되여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장군님의 뜻대로 올해농사를 잘 지어 전쟁승리에 이바지합시다.》

경준이는 후더워진 가슴을 안고 새로 갈아놓은 이랑을 바라보다가 계성이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방금전에 소결에 붙어있었는데 어데 갔을가?)

경준이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벌떡 일어섰다.

계성이가 커다란 망태를 둘러메고 헐떡거리며 최뚝을 타고 뛰여오는것이였다.

경준이는 마주 달려가 그물망태를 받아들었다.

계성이는 멍에를 벗긴 다음 망태에서 풀을 듬뿍 꺼내여 누렁소의 코밑에 가져다댔다. 소는 고맙다는듯 대가리를 주억거리며 걸탐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역시 주인이 다르군요. 먹은 소가 힘쓴다고 했는데…》

《그러게말이예요. 우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했지.》

어머니들이 저마다 계성이를 칭찬했다.

경준이는 슬그머니 얼굴이 뜨거워났다. 계성이를 도와줄 생각을 미처 못했던것이였다. 그는 계성이의 어깨를

툭 쳤다.

《계성아, 미안하다. 앞으로 나랑 태호랑두 소먹일 해주마.》

말해놓고보니 태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고마와. 나 혼자두 돼.》

계성이가 가볍게 웃어보였다.

《참, 태호가 어디 갔을가?》

《저기 탕수골쪽으로 올라가는것 같더구나.》

《거긴 왜?》

《그걸 아니? 그애야 뭐…》

계성이를 피끗 마주본 경준이는 태호생각에 잠겼다.

(이애가 갑자기 무슨 일일가? 또 탄피들을 얻으러 간게 아니야?)

재진공시기 남쪽으로 쫓겨가던 미제원쑤놈들이 인민군대한테 된벼락을 맞고 녹아난 곳이 바로 탕수골이였다.

경준이는 위구심이 들었다. 탕수골에는 아직도 폭발물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

태호가 거기에 가서 무슨 위험한 장난을 하겠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더우기 어머니들이 보잡이가 되여 논을 갈고 밭에 씨앗을 묻는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도울 대신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

방금전에 어설픈 웃음을 짓던 태호의 모습을 그려보던 경준이가 계성이의 손을 잡았다.

《계성아, 우리 태호를 찾아보자.》

《그건 왜?》

《혼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게 뭐야?》

계성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어정어정 따라섰다.

그러면서도 소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걱정말아. 어머니들이 소를 잘 돌볼거야. 세포위원장 아저씨도 있지 않니.》

경준이와 계성이는 탕수골로 접어드는 산기슭의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무성한 참나무숲이 시작되는 샘터앞에서 태호를 만났다.

《태호야, 넌 어델 갔댔니?》

태호는 계성이쪽을 흘깃 바라보고는 어물어물 변명하듯 대꾸했다.

《꼭 가봐야 할데가 있어 그랬어. 바쁜 너희들한테 꼬치꼬치 말하기두 별나서…》

《바쁜 너희들? 그래, 우린 바쁘다 하자. 그럼 넌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거야.》

《꼭 가볼데가 있다구 하지 않니. …》

태호는 답답한듯 목깃을 헤치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온 마을이 봄씨붙임을 하느라고 바삐 돌아가는걸 넌 못보고있니?》

《…》

경준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다.

《계성이네 소가 먹을 꼴쯤이야 우리들이 베여다 줄수 있지 않니?》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뭐. …》

태호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나서 피식 웃음을 지었다. 저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표정이였다.

경준이는 숨을 호— 내쉬며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옮기였다.

태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무거운 분위기를 가셔내려는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칡뿌리를 꺼내들었다.

《애들아, 이거나 먹어보자.》

《그건 어데서 났니?》

《자민이가 캐가지고 오다가 먹으라고 몇토막 주더라. 그런걸 생각이 나서…》

《그래?! 고맙다.》

경준이는 칡뿌리를 한입 뜯어낸 다음 새하얀 속살을 아삭아삭 깨물었다. 그런데 달고 고소한 맛이 별로 나지 않았다.

태호도 이마살을 찌프리며 중얼거렸다.

《이앤 참, 이른봄에 캤어야 하는건데 이젠 단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공연히 입만 버리게…》

《그앨 탓할게 있니? 그래두 생각해서 줬겠는데.》

경준이는 칡뿌리를 대충 씹어서 물만 빨아먹고 뱉아버리였다.

계성이는 말없이 칡뿌리토막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7. 누가 한짓인가

밭이랑에는 씨앗을 묻으며 지나간 어머니들의 발자욱이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계성이네 소가 정말 많은 밭을 갈았구나.)

경준이의 눈앞에는 처음 보탑을 잡고 밭을 갈던 어머니와 앞에서 소를 몰아가던 계성이의 모습이 엇바뀌여 안겨왔다. 처음엔 무척 아름차게 보이더니 이제는 밭들을 다 갈아엎고 씨앗까지 묻은게 아닌가. 그러니 소가 얼마나 힘들었을가. 래일도 소는 쉴새없이 또 밭을 갈아야 한다.

(소꼴을 더 많이 베여다주자.)

경준이는 정자나무가지에 걸어놓았던 구호를 벗겨서 둘둘 말아 손에 쥐고 계성이네 밭이 있는 재바등으로 뛰다싶이 걸어갔다.

계성이네 밭은 경준이네와 반대켠 개울건너 언덕진 곳에 있었다. 거기에도 역시 크지 않은 돌배나무정자가 아름찬 가지들을 펼치고 서있었다.

《아니, 경준이 아니냐?》

계성이 어머니가 밭갈이준비를 해놓으려고 미리 나와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경준이는 인사를 하며 손에 들고온 구호를 밭머리의 돌배나무가지에 걸어놓았다.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는 구호의 글발이 힘있게 안겨왔다.
《원, 신통두 해라.》
계성이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구호를 바라보는데 계성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느닷없이 달려왔다.
얼굴색이 말이 아니였다. 그저 온몸을 덜덜 떨고있었다.
《왜 그러냐?》
계성이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서 말하렴. 무슨 일인지…》
경준이도 눈이 둥그래서 소리쳤다.
《어머니, 소… 소가… 우리 집 누렁이가…》
계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누렁이가 어쨌다는거냐?》
《지금 막 죽어가고있어요. 쓰러져서 게거품을 흘리는게…》
《뭐라구?》
어머니의 얼굴은 금시 사색이 되였다. 계성이의 눈에서 쭈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서 가자. 어쩌면 우리 누렁이가…》
계성이 어머니가 한손에 수건을 거머쥐고 치마자락을 날리며 황급히 반달음을 놓기 시작했다.
(누렁이가 죽어가다니?!)
영문을 몰라 서있던 경준이도 계성이의 뒤를 따라 달음박질을 쳤다.
계성이네 외양간에 들어서니 누렁소가 구유앞에 쓰러져 가쁜숨을 내쉬며 느침을 질질 흘리고있었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왔다. 경준이 어머니와 태호

어머니도 있었다.

《아이구, 이걸 어쩌나. …》

《아니, 대체 웬일이요?》

밭갈이, 논갈이를 한창 해야 할 이 바쁜 대목에 소가 쓰러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였다.

경준이 어머니가 사위를 둘러보며 결연한 어조로 웨치듯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를 꼭 살려냅시다. 몇사람만 남고 모두들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자요.》

《옳아요. 한시가 새로운데 어서 가서 쇠스랑질이라도 합시다.》

태호 어머니가 호응해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심에 잠겨 선뜻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태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직은 모르겠어.》

경준이는 바싹 마른 입술을 감빨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논밭으로 떠나가고 경준이 어머니가 몇몇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있을 때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성급하게 뛰여왔다.

《내가 좀 봅시다.》

그는 누렁이옆에 바투 다가앉더니 먼저 눈을 한번 뒤집어보고 그다음에는 다시 입안을 깐깐히 살펴보는것이였다. 그다음에는 주변에 흩어져있는 풀단을 헤쳐보기도 하고 소구유통을 헤집어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소를 다루는것을 주의깊게 보고있었다.

아저씨는 마침내 타원형으로 된 버들모양의 잎들이 서로 어기여 붙어있으면서 우로부터 줄기아래를 감싸고있는 풀을 손에 집어들고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소가 이 박새풀을 먹고 중독된게 분명합니다.》

《아니, 박새풀?》

경준이와 태호는 어깨를 흠칫하며 아저씨가 들고있는 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누렁이가 독풀을 먹고 쓰러졌다는것이 아닌가.

경준이와 태호는 약속이나 한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다음은 구유앞에 놓여있는 꼴단을 눈여겨살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베여온 꼴단이였다. 그중 풀지 않은 꼴단에 박새풀이 섞여있었다.

《아니, 저 꼴단에?》

태호가 놀란 소리를 쳤다. 꼴단을 묶은 오락지는 분명 자기가 한것이였다.

《저건 네가 벤 꼴단이 아니냐?》

경준이는 아연했다.

《야참, 이걸 어찌니?》

계성이가 두발을 동동 구르며 꼴단을 헤쳐보다가 원망어린 눈길로 경준이와 태호를 바라보았다.

《너흰 박새풀도 모르니?…》

《그럼 우리가 소풀을 마구 베왔다는거니?》

경준이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독풀을 베오지 않았어.》

태호는 눈을 부릅뜨고 내쏘았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계성이가 박새풀을 내흔들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한발 나서며 그들의 다툼질을 제지시켰다.

《됐다. 박새풀이 나진건 사실이 아니냐?》

《?!…》

사람들이 저마끔 뭐라고 수군거리며 아이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경준이는 알지 못할 두려움으로 하여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원망에 찬 눈길들이 아이들에게로 쏠렸다.

《한심하군.》

《큰일날번 했수다.》

동네어른들이 혀를 차며 한숨을 톺았다.

그러나 세포위원장아저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할뿐이였다.

《아직은 이렇다저렇다 속단하지 맙시다.》

태호는 억이 막혔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자리에서 빠개놓을수도 없었다.

태호가 다짜고짜 경준이의 팔을 잡아끌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쨌든 네 꼴단에서 나오지 않았니.》

《뭐?!》

씩씩거리며 거친숨을 몰아쉬던 태호가 또다시 소리쳤다.

《난, 난… 독풀을 베오지 않았단 말이야!》

경준이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쨌든 태호가 해온 소꼴에서 독풀이 나오지 않았는가.

얼굴이 시뻘개있던 태호가 《좋아,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 하며 제먼저 걸음발을 떼였다. 가쁜숨을 몰아쉬는 태호를 보며 경준이는 생각이 깊어졌다. 이때까지 소꼴을 해

오면서 이런 일은 없었다. 더구나 태호가 박새풀도 몰라볼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한짓인가?…

무서운 예감이 경준이의 뇌리를 쳤다.

《늘쌍 덜렁덜렁하더니…》

《뭐야—》

계성이의 말에 주먹을 불끈 쥔 태호의 얼굴에 열기가 뻗쳐올랐다. 경준이가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렸다.

《됐어. 태호야, 우리 빨리 가보자.》

태호가 계성이를 쏘아보며 문밖으로 나가버렸다.

계성이는 누렁이앞에 마주앉아 씨근씨근 가쁜숨만 톺아올리고있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어느새 녹두를 얻어가지고와서 절구에 넣고 쿵쿵 공이질을 하고있었다. 독풀이에는 녹두가 제일 좋다는 계성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러는것이였다.

경준이는 문지방에 몸을 의지한채 괴로운 표정을 짓고있는 계성이 아버지앞으로 다가갔다.

《계성이 아버지, 정말 안됐습니다.》

《안되긴, 너희들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겠니. 어찌된 일인지…》

경준이는 문득 짚이는것이 있어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계성이 아버지, 박새풀이 어데서 자라는지 보신적이 있나요?》

《왜 없겠니, 있지. 허지만…》

《어서 말씀해주세요. 좀 알아보구싶은것이 있어서 그래요.》

계성이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천천히 말했다.

《박새풀이야 아무데서나 다 자라지. 그런데 우리 마을

주변에서는 탕수골 골안 습지에서 많이 자란단다.》
《정말이나요?》
《그럼. 탕수골 오른쪽 골안에 들어가면 부채살처럼 생긴 부채바위가 있다.
거기서 아래켠으로 내려서면 습지대인데 바로 거기다. 너희들이 꽤 가낼수 있겠는지…》
《알았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경준이는 계성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한 다음 집을 나섰다. 먼발치에 있는 밤나무밑에서 태호가 기다리고있었다.
경준이와 태호는 숨이 차게 걸음을 다그쳐 굴량골어귀에 있는 개울가에 다달았다.
며칠사이에 풀들이 더욱 무성해졌다. 물봉숭아도 어느새 망울을 터치였다.
경준이는 잠시 망설이였다.
계성이 아버지는 탕수골에 박새풀이 있다고 했는데 굴량골 개울가에 찾아오다니?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보는게 더 좋을것 같았다. 더우기 태호는 무작정 아니라고 우겨대고있지 않는가.
《에, 덥다.》
태호는 허리를 굽히고 두손으로 맑은 물을 얼굴에 끼얹은 다음 옷자락으로 쓱쓱 문대였다.
《여기가 분명한데…》
태호가 풀숲을 두리번거리였다. 분이 어지간히 사라진 인상이였다.
《여긴 아니야. 더 가야 해.》
《네가 어떻게 아니?》
《저기 보려무나. 오리나무등걸이 보이지 않니?》

경준이가 개울 웃쪽의 멀지 않은 굽인돌이를 가리켰다.
《야 정말, 넌 언제 봐야 한번 왔던 곳은 잊지 않게 머리속에 뭔가 기억해놓는다니까. 지난 봄 벼종자를 찾을 때 선바위골에서처럼…》
태호가 한손으로 뒤더수기를 긁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빨리 가보자.》
《그래.》
그들이 개울을 따라 오리나무등걸이 있는데까지 올라가자 정말 여기저기에 풀을 벤 자리가 있었다. 많은 풀을 베였다가 무거워서 내버린 풀단 하나가 그대로 딩굴고있었다.
《맞았어, 여기구나. 그런데…》
태호의 말에 경준이 역시 머리를 기웃거리며 주변을 깐깐히 살펴보았다. 박새풀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자, 봐라. 어데 있니? 계성이 그자식때문에 숱한 사람들앞에서 나만 의심받았다니까.》
《가만 있어. 아직은 더 알아봐야 할 일인데…》
《그럼 우리가 독풀을 벴다구 인정하자는거야?》
태호가 목청을 높였다. 얼굴에서 또다시 분기가 살아올랐다.
경준이는 머리칼이 쭈뼛 곤두서는감을 느꼈다.
그렇다. 우리는 박새풀을 베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건 어데서 끼여든걸가.
누렁소에게 먹일 꼴을 베자고 선동한것도 나였고 아이들과 함께 앞장에 선것도 나였다. 한장소에서 다같이 벴는데 어느 한 풀단에만 독풀이 들어있을수는 없지 않는가.

경준이는 태호옆으로 조용히 다가섰다.

《태호야, 더 찾아볼것두 없구나. 빨리 탕수골에 가보자.》

《거긴 왜?》

태호가 의아해서 쳐다보았다.

《박새풀을 찾아봐야지?》

《탕수골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듯 경준이의 얼굴을 쳐다보던 태호가 뜨직한 소리를 했다.

《난 집에나 가겠다.》

《집?… 지금 온 마을이 계성이네 소때문에 걱정하고있는데 넌…》

경준이는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알다가도 모를 태호였기때문이다.

《박새풀? 우리가 벤 자리엔 없다는걸 방금 똑똑히 보지 않았니. 흥ㅡ》

태호가 코소리를 내며 탕수골쪽을 바라보았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가서 찾아보자.》

경준이는 격해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태호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8. 탕수골에서

경준이와 태호는 탕수골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크지 않은 언덕길을 오르자 경사가 급한 비탈길이 나타났다.

경준이와 태호는 단숨에 참나무숲을 헤치며 등성이에 올라섰다. 십리쯤 가면 부채처럼 생긴 바위가 나질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눈에 띄지 않았다.

산기슭에 피였던 조팝나무꽃, 병꽃들도 어느덧 시들기 시작했다. 대신 장구채가 자라는가 하면 할미꽃들이 점점이 피여나기 시작했다.

갈수록 숲이 우거져서 더욱 으슥했다.

태호가 두릿두릿 살피며 자주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멀었니?》

《인차 나질거야.》

경준이는 초조한 눈길로 앞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다.

(정말 박새풀이 있을가? 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여 계성이네 외양간에 나타났는지 참으로 수수께끼였다. 그것을 풀어야 마음을 놓을것 같았다.

어데선가 쿵— 쿠궁— 둔중한 폭음이 들려왔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경준이는 얼굴을 쳐들다가 우뚝 멈춰섰다.

《태호야, 저 바위가 부채살처럼 생기지 않았니?》

《응, 비슷하구나.》

태호가 머리를 끄덕이며 서두르기 시작했다.
《가만, 좀더 확인해보자.》
《또 확인이야?》
태호가 그자리에 멈춰서며 경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속이 편안치 않은 기색이였다.
《계성이 아버지가 대준대로 맞는가 확인해보자는거야.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고생두 덜수 있어.》
태호가 입을 다문채 머리를 끄덕이였다. 경준이는 앞장에 서서 바위가까이로 다가갔다.
우중충한 바위는 정말 부채살처럼 생겼다. 주변에는 마른 나무잎들이 바람에 날려온채로 널려있고 음달진 곳에는 이제야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바위밑에 웬 상자 하나가 놓여있었다.
경준이의 눈길이 대뜸 꼿꼿해졌다. 자기도모르게 온몸이 바싹 얼어드는것 같았다. 태호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웬걸가?》
태호가 긴장해서 물었다.
《미국놈의 상자가 틀림없어. 저 글자를 보려무나.》
거무스레한 상자에 씌여있는 《US》라는 흰 글자가 눈에 띄였다.
아이들은 흠칫 놀라며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이상하구나.》
여느때같으면 팔을 걷고나섰을 태호였지만 오늘은 주저하고있었다.
상자의 겉모양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경준이가 태호를 돌아보았다. 며칠전에 탕수골어귀에서 만났던 태호가 생각나서였다.

《너 전번에 탕수골에 간다구 그랬댔지?》

《응, 저기 보이는 고개마루말이야. 거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니.》

《그럼 여기하고는 방향이 다르구나.》

잠시 두눈을 쪼프리고 생각을 굴리던 경준이가 상자곁으로 바투 다가서서 뚜껑을 열어제꼈다. 순간 두 소년은 그자리에 굳어졌다. 텅빈 상자에서 무기에 바르는 기름냄새같은것이 확 풍겨나왔던것이다.

《누가 안에 있던걸 가져갔구나.》

태호의 입에서 대뜸 맥빠진 소리가 새여나왔다.

경준이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저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을가?》

《그러게말이야. 아쉬운데.》

태호가 잡았던 토끼를 놓치기라도 한듯 입을 쩝쩝 다시였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애.》

《나도 그 생각이야.》

상자뚜껑을 도로 덮어놓은 경준이와 태호는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다가 길을 가로질러 산기슭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기였다.

경준이의 눈앞에는 빈 상자가 자꾸 떠올랐다. 혹시 나쁜 놈들이 주변 어디에 숨어있는게 아닐가?

온몸이 긴장해진 경준이는 얼핏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춤했다. 박새풀은 아래켠 골짜기 습지대에 있다고 했는데 반대켠쪽으로 가고있었던것이다.

《태호야, 이쪽이야, 이쪽…》

경준이가 소리치며 손짓을 했다. 두 소년은 말없이 발

길을 돌리였다. 고요한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만 울리고있었다.

머루와 칡넝쿨이 한데 엉킨 속에 더덕넌출이 여기저기 뻗어올라가고있었다.

그들은 숲에서 빠져나와 습지대가 있는쪽으로 걸어갔다.

태호가 어느새 쇠기 시작한 싱아를 꺾어들고 와삭와삭 먹다가 중얼거리였다.

《에, 시크러워…》

경준이는 태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입안에서 침이 저절로 돌며 자기도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졌다.

《안됐구나. 나 혼자 먹어서…》

《너도 알지 않니. 나야 시크러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그러니 단것만 삼킨다는거겠지?》

경준이는 싱긋 웃으며 얼굴을 쳐들었다.

인차 앞이 탁 트인 풀판이 나지였다.

돌돌 흐르는 실개울주변에는 이름모를 꽃들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외진 곳인지라 누구도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해가지 않아서 몹시 풍성했다.

실바람이 슬슬 불어오자 갖가지 풀대들이 저마다 가볍게 흔들거렸다.

경준이는 눈길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태호야!》

《왜 그러니?》

앞서 걸어가던 태호가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가 좀 이상해.》

《가보자.》

가까이 다가서던 경준이와 태호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멈춰섰다. 너무나 놀라와 숨이 꺽 막히는듯 했다.

가슴이 후두두 떨리고 등골에 소름이 쭉 끼쳤다.

여기저기에 풀을 벤 자리…

베여낸 풀들은 신통히도 박새풀이였다.

계성이네 소구유에서 본것과 꼭같았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기서 박새풀을 베여간게 틀림없었다. 벤 자리의 그루터기만 보아도 알수 있었다.

(그럼 나쁜 놈들의 작간이 아닐가?)

눈앞에 방금 본 상자가 떠올랐다. 빈 상자… 박새풀… 쓰러져있던 계성이네 누렁소…

경준이의 머리속에는 문득 며칠전에 만났던 낯선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그 《납작모자》?… 아니, 틀림없는 민응복놈의 작간이다.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온몸이 바싹 긴장해졌다.

숲속에서 반동놈들이 자기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있는것만 같았다.

《빨리 돌아가자.》

《응.》

경준이와 태호는 발목에 감겨드는 풀을 걷어차며 걸음을 재촉했다. 발걸음도 마음도 저절로 무거워났다.

금시 머리우에 검은구름이 드리운것 같았다.

그들은 뒤도 돌아볼새없이 단숨에 좁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크지 않은 등성이에 올라섰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이마에 내밴 땀을 식혀주었다.

태호가 경준이의 팔꿈치를 꽉 잡으며 말했다.

《어휴, 숨차라.… 경준아, 정말 나쁜 놈의 작간일가?》

태호의 목소리는 자못 긴장해졌다.
《아직은 똑똑히 알수 없지만 이상하지 않니.》
《하여간 오늘 일은 아직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자.》
《알겠어. 선생님에겐 말해야 하지 않을가?》
《그야 물론이지. …》
태호와 헤여진 경준이는 선생님을 만나러 밤나무골 림시교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선생님은 교실에 없었다.
《선생님이 어데 가셨을가?》
문앞에서 서성대던 경준이는 너무 시간을 지체시키는것같아 재빨리 민주선전실로 리용하는 굴바위로 향했다.
《경준이 왔구나.》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문을 열고 반겨맞으며 경준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저, 아저씨…》
경준이는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여느때같으면 싱글벙글 웃으며 대했을 경준이가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경준이는 지금까지 세포위원장아저씨를 허물없이 대했다.
누구보다도 경준이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었고 마을 후방가족집들과 함께 경준이네 살림도 자주 돌보아주었다. 어머니도 농사일이 힘들 때마다 세포위원장아저씨를 만나 자주 토론하면서 힘을 얻군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경준이도 아저씨를 간격없이 대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아저씨가 계성이네 소가 쓰러졌을 때 박새풀을 내보이며 《박새풀이 나진건 사실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할 때 두려움으로 하여 억울했던 생각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뭔지 어서 말해라. 마음놓고…》

아저씨가 긴장해진 경준이의 마음을 누잦혀주려는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때 문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밖에다 위장망을 벗어놓은 선생님의 어깨우에 풀잎이 묻어있었다.

《선생님!》

경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에 묻은 풀잎을 뜯어냈다.

《순영선생이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손짓하며 반기였다.

선생님은 미안쩍어하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선생님,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저씨는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선생님은 밝은 웃음을 짓고 경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준학생, 무슨 일이 있는것 같은데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요. 어서…》

아저씨는 머리를 끄덕이며 경준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준이는 붉게 상기된 얼굴을 쳐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했다.

한동안이나 말없이 경준이의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는 《그랬댔구나.》 하며 무거운 안색으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벗은 색날은 군대모자가 꼭 쥐여져있었다.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가족들을 다 잃은 세포위원장아저씨였다.

부상을 당하고 제대되여 고향땅에 돌아와서야 불행한 소

식을 알게 되였지만 아저씨는 쓰라린 가슴을 마음속으로 달래면서 꿋꿋이 이겨나갔다.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이였지만 마을사람들을 전쟁승리에로 억척같이 이끌어나가고있었다.

아저씨가 얼굴을 돌려 경준이를 바라보며 심중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원쑤놈들은 남쪽으로 쫓겨갔지만 더욱더 발악을 하고있단다.

민덕보놈이 뒈졌다고 만세를 부르기는 이르다. 지금 마을주변에 그 아들놈이 기여들었다.》

《예,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경준이의 눈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불꽃처럼 튀고있었다. 꽉쥔 두주먹은 가늘게 떨리며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누르지 못하고있었다.

《우린 어떻게 해서든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그래야 원쑤놈들과 싸워이길게 아니냐? 네가 오늘 중요한걸 발견했다.》

아저씨는 경준이를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의미있게 말했다.

《저… 그런데 계성이네 소는 일없나요?》

《소는 걱정말아라. 놈들이 박새풀로 소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저씨는 경준이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독풀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며 사이가 나빠질번 했지? 그러면 자연히 어른들까지… 어떻게 되겠니? 하마트면 너도 오늘 나를 믿지 못할번 했지?》

경준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보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경준이를 바라보며 힘을 안겨주듯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원쑤놈들과 싸우자면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해요. 놈들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알았지요?》
세포위원장아저씨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경준이의 생각은 깊어졌다.
원쑤놈들은 얼마나 검질긴가.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는 물론 지난 시기 벼종자를 찾아낼 때도 얼마나 발악했던가. 그런데 지금 또다시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는게 아닌가.
경준이는 두주먹을 꽉 그러쥐였다.
(놈들을 우리 손으로 꼭 잡아내고야말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포1》호를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난 오늘 아저씨앞에서…)
경준이의 눈앞에는 태호의 장난기어린 모습과 늘 말없이 소꼴망태를 메고다니는 계성이의 모습이 엇갈려 지나갔다. 자민이와 철식이, 은옥이의 모습도 떠올랐다.
모두가 경각성이 높고 믿음이 가는 동무들이다. 그러나 눈앞에는 태호와 계성이의 랭랭한 눈길도 미쳐왔다. 서로 믿지 못하고있는 이들을 데리고 원쑤놈들과 싸워이길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만은 든든했다. 선생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또 세포위원장아저씨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안겨준다. …
경준이는 그길로 굴량골논에 있는 모판으로 향했다.
파란 벼모들이 가벼운 바람결에 살랑거리며 경준이를 마중하고있었다.

9. 태호와 계성이

경준이는 한손에 학습장을 말아쥔채 산기슭의 오솔길을 따라 총총히 걸어갔다.

계성이네 학습조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학습반장인 태호와 계성이의 생각은 딴데 가있는것 같았다.

어제 저녁에 늦어서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경준이한테 물었다.

《요즘 학습반이 잘되고있냐?》

《잘…》

《제대로 되는것 같지 않구나. 학습반에 모이는것이 단지 학습을 위한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부도 하고 조직생활도 하는 과정에 동무들을 더욱 믿게 되고 아껴주는 마음이 생기는거다. 그래야 단합된 힘으로 〈금포1〉호두 지킬수 있고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워이길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저 제 생각대로만 움직이니…》

경준이는 가슴이 뜨끔해났다.

어머니는 더 말을 꺼내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에 있은 일을 이야기했다.

경준이 어머니가 한배미의 논을 갈고 허리를 폈을 때였다.

마침 순영선생님이 위장망을 두른채 책꾸레미를 손에 들

고 걸어왔다. 어머니는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으며 황급히 마주 걸어갔다.

《경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는 인사를 나누며 선생님의 손을 잡고 버드나무밑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순영선생님은 해빛에 타서 검실해진 경준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경준이 어머니, 논발갈이를 하자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정들도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전 일없어요. 선생님이 수고가 더 많으실텐데, 문암마을 아이들까지 맡아보자니…》

경준이 어머니가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살피였다. 며칠째 몹시 축간것 같아서였다.

《저야 무슨 수골 하겠나요. 아이들때문에 마음이 안놓일뿐이지요.》

경준이 어머니가 머리를 끄덕이며 되뇌이듯 입을 열었다.

《그럴거예요. 농사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관심밖에 두었으니…》

경준이 어머니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으며 순영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여간 아니더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키워야 할텐데…》

아무런 기별도 없이 탕수골과 선바위골을 돌아치는 바람에 그애들을 찾고 기다리며 속이 한줌만 했던 일, 학습조는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길 좋아하는 태호

와 계성이, 경준이까지 그애들 놀음에 빠져들고있으니… 순영선생님은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경준이 어머니도 만나보고 세포위원장과 의논도 해보자고 찾아왔던것이다.

이때 가까이로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위장망을 두른채 걸어오고있었다.

《세포위원장동지!》

《여기들 계셨구만요.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역시…》

《아, 그래요?》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너그럽게 웃으며 그늘진 나무밑에 다가와서 앉았다.

《선생님, 그사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 희남이는 앓지 않습니까? 보고싶은데요.》

《잘 자랍니다. 그애는 요즘 권총을 가지고 노는것밖에 모른답니다.》

《하하, 이제 크면 인민군대가 될 차비를 하는군요.》

문암마을에 외할머니가 있어서 희남이는 거기서 자라고 있었다.

세포위원장은 너그럽게 웃고나서 정색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애로되는게 많을겁니다. 내 일만 일이라고 돌아가다나니 잘 도와드리지 못했군요.》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저는 일없습니다. 그런데…》

《총포성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아저씨는 잠시 건넌산 중턱에 무성하게 자라나고있는 참

나무숲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넋이 어려있는 〈금포1〉호벼종자를 찾아냈고 오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향마을에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벼를 정성담아 키우듯이 애국의 넋을 끗끗이 이어나가도록 애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소중한 마음을 묶어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김일성**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불같은 마음입니다. 그러자면 아이들을 믿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예, 정말 뜻깊은 말씀입니다.》

경준이 어머니도 순영선생님도 가슴이 뜨거워오름을 느끼며 건넌산 중턱의 푸른 숲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순영선생님이 낮으나 새힘이 넘쳐나는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저 역시 마음을 든든히 다잡고 아이들을 억세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난 경준이는 세포위원장아저씨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가슴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어머니도 선생님도 세포위원장아저씨도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마음쓰고계시는구나.)

경준이는 가슴을 넓게 펴고 금포마을을 둘러보았다.

선생님은 6.6절을 맞으며 학습을 더 잘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건성 흘리고말지 않았는가.

《알겠어요, 어머니.》

경준이는 걸음을 더욱 빨리했다.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건 선생님이 한 말과 다름이 없었다.

계성이네 집 가까이 다가가던 경준이는 주춤했다. 너무나 조용했기때문이였다.

(이애들이 다 어디 갔어?)

경준이는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발길을 돌렸다. 멀지 않은 밭최뚝에 그늘진 뽕나무들이 있으니 거기에 모여 공부하는거라고 생각하며 급히 걸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계성이네 학습조 아이들이 밭최뚝에서 낫을 들고 풀을 베고있는것이였다. 낫이 없는 애들은 종다래끼를 메고 먹음직한 소풀을 뜯고있었다.

경준이는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너희들 여기서 뭘하고있는거야?》

《왜 그래? 보구두 모르겠니.》

계성이가 범상하게 대꾸했다.

경준이는 어이가 없어 대답을 못했다.

마을의 논과 밭을 계성이네 소가 거의 맡아서 갈고있기때문에 집집들에서 여물을 끓여오거나 꼴을 베여다 먹이기도 했다. 그런데 학습시간에까지 이렇게 소꼴을 베다니?

《공부를 먼저 끝내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해가 쨍쨍 내리비칠텐데, 그래서…》

계성이가 중얼중얼했다.

경준이는 씩 웃으며 대꾸했다.

《네 말이 맞구나. 그럼 덥기 전에 빨리 꼴을 베구 공부를 꼭 해야 해. 알겠니?》

계성이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난 태호네 조에 가봐야겠다.》

발길을 돌리던 경준이는 미처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철식이가 다급히 걸어오고있었다. 걸어온다기보다 뛰여왔다.
《철식이구나. 왜 그러니?》
《〈자라목〉을 만나려구. 그애가 어데 있어?》
철식이가 여기저기서 풀을 베는 아이들의 등을 둘러보다가 다급히 소리쳤다.
《자라목》이란 지난해에 자민이가 금포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손바닥만한 자라를 보고 목을 움츠려뜨리는 바람에 붙은 별명이였다.
《저기 있구나.》
철식이는 다짜고짜로 자민이앞으로 다가가서 씩씩 숨을 몰아쉬며 다그어댔다.
《얘, 교과서 내놔라.》
《교과서? 〈지리〉말이니?》
《응, 빨리…》
《칫, 모레 주기로 하지 않았어.》
《빨리 내놔. 우리 학습조장이 막 성났어.》
《오늘은 안돼. 이틀동안 빌려보기루 한건데.》
자민이가 큰소리로 웨치다싶이 퉁을 주었다.
《너 정말이야?》
철식이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풀을 베던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와 둘러쌌다.
《너는 공부나 할게지 왜 남의 학습조에 와서 큰소리를 치는거야?》
계성이가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칫, 공부는 안하고 풀만 베면서 큰소린 왜 치니?》

철식이가 마주 대들었다.
《철식아, 무슨 일인데 그러니?》
경준이가 따져묻자 자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가 철식이한테 엿을 주고 교과서를 며칠만 보려구…》
《아니 그럼 엿을 얻어먹은 값으로 책을 빌려주었단 말이야?》
아이들이 와— 웃으며 철식이를 놀려주듯 바라보았다.
《안먹겠다는데 이애가 자꾸만 먹으라면서…》
철식이가 자민이를 흘끔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흥, 엿이 목안으로 넘어가던?》
계성이가 못마땅한 투로 한마디 했다.
《저절로 넘어갈게 뭐야. 비행기폭격때 불탄 집터에서 긁어모은 수수로 만든 엿이라는데 어떻게나 쓴지…》
철식이가 팔굽으로 입언저리를 닦아내는 시늉을 하였다.
경준이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전쟁탓에 교과서가 부족해서 날자별로 돌려보도록 하다나니 이런 일이 생긴것이다.
철식이는 오늘부터 은옥이에게 교과서를 넘겨주게 되였는데 자민이한테 주는 바람에 은옥이의 독촉을 받다가 조장인 태호한테까지 들키게 되였다. 그래서 태호가 당장 교과서를 찾아오라고 철식이를 떠밀어보낸것이였다.
《야! 태호, 너무하다야. 교과서를 빌려줬다구 그러면 되니?》
《태호네 학습조엔 아예 얼씬도 하지 말자.》
계성이가 눈살을 찌프리며 씨근덕거리였다.
《알겠어. 못된 장난만 돌아다니면서 하는거…》

자민이가 계성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윽윽댔다. 철식이는 교과서를 받아들고 어느새 꽁무니를 뺐다.

경준이는 웃으며 계성이한테로 다가갔다.

《계성아, 너까지 그러면 되겠니?》

《흥, 태호 그앤 너무해. 언제보나…》

계성이네 조 아이들은 흥이 깨져서 풀들을 걷어가지고 돌아갔다.

경준이는 되돌아서서 태호네 집쪽을 향해 다급하게 걸어갔다. 별치 않은 문제로 아이들사이가 버그러질 우려를 느꼈던것이다.

문입구에는 《제1학습반실》이라고 나무판대기에 쓴 커다란 간판이 걸려있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한쪽벽에는 모자걸개가 걸려있고 그옆에 회람벽보와 《소년신문》 그리고 몇달전에 온 《소년단》잡지가 서너권 걸려있었다.

아무리 방안을 둘러봐야 침침한 방바닥에 학습장과 꽁다리연필, 벗어놓은 적삼이 널려있을뿐이였다.

(이애들은 또 어디 갔어?)

경준이는 잠시 멈춰선채 귀를 기울이였다.

집뒤 밤나무밑에서 와작 떠드는 소리가 났다.

슬며시 뒤돌아 올라가보니 태호가 성수가 나서 열을 올리고있었다.

《자, 봐라. 격발기를 뒤로 당기면 격철이 제껴진단 말이야.》

태호가 아이들에게 총에 대해 한창 설명을 하는중이였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라도 하는듯 열중해있었다.

(아니, 저애가 총을?)
경준이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태호의 손에 총이 들려있을줄을 생각못했던것이다.
그제야 경준이의 머리에 핑끗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탕수골에 오르던 날 집에 볼 일이 있다고 한거며 인민군대한테 미국놈들이 녹아난 탕수골골짜기에 가지 못해 하던 일…
(저것때문이였구나.)
경준이는 조용히 아이들곁으로 다가갔다.
태호는 아버지가 인민군대에서 위훈을 세우고있으니 자기도 커서 인민군대에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총소리를 자주 하던 애였다.
허지만 경준이는 제멋대로 위험한 장난을 하는 태호를 그대로 놔두고싶지 않았다.
어느새 경준이를 띄여본 태호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다.
《경준아, 어서 와. 우린 지금 〈병기상학〉을 하는 중이야.》
아이들이 키드득거렸다.
(뭐, 《병기상학》? 잘은 엮어댄다.)
경준이는 입이 쓰거워 온곱지 않은 눈길로 태호를 치떠보았다.
한 꼬마가 태호에게 졸라댔다.
《형, 빨리 총쏘는거 보여달라.》
태호가 꽥 소리쳤다.
《입다물어. 내가 언제 총을 쏘겠다고 했니? 총쏘는 법을 배워주겠다고 했지.》
그러면서 슬쩍 눈짓을 하는것이였다.
경준이는 못본척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들 학습한걸 좀 보자. 어떻게 해놓구 〈병기상학〉을 벌려놨는지…》

아이들은 흠칫 자라목이 되였다. 몇몇 애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하는 자세였다.

경준이는 어이없어 한숨을 후— 내쉬였다.

정말 야단이였다. 계성이는 그애대로, 태호는 또 태호대로 이런 판을 벌려놓는것이 아닌가. 따져보면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는 못된 버릇때문이였다. 그걸 언제가면 고치겠는지…

아이들은 말없이 학습실로 내려갔다.

경준이는 격해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타이르듯 말했다.

《태호야, 이게 뭐니? 영 규률이 없구나.》

《왜 그래? 우리가 뭐 허튼 놀음을 했니?》

《허튼 놀음인가 아닌가가 문제냐? 소년단원답지 못하니까 그러지. 명남인 왜 안보이니?》

《그앤 내가 잠간 심부름을 보냈어.》

《공부는 안시키구?》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였다.

아이들속에서 명남이를 두고 태호의 그림자라는 말이 돌아갔다. 그러나 그애는 끔만해했다.

그림자라면 어떻고 련락병이라면 어떻담? 태호형이 얼마나 좋다구…

명남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날은 마을에서 조직한 학습반을 마친 후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미국놈쌕쌔기편대가 소리없이 달려들었다. 모두 흩어져 큰길옆의 숲속으로 달려

갔다. 흙먼지가 해를 가리워 어디가 어딘지 통 분간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사라진 후였다. 아이들은 하나둘 숲속에서 기여나와 온몸을 툭툭 털었다.

입안에서 질근거리는 흙먼지를 내뱉으며 아이들을 둘러보던 태호의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명남이가 안보이누나.》

《명남이?》

《정말.》

《명남아ㅡ》

아이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한동안 소리쳐부르는데 태호가 흙속에 반쯤 묻힌 그애를 발견하고 끌어냈다.

명남이는 한절반 흙속에 묻혔던것처럼 정신도 한절반 나간 상태였다.

이때부터 명남이는 태호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무척 가까이했다.

태호의 책보도 들어다주고 가끔 심부름도 해주었다. 그래서 오늘 또 심부름을 보낸것이였다.

태호는 일부러 이마를 찡그렸다.

《넌 나만 보면 다그어대는구나.》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였다. 쩍하면 명남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것을 례상사로 여기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은 또 제멋대로 《병기상학》을 벌려놓은게 아닌가.

경준이는 안타까왔다. 선생님이나 어머니, 세포위원장아저씨도 우리들때문에 얼마나 마음쓰고계시는가. 학습을 하면서 어머니들의 바쁜 일손도 돕고 반동놈들도 잡아내야 할텐데 태호는 제멋대로 행동하고있으니…

총을 바라보던 경준이의 머리속에는 금포강기슭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던 날 재미있는 놀음을 못하게 되였다고 투덜대며 앞으로 알게 될것이라고 하던 태호의 말이 언뜻 떠올랐다. 그게 바로 총을 두고 한 말같아 경준이는 정색해서 물었다.

《너 그 총은 어데서 났니?》

《어데서 나긴. 〈치안대〉놈들이 둥지를 틀었던 불탄 집터에서 주어온건데…》

《그럼 여태 네가 끼고있었니?》

《새것처럼 손질하자니 별수가 있니? 반동놈을 잡아야 할건데.》

태호는 조금도 숙어들 기세가 아니였다. 이젠 숨길 필요도 없기때문이였다.

《난 네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빨리 자위대장아저씨한테 가져다바쳐라.》

경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어려있었다.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이제 후회할 때가 있을거다.》

태호는 어깨를 떨구고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후회를 한다구?)

경준이는 태호의 등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쪽 산너머에서 쿠궁—쿵— 포소리가 둔중하게 울려왔다.

10. 창문으로 날아든 쪽지

계성이는 여느날보다 일찍 잠에서 깨여났다.

모내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논에 써레를 쳐야 하기때문이였다. 갈아엎어놓은 흙을 높고낮은데가 없이 수평을 잡아 고루 펴야 모살이가 잘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물먹은 써레채를 다룬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더우기 써레치기를 처음 해보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소를 잘 몰아야 한다는걸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있는 계성이였다.

계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보니 덧창이 약간 열려있었다.

(밤에 창문을 걸지 못했구나.)

그가 머리를 기웃하고 뙤창을 바로닫고 물러나는데 창턱에서 무슨 종이쪽지가 발끝에 떨어졌다.

(이건 뭐야?)

무심결에 그것을 집어 들여다보던 계성이는 몸을 흠칫했다. 잘못 보았는가싶어 글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었다. 계성이는 그만에야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오한이라도 만난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계성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였다가 후— 내쉬며 다시한번 쪽지를 눈여겨보았다.

《령감, 치안대에 나무를 해가던 그때를 잊지 않았겠지.

정신을 차리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 그렇지 않았다간 령감두, 애새끼두, 소두 명줄이 끊어진다는걸 알라.
주인으로부터》
계성이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방안이 연자방아처럼 빙빙 돌아가는것 같았다.
계성이는 종이장을 얼른 접어서 웃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여왔다.
계성이는 멍하니 서있다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부엌으로 나갔다.
《오늘도 논에 나가느냐?》
아버지가 한손으로 허리를 짚고 들어서며 물었다.
《예. 써… 써레질을 한대요.》
《뭘 한다구?》
아버지가 의아쩍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써레질이요.》
《음, 내 몸이 이 모양이니…》
《아버진 별말씀을 다…》
계성이는 밥상앞에 다가앉아 건성 수저를 손에 쥐였으나 밥술을 뜰수가 없었다. 정신은 밥그릇이 아니라 방금 본 글줄에 가있었다.
《아니 너 웬일이냐?》
물사발을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계성이는 슬그머니 수저를 상우에 놓고 일어나서 토방으로 나갔다.
《얘, 밥을 안먹고 어델 가냐?》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이따 먹겠어요.》

계성이는 외양간에 들어가서 소고삐를 풀어 손에 쥐고 나왔다. 누렁이가 대가리를 주억거리자 쩔렁쩔렁 방울소리가 울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소리가 문밖으로 새여나왔다.

《저 녀석이 왜 저런대?》

《낸들 알겠수? 무슨 일인지…》

아직 해뜨기 전이여서 논벌은 푸름푸름했다.

계성이는 허둥지둥 자기도모르게 걸음을 옮겼다. 생각할수록 속이 상했다.

(주인? 민덕보놈이야 뒈지지 않았는가.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마을에서는 이틀후에 첫 모를 낸다고 하였다. 논배미들에 물을 대놓았으니 써레질만 하면 모를 꽂을수 있다.

이제부터 소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누렁이를 어쩌겠다구? 또 아버지도 나도?…)

경준이와 태호가 모판에 기여들었던 놈들의 흔적을 찾아내겠다고 벼르더니 반동놈들이 멀리 있는게 아니였다.

논벌에 나가니 벌써 경준이 어머니가 치마를 걷어올려 허리에 맨 다음 위장망을 두르며 써레질차비를 하고있었다.

써레를 친다는 말을 듣고 나왔는지 경준이와 태호가 마주 뛰여오며 반색을 했다.

《응, 너희들도 왔구나.》

계성이는 애써 웃음을 지었으나 눈길은 꼿꼿해있었다.

그애들을 보기만 해도 소가 독풀을 먹고 쓰러졌던 광경이 잊혀지지 않았던것이다. 더우기 이번에 원쑤놈들이 협박장까지 들이민걸 저애들이 안다면 날보구 뭐랄가?

계성이는 가슴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래일이면 우리 마을 논배미들에 〈금포1〉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겠구나. 그렇지?》

싱글싱글 웃으며 계성이의 얼굴을 쳐다보던 경준이가 웃음을 거두며 성급하게 물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

계성이는 머리를 저으며 누렁소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소는 논뚝에 돋아난 풀을 걸탐스럽게 뜯어먹고있었다.

계성이는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마치도 나무꼬챙이로 마구 쑤셔대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할가? 아버지한테두 말을 못했는데 경준이한테는?)

너무도 급작스레 당한 일이여서 서뿔리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반동놈들이 이제 또 무슨짓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고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고있기는 너무도 괴로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한참이나 제 생각에 빠져있던 계성이가 흠칫 놀라며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오늘아침에 소한테 여물을 미처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이제 소를 끌고 다시 집으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굶은 소를 물탕논에 들여보낼수도 없었다.

당황해하던 계성이는 풀이 가득 돋은 논머리의 풀판

으로 소를 끌고갔다. 소는 부지런히 풀을 뜯으며 새김질을 했다.

《어이구, 계성이가 정말 수고한다.》

태호 어머니가 소곁으로 다가오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대견한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경준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젠 돌아가거라. 우리가 어련히 하지 않으리. …》

《어서들 그렇게 해라.》

태호 어머니가 소고삐를 잡으려 하자 계성이는 바쁜 소리를 했다.

《가만 계셔요. 소가 아직…》

《아니? 어찌된 일이냐?》

이때 계성이 어머니가 여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함지를 이고 걸어왔다.

《원, 이런…》

경준이 어머니와 태호 어머니가 얼른 함지를 받아서 내려놓았다. 여물에서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기였다.

계성이는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경준이와 태호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마주보았다.

계성이는 말없이 돌아서서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계성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준이가 슬며시 계성이 어머니곁으로 다가갔다.

《일은 무슨…》

계성이 어머니는 뜨직하게 대꾸하고는 경준이와 태호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계성이는 걸음을 어데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가

면 아버지도 영문을 몰라할것이다. 그렇다고 쪽지사연을 말해드릴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얼마나 놀라와하실가. 그렇지 않아도 상처때문에 고생하고있는 아버지인데 그걸 알면 견디여내기나 할가.

계성이는 한숨을 내쉬며 강뚝기슭의 버드나무밑에 앉았다.

넓은 폭으로 유유히 흐르던 강물이 이곳에 와서 폭이 좁아지면서 물살이 소리치며 흐르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센 물살에 강뚝이 패여나갈수 있다고 하면서 자주 뚝을 쌓고 손질을 하군 했다.

갖가지 풀들이 앞을 다투며 자라고있는 강뚝과 논두렁우에 노란색, 흰색의 민들레와 분홍색 메꽃이 활짝 피였다. 금포강의 푸른 물은 해빛을 받아 번쩍이였고 파아란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며 날아예고있었다.

부러운 눈길로 종달새를 바라보던 계성이는 등뒤에서 인기척이 나자 고개를 돌렸다.

경준이가 가까이 걸어오고있었다.

태호네 논에서는 위장을 두른 누렁소가 써레를 치고있는데 소고삐는 태호가 잡고있었다.

경준이가 계성이의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하게 옆에 앉았다.

《계성아, 너 아침밥을 못먹었더구나. 자, 너의 어머니가 싸가지고오신거야.》

계성이는 경준이가 무릎앞에 놓아주는 밥보자기를 보자 눈굽이 화끈했다.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 어서 밥을 먹어라. 힘이 나야 농사일도 잘 도

울수 있고 반동놈들과도 싸워서 이길수 있어.》
《반동?》
계성이는 어깨를 흠칫했다.
《소식을 못들었니? 요즘 다른 마을에서도 반동놈들이 모내기를 방해하려고 날치고있다는거야.》
계성이는 속이 뜨끔해났다.
《우리도 경각성을 바싹 높여야 해.》
경준이는 주위를 휘둘러보더니 계성이의 귀에 입을 바투대고 소곤소곤했다.
《먼저번에 산에 올라갔다가 선바위골에서 수상한 놈을 발견했어.》
《그래서?!》
계성이의 가슴은 널뛰듯 했다.
《그놈이 모판에 납작모자를 떨군 놈일지도 몰라. 아직은 너만 알고있어라. 비밀이야. 알겠지?》
계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를 믿고 비밀까지 알려주는 경준이가 고맙고 이런 동무와 함께라면 힘을 낼수 있다는 생각이 은근히 들었다.
《이젠 어서 밥먹어라.》
경준이가 재촉하자 계성이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응.》
보자기를 풀자 밥그릇과 함께 삶은 닭알이 나왔다.
《너의 어머닌 참 좋은분이야. 꼭 우리 어머니같구나.》
《어머니들은 다 그런것 같애. 자, 너두 하나 먹어라.》
계성이가 닭알을 집어주자 경준이는 싱긋 웃으며 받았다.
아침밥을 먹고나자 경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니?》

계성이는 입을 다문채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알만해. 네가 소를 돌보느라고 지친 모양이구나. 빨리 집에 가서 좀 쉬라.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게. 여긴 태호랑 나랑 있을게.》

《알겠어.》

계성이는 고개를 수긋한채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 돌아온 계성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손에 고삐가 없으니 무척 허전했다.

문득 머리속에 창문으로 날아든 쪽지가 떠올랐다.

(정신을 차리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

계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집안팎을 둘러보았다.

반동놈이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것만 같았다. 두눈을 비비고 둘러봐야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너무 놀랬구나.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가?)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해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소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금포1》호를 찾아오던 날 민덕보놈의 칼에 맞으면서도 그놈과 맞서싸우지 않았던가.

아버지는 외우고있었다.

《내가 하두 청맹과니가 되다보니 큰 죄를 지었지. 그래두 사람들은 날 리해해주고 제 사람으로 믿어주는데 이럴 때 모른척 하면 되겠느냐?》

계성이는 《금포1》호때문에 걱정하고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리해되였다.

(아버지라면 쪽지같은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거야. 절

대로 굽어들지 않을거야.)

계성이는 자기도모르게 아버지앞으로 다가갔다.

《웬일이냐?》

《아버지!》

계성이는 꽉 쥔 두주먹을 우들우들 떨다가 적삼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원쑤놈이!》

《뭐라구?》

아버지가 허겁지겁 다가와서 꾸겨진 쪽지를 받아쥐고 눈더듬을 하며 물었다.

《뭐라고 쓴거냐?》

《글쎄 오늘새벽에 창문으로…》

계성이는 떠듬떠듬 글줄을 읽었다.

《그게… 그게 사실이겠지?》

쪽지를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온몸은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였다. 이윽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뜨락을 쩡 울리였다.

《천하에 죽일 놈. 주인이라고? 분명 민덕보의 아들놈이구나. …》

《아들놈이요?》

아버지는 지팽이를 내던지며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난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계성이는 자기도모르게 큰소리로 웨치며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래, 그래. 무서울게 뭐가 있느냐?》

아버지는 증오심이 번뜩이는 눈길로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다가 계성이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논에 나가봐라. 모를 빨리 내야 할게 아니냐?》
《알겠어요, 아버지. …》
계성이는 자기도모르게 뜨거워나는 눈굽을 손등으로 누르며 논판을 향해 다급히 걸어갔다.
멀지 않은 큰길로 짐짝들을 가득 실은 인민군대자동차들이 먼지를 말아올리며 전선을 향해 달려가고있었다.
여기저기 논벌에서 일손을 다그치던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바래우고있었다.
논에서는 경준이 어머니가 써레를 치는데 앞에서 태호가 소고삐를 잡아당기며 낑낑거리고있었다. 웬일인지 소는 떡 버티고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놈의 소 혼나봐야 알겠니?》
태호가 나무회초리로 소엉덩짝을 냅다 갈기자 소가 놀라서 껑충 뛰였다.
《아니, 이런? 와—와—》
경준이 어머니가 써레채를 쥔채 소리치며 허겁지겁 앞으로 끌려갔다.
태호가 다급해나서 따라가며 소를 또한번 때렸다.
《야! 너 왜 소를 때리는거야?》
계성이가 등뒤에서 급한 소리를 지르며 물탕논에 뛰여들어가서 소고삐를 잡아챘다.
《쳇, 소가 말을 안듣는데 별수 있어?》
《그렇다고 때리면 되니? 이게 어떤 소인지 넌 모르니?》
《안다, 다 알아.》
태호가 소고삐를 홱 내던졌다. 계성이의 바지저고리는 물론 얼굴에까지 흙탕물이 튀였다.
《뭐? 네가 뭘 안다구 그래?》

계성이는 얼굴에 튀여난 흙탕물을 씻을념도 하지 않고 태호를 쏘아보았다.

《계성아, 안됐구나. 태호가 서툴게 소를 몰다보니 그렇게 된걸 네가 리해해주면 되지 않니?》

경준이 어머니가 웃으며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서 계성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별안간 태호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넌 아마 인민군대에 나가면 총을 메구 달구지나 몰거야.》

《뭐야? 달구지나 몬다구?》

계성이가 발끈해서 소리치며 돌아설 때 경준이가 풀단을 지고오다가 벗어던지고 논판에 뛰여들었다.

계성이의 두눈에서 물기가 고여오르고있었다.

《계성아, 너 왜 이러니?》

경준이는 계성이를 와락 껴안으며 소리쳤다.

계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태호도 방금 있은 일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였다.

경준이는 태호와 계성이 사이가 자꾸만 벌어져가는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래일부터 첫 모를 내야 할텐데 동무들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11. 첫 모를 내는 날

마을에서는 며칠전부터 모내기준비를 하느라고 여간만 분주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첫 모를 내는 날만은 오전부터 모내기장에 나가서 어른들의 일손을 돕자고 토론했다.

그처럼 고대하던 모내기여서인지 어른들은 아침일찍부터 논판으로 모여들었다.

흥분과 기쁨으로 하여 마치 전투장에 나선 사람들같았다.

《태호 어머니가 오늘은 한상 잘 차려야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겠지요.》

논판에 들어선 사람들이 흥성거리며 하는 말이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을에서 첫 모를 내는 날은 큰 명절날같았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쓴 8메터가량이나 되는 흰바탕천에 붉은색 천으로 톱날처럼 선을 두른 기발이 앞에서 펄펄 날리고 그뒤에서 농군들이 풍악을 울리며 흥이 나서 논판으로 몰려갔다. 풍악중에서도 꽹과리, 새납, 징, 장고소리가 요란했다. 마을의 꼬마들까지 흥이 나서 한무리가 되여 따라가며 구경했다.

논머리에서 농기가 펄펄 날리고 농군들은 모를 내다가 쉴참이면 논에서 나와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춤을 추

다가 다시 논판에 뛰여들어 일손을 다그치군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점심시간이면 주인집은 물론 함께 모를 내고있는 사람네 집들에서도 어머니들이 구수한 팥밥에 도라지무침이며 더덕, 고사리, 두릅을 무쳐서 푸짐한 두부국과 콩나물국을 내왔다. 그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것은 크지 않은 방구리에서 찰랑찰랑 넘쳐나는 막걸리였다. 아버지들은 그것을 한뚝배기씩 마시고는 《어험!》 하고 입언저리를 쓰다듬으며 흡족한 얼굴로 담배를 피워물군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첫 모내기는 그와 판이했다.

논써레를 하는 소는 물론 모춤을 나르거나 꽂고있는 어른, 아이들까지 온몸에 나무잎과 풀로 위장을 하였다.

때없이 달려드는 적비행기의 습격을 피하는데서 소가 제일 걱정되였다.

항공신호를 받고 소가 재빨리 대피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이른새벽과 한낮이 지나 저물무렵의 시간을 리용해서 써레를 치고 달구지로 모춤을 나르기도 했다.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항공감시초소를 큰길옆에 새로 내오고 나무가지에 누런 포탄깍지를 매달아놓았다.

멀리서 비행기가 나타나거나 이상한 발동기소리만 들려도 망치로 그것을 두드려 알리게 되여있었다.

어머니들과 마을의 민청원누나들은 줄을 늘이거나 눈금이 새겨진 자대를 대고 손이 보이지 않게 잽싼 솜씨로 모를 꽂기 시작하였다. 몇명 안되는 나이많은 남자들과 아이들은 모춤운반을 맡았다.

명남이가 논판을 바라보며 시를 읊듯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금포1〉호야, 너희들은 오늘부터 넓은 논판에 뿌리를 내리게 되였구나. 가을이 오면 이삭이 패고 열매들이 주렁지겠지!》

《왜 벼모들뿐이니? 우리도 같지 뭐. …》

은옥이가 옆에서 손벽을 짝짝치며 좋아했다.

《우리도?》

옆을 지나가던 태호가 멈춰서며 눈이 둥그래졌다.

《우리도 벼들과 함께 자라고있지 않니. 가을에 가선 벼알처럼 딴딴히 여물어야 하거던.》

《야, 경준이 말이 신통하구나.》

아이들은 더욱 성수가 나서 지게에다 모춤을 한짐씩 지고 뛰다싶이 걸어갔다. 지게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논두렁이 질벅질벅했다. 자칫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웠다.

태호가 뒤뚝뒤뚝 걸어가다가 한발이 미끄러질번 하는 바람에 지게우의 모춤이 툴렁툴렁 보도랑물에 떨어졌다. 태호는 그것도 모르고 지게를 한번 춰올리고는 그냥 걸어갔다.

(아니, 저 모춤이…)

경준이는 얼른 지게를 벗어 작시미로 받쳐놓고 보도랑에 들어섰다.

그때였다.

《항공—》

다급한 웨침소리와 함께 땡—땡—땡— 포탄깍지를 두드리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모를 꽂던 사람들이 일시에 흩어져 논뚝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경준이는 본능적으로 물에서 뛰여나왔다. 그러나 어데로 가야 할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점점 가까와오는 비행기소리, 다급하게 포탄깍지를 두드리는 소리는 어서 빨리 피하라고 재촉하고있었다.

그러나 보도랑에 떠내려가는 벼모들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게 어떤 벼모들인가. 《금포1》호를 위해 아버지와 이전 세포위원장아저씨는 목숨까지 바치였다. 그뿐인가. 반동놈들은 모판까지 마구 짓밟으며 날뛰지 않았는가.

경준이는 주저없이 다시 보도랑에 뛰여들었다. 떠내려가는 벼모춤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따라가며 건져냈다.

비행기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경준아, 빨리 나오라. 빨리ㅡ》

계성이와 태호가 뚝우로 머리를 내밀고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비행기가 떴는데 어쩌자구 그래?》

경준이는 마지막 모춤까지 건져들고야 대피장소로 달려갔다.

태호가 경준이의 손에 들린 모춤을 바라보며 어이없어했다.

《모춤 몇개가 뭐라구.》

경준이가 두눈을 크게 떴다.

《그것두 말이라구 하니?》

계성이가 얼른 끼여들었다.

《태호야, 넌 틀렸어. …》

《뭐? 내가?》

《이 벼모들이 어떤건지 너두 잘 알지 않니.》

계성이가 격해진 음성으로 쏘아주듯 말했다.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태호는 슬며시 경준이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원쑤놈들이 모판을 습격하고 도망친지도 여러날이 되였으나 태호는 그런걸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다.
누구인가 소리쳤다.
《자, 이젠 그만 나가자.》
그새 적기들은 마을상공을 빙 돌며 눈먼 기총사격을 해대고는 산너머로 사라졌다.
모내기가 다시 시작되였다. 아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모춤나르기를 계속했다. 큰애들과 어른들이 지게로 날라오면 작은애들은 그것을 량쪽손에 갈라들고 논배미로 흩어져갔다.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 가끔 웃음판이 터져올랐다. 명남이가 모춤을 던진다는것이 태호의 뒤통수를 맞혀 사람들이 한참이나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넓은 벌판은 시간이 다르게 푸르러가고있었다.
이때 누구인가 큰길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반동놈을 잡았대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방금 자위대장이 끌고갔어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흥분해서 소리쳤다. 금시 달려가서 농쟁기로 쳐죽일 기세였다.
《자!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 합시다. 이제 마을사람들앞에서 심판을 하게 될겁니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서야 웅웅하며 끓던 논판은 조용해졌다. 그대신 일솜씨는 더욱 달라졌다.
경준이의 가슴은 쿵쿵 뛰였다.
(드디여 잡아냈구나.)
모춤을 한짐 지고 뒤늦게 나타난 태호가 경준이앞으

로 뛰여왔다.

《경준아, 빨리 가보지 않겠니?》

《자위대아저씨들이 있는데 덤비지 말어. 우리야 일을 끝내야 하지 않겠니?》

《엥이 참, 우린 그동안에 뭘하고있었어?》

태호는 입을 다문채 부압산쪽을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첫 모를 내기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데 벌써 강뚝켠의 논들에 모를 다 내고 지금은 저쪽 수로곁에 있는 논에서 모를 내고있었다.

하루라도 앞당겨야 그만큼 소출을 더 낼수 있기때문이였다. 그야말로 논에서는 긴장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에 몇마리 안되는 소들도 같았다.

계성이는 오전에 서둘러 학습을 끝내고 곧장 논으로 달려갔다. 태호도 벌써 와있었다.

계성이네 소는 논써레치기를 끝내고 강뚝안쪽의 버드나무밑에 비스듬히 주저앉아 풀을 먹고있었다.

청초한 풀단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계성이는 급히 다가가서 소를 둘러보다가 잔등에 모여든 파리들을 쫓아버렸다.

이때 명남이가 뛰여오며 소리쳤다.

《계성아, 선생님이 너의 집으로 가셨어.》

《우리 집에? 문암마을에 가셨다고 했는데…》

산기슭의 집쪽을 바라보던 계성이는 얼굴을 돌렸다.

소는 걸탐스럽게 풀을 먹으며 꼬리를 휘젓고있었다. 구리방울이 쟁쟁 울렸다.

경준이 어머니가 계성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가봐라. 여기 소는 태호가 있지 않니?》
《태호요?》
계성이는 태호를 돌아보다가 머리를 돌려버렸다.
《빨리 가봐야 하지 않니?》
《차라리 네가 소를 돌보지 않겠어?》
《엉? 내가…》
명남이가 눈이 둥그래지며 뒤를 돌아보았다. 태호가 소 곁으로 슬렁슬렁 걸어오고있었다.
명남이가 재촉하듯 말했다.
《태호형이 소를 돌봐야 하지 않나?》
《내가 있는데 별걱정 다 한다.》
태호의 말에 계성이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흥, 소를 돌보겠다구?)
《내가 볼게.》
마지못해 소고삐를 태호에게 넘겨준 계성이는 논뚝을 가로질러 집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다.
집뜨락에 들어서는데 마침 아버지가 지팽이를 짚고 서성대다가 의아해했다.
《선생님을 못봤니?》
《지금 오는 길이예요.》
《음, 내 상처가 걱정된다면서 약을 구해가지고 오셨댔다. 그리구 네가 소를 돌보느라고 힘겨워할거라고 하시더라. 논으로 간다고 했는데…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지. …》
《알겠어요, 아버지.》
계성이는 다시 논판으로 나가려고 급히 돌아서서 걸음을 다그쳤다.

12. 헛 방

(어서 빨리 총을 쏴보았으면…)

오늘아침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경준이한테서 며칠전에 체포된 놈이 바로 모판을 습격했던, 자기들이 오솔길에서 스쳐보냈던 놈이라는 말을 듣고 참을수가 없었다.

그놈이 계성이네 소한테 독풀까지 먹이려고 했다니 원쑤놈들이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수 없었다.

뭐니뭐니해도 그럴 때는 총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있었다.

(총만 있으면야…)

태호는 강뚝에 우두커니 서서 풀대 하나를 뽑아 뱅글뱅글 돌리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계성이네 누렁소가 강뚝에서 한가로이 풀을 먹으며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큰 도로쪽옆에서 모를 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계성이네 소를 이윽히 바라보던 태호는 《일없겠지뭐.》 하고 혼자소리로 중얼대며 누구를 기다리듯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자기에게 소를 맡기고 집으로 간 계성이는 좀처럼 올줄 몰랐다.

《형, 무슨 일이야?》

명남이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태호의 속심을 알고있기나 한듯이 처녀애처럼 해사한 얼굴에 새물새물 웃음을 짓고있었다.

태호는 한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애, 물당치기에 갔다오자.》

《거긴 왜?》

명남이의 눈이 올롱해졌다.

《글쎄 따라오기나 하라니까.》

태호는 앞에 서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기 시작했다.

《하여간 태호형은…》

계성이네 소가 미심쩍은듯 뒤를 돌아보던 명남이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우리더러 소를 봐달라고 한건 어떻게 하니?》

《소는 이제부터 휴식을 해야 한단 말이야. 누가 끌어갈가봐 걱정이니?》

명남이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태호의 뒤를 따라섰다. 명남이와 함께 걷던 태호가 불현듯 두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에참, 더 멋지게 해제낄수 있었던걸 못했다니까. 사실말이지 반동놈을 가려본다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

태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납작모자》를 발견한 다음부터 자기가 그놈을 잡으려고 했다는둥, 그놈을 잡는데 자기의 공로가 컸다는둥 거짓말까지 덧붙여가며 그럴듯하게 엮어댔다.

《역시 태호형이 다르다니까. 헌데 그런 말을 내놓고해도 일없나. 자위대장아저씨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태호가 슬쩍 시치미를 뗐다.

《내가 뭐라고 했니? 앞으로 그렇게 할수도 있다는거지. …》

《누가 모를줄 알구? 허튼소리를 하면서. 짱포쟁이…》

그러나 태호는 그런것쯤은 귀밖으로 흘려버린다는듯 일부러 어른처럼 목소리를 굵게 냈다.

《빨리 가서 사격을 해봐야지.》

《사격?》

명남이는 무슨 소리냐는듯 두눈을 말똥거리다가 얼떨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불탄 총가목을 얻었다더니 그 총으루?》

태호는 눈을 디그르르 굴렸다.

《챠, 이런… 그런걸게 뭐야, 진짜총을 쏴봐야지. 그래야 반동놈들을 잡아낼게 아니야.》

《그럼 진짜총이란거야?》

《그렇지 않구. 반동놈들이 〈금포1〉호를 얼마나 노리고있는지 너두 잘 알지? 그놈들을 다 잡자면 뭐니뭐니해두 총을 잘 쏴야 한단 말이야.》

《알만해. 그런데 생활반책임자한테 말하지 않아도 일없을가?》

《뭐, 경준이한테?》

《응, 경준형이 말하지 않았니. 마음대로 아무데나 나다니지 말라구. 그리고 총두…》

《에참, 그건 먼곳이나 깊은 산속에 마구 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넌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미타한 눈길로 태호의 등뒤를 바라보던 명남이는 진짜총을 쏜다는 바람에 호기심이 바싹 동해 입을 다물었다.

태호와 명남이는 물당치기로 오르기 시작했다.

부압산의 중턱에 자리잡고있는 물당치기에는 바위틈에서 작은 실개천과 맞먹을만큼 많은 량의 샘물이 사시장철 흘러나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유처럼 파낸 통나무 수채통을 댓길쯤 되는 낭떠러지에 설치해놓았다.

무더운 여름철에 덕수를 맞으며 미역을 감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마을조무래기들은 물론 먼 지방의 어른들까지도 덕수를 맞으러 오군 했다.

처음 덕수를 맞을 때는 물이 너무 차거워서 덜덜 떨다가 점차 익숙되면 차거운줄을 몰랐다. 이렇게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덕수를 맞기 좋아했다.

샘터옆에 크지 않은 절간이 있고 그 주위에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풍치를 돋구고있어서 사람들은 쌀을 가지고와서 밥을 지어먹으며 하루, 이틀 묵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말았다.

절간에 중이 한명 있었는데 비행기폭격에 잘못되고 절간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되여버렸다.

그렇지만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마을사람들에게 빈 절간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쳐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었다.

절간마당에 이른 태호는 어느새 뒤고방으로 달려가서 보병총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야, 정말 진짜총이 있었구나.》

명남이는 총을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이 총구와 방아쇠를 만져보았다.

《내가 수리한 총이야.》

태호가 총을 매만지며 어깨를 으쓱했다. 불에 탔던것을

닦아내고 총가목도 새로 깎아맞추었는데 제법이였다.

《정말 총알이 나가긴 하니?》

명남이가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오늘 시험삼아 쏴보자는거야. 여기 물당치기밖에 총쏠만한 장소가 어디 있니?》

《그러구보니 반동놈보다두 총을 쏴보구싶어 그랬구나.》

명남이는 히죽이 웃으며 태호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런데 총알이 있긴 하니?》

《딱 한알 있어.》

태호의 주머니에서 길죽한 총알이 하나 나왔다.

《형한텐 별게 다 있구나. 이거 다른 애들도 알고있니?》

《아니, 경준이가 알면 큰일났다구 펄펄 뛸거야.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제꺽 딴데 가서 말을 옮길거구. 그저 네가 제일…》

《피, 내가 믿음직하다는거겠지?》

명남이는 싫지 않은 눈길로 태호를 쳐다보았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태호가 눈을 끔쩍했다.

명남이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책보를 토방우에 놓고나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느티나무앞으로 뿌르르 달려갔다.

태호가 눈이 퀭해서 바라보는데 명남이는 어느새 느티나무에다 밤알만한 활석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그게 바로 과녁이라는것이였다. 히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태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까이에 비스듬히 누운 굵은 나무가 눈에 띄였다.

마침이였다.

태호는 총을 그우에 올려놓은 다음 움직이지 않게 칡노끈으로 몇군데나 단단히 비끄러매놓았다.

《그건 왜 그렇게 하나?》

명남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눈을 끔벅거렸다.

《잠자코 구경이나 해.》

태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총구가 과녁을 제대로 겨누었는가를 살피고나서 주머니에서 락하산줄토막을 꺼내 방아쇠에 매놓았다.

총탄을 재워넣은 태호는 명남이에게 눈짓을 하고나서 몇발자국 뒤로 물러나 슬며시 줄을 잡아당겼다.

《땅—》

총구에서 연기가 풀썩 일었다. 총소리는 야무지게 골안을 울렸다.

《야!》

태호와 명남이는 환성을 지르며 느티나무앞으로 뛰여갔다. 그런데 느티나무의 동그라미는 그대로 있었다.

《어떻게 된거야?》

《총알이 물먹으러 갔는가?》

두릿거리던 태호가 낭떠러지쪽으로 뛰여가다가 굳어진듯 서버렸다.

느티나무와는 어방없는 반반한 바위에 방금 총알에 맞은 자리가 동그랗게 나있었다. 거기서는 아직도 연기가 몰몰 피여올랐다.

《야, 저기 맞았구나.》

《정말, 총알이 왜 빗나갔을가?》

명남이가 몹시 아수한 표정을 지었다.

《조성, 조문이 잘 맞지 않았던것 같애.》

《조성, 조문은 또 뭐야?》
《넌 〈병기상학〉에 빠지더니 깜깜이구나.》
태호가 총을 한번 겨누어보며 싱긋 웃었다.
《칫, 그렇게 총에 밝은데 왜 빗맞혔니?》
《하여간 총알은 앞으로 나갔거던. 첫술에 배부르겠니?》
태호는 총알이 나간것만도 만족해서 어깨를 으쓱했다.
명남이가 《픽―》 하고 웃었다.
《앞으로 나갔으면 뭘하니? 명중을 해야지.》
《명중?》
《오늘 쏜 총은 헛방이야, 헛방.》
《아니 뭐 헛방?》
태호는 입을 쩝쩝 다시기만 했다. 전번에는 경준이한테서 헛보는데 선수라는 면박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명남이한테서 헛방이라는 말을 들은것이였다.
《하긴 네 말두 맞아.》
태호는 시큰둥한 소리로 대답했다.
(난 왜 자꾸 헛보기만 잘하구 헛방을 잘 놓는걸가.)
《이젠 내려가지 않을래? 배두 출출한데.》
《그러자꾸나.》
태호가 총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놓고 나오니 앞서 걸어가던 명남이가 고개를 기웃하며 멈춰서는것이였다.
《왜 그러니?》
명남이가 물당치기 맞은편을 손짓했다.
《저기 누가 숨어있는것 같애.》
《뭐?》
태호는 눈을 번쩍 뜨고 그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바람 한점 없는 가둑나무숲이 알릴듯말듯 흔들리더니 웬 사람 하나가 슬쩍 등성이너머로 사라지는것이 보였다.

《누굴가?》

명남이가 머리를 기웃하며 물었다.

《글쎄, 누가 나무하러 왔겠지 뭐.》

태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형, 빨리 내려가자.》

명남이가 태호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못이기는척 하고 산을 내리던 태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명남아, 너 먼저 가라.》

《왜 그래? 같이 가지 않구.》

명남이가 이마살을 찡그렸다.

《나뻐 생각말아. 내 좀…》

태호는 선웃음을 지으며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헛방만 놓은줄 알았더니…》

명남이가 입술을 쑥 내밀어보이며 서있다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인차 내려와야 해.》

《응, 걱정말아.》

대답은 선선히 했지만 태호는 마음이 불안했다.

(총을 더 깊숙이 간수해야 하지 않을가?)

이때 물당치기쪽에서 자위대장아저씨가 어청어청 내려오고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총이 걸려있었다.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던 태호는 낯색이 하얗게 질리였다.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저씨가 무뚝뚝한 표정을 지은채 태호앞으로 다가왔다.

《너, 물당치기에 갔댔지?》

《난 몰라요.》

태호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이게 네것이 옳지?》

《예—》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온몸은 화로불이라도 뒤집어쓴듯 화끈해졌다.

《허, 참…》

자위대장아저씨는 쓰거운듯 입을 다시며 마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명남이가 그럴줄 알았다는듯 멀어져가는 자위대장아저씨와 태호를 번갈아보다가 흠칫 놀랐다.

경준이가 굳어진 표정을 하고 성이 독같이 나서 걸어오고있었던것이다. 물당치기에 나있는 오솔길을 걸어오는 거동이 심상치 않아보였다.

태호는 말뚝처럼 서있기만 하였다.

13. 물당치기골안에서

경준이는 태호앞으로 다가섰다. 거친숨을 몰아쉬며 서 있을뿐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두주먹은 꽉 쥐여진채 풀릴줄을 몰랐다.

오늘 낮에 논으로 나가던 경준이는 금포강기슭의 버들가지숲속에서 낯선 사람을 피끗 보았다.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긴장해졌다. 웬 사람일가?

경준이는 계성이네 집에 협박장이 날아들었다는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민응복놈이 계성이네 집에도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원쑤놈, 네놈이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안된다.)

경준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증오심에 번뜩이는 눈길로 선바위골쪽을 바라보다가 강뚝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래켠의 버드나무밑에서 계성이네 소가 풀을 먹고있었다.

사람들이 모내기에 열중하고있는데 웬 사람인지 의심스러웠다. 강가의 숲에서 뭘하고있는것일가?

경준이는 버들가지를 헤치며 은밀히 다가갔다.

낯선 사람은 초조해하면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 수로쪽을 따라 멀지 않은 산기슭으로 사라지는것이였다. 조금만 더 가면 물당치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었다.

개울을 따라 올라갈수록 골안은 더욱 깊어졌다. 주변에

는 나무숲이 무성했다. 나무뒤에 숨어 놈의 거동을 살펴보던 경준이는 《앗》 하고 소리칠번 하였다. 뒤를 돌아보며 숲속으로 빠지는 놈이 다름아닌 민응복이였던것이다.

순간 경준이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이 펄펄 일었다.

(내 기어이 저놈을…)

경준이는 앞을 막아서는 숲속을 헤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민응복놈은 기슭을 따라 숲속을 걸어가며 주위를 자주 살피였다.

(저놈을 놓치면 안될텐데…)

경준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들었다. 얼마전에 선바위골 산속에서 수상한 놈을 놓쳐버렸던 생각이 들자 더욱 긴장해졌다. 잔등에서는 진땀이 내배기 시작했다.

그날 세포위원장아저씨는 경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심중한 기색을 지으며 말해준것이 있었다.

미제원쑤놈들이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면서 전선중부계선에까지 기여들었다는것과 전선이 가까와지자 숨어있던 반동들은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0리밖에 있는 상만리계선에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자위대는 물론 마을어른들과 아이들도 경각성을 더욱 높여 놈들과 싸워이길 준비를 잘해야 할것이였다.

아저씨는 특히 원쑤들과 싸운다고 하여 절대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오늘 내가 또 모험을 하는게 아닌가?)

그러나 경준이는 곧 도리머리를 저었다. 원쑤놈을 앞에 두고 자기 혼자라고 해서 주춤할수 없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두려움

이 없어지고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세차게 타올랐다.

경준이가 민응복놈을 쏘아보며 뒤를 바싹 따르려고 할 때였다.

《땅!》

야무진 총소리가 골안을 울리였다.

(아니?! 웬 총소리야?)

경준이는 하마트면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을번 했다.

온몸은 바싹 긴장해졌다. 경준이는 몸을 도사리고 앞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산기슭을 따라 오르던 민가놈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릉선으로 황급히 사라지고있었다. 방금 울린 총소리에 놀란 모양이였다.

(저놈이 도망치누나.)

경준이는 눈앞이 아뜩해났다. 자기도모르게 다리힘이 쑥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그만에야 풀숲에 주저앉은 경준이는 두손으로 풀을 움켜쥐였다.

경준이는 얼이 나간듯 머리를 쳐들었다.

푸른 하늘에서 티검불같은것이 날고있었다. 점차 커지더니 골안가까이로 육박하듯 내려꽂히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지난봄에도 참나무수림우에서 솟구쳐오르던 수리개였다. 부압산에서 떠나지 않고있는 수리개였다.

경준이는 물당치기에 올랐다. 덕수터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골안을 울릴뿐이였다.

(엥이…)

발끝에서 딩구는 돌멩이를 걷어차며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던 경준이는 못박힌듯 서버렸다. 길가운데 태호와 명남이가 풀이 죽은채 서있었던것이다. …

경준이는 잠시 서있다가 숨을 몰아쉰 다음 다가갔다.
태호와 명남이가 다같이 놀라서 흠칫했다.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쉰 다음 입을 열었다.
《태호야, 너 총소릴 못들었니?》
《뭐? 총소리?…》
태호는 당황해서 껑충 뛰기까지 했다.
(그럼 저애가?)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태호를 보는 순간 경준이는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라도 떨어진듯 철렁했다.
《그럼… 네가?》
경준이의 목소리는 떠듬거리며 잘 나오지 않았다. 자기도모르게 온몸이 매사사해지는것 같았다.
태호는 잠시후 경준이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며 툭한 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쐈어. 잘못됐니?》
《흥, 잘못?》
경준이는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밸을 가까스로 누르며 태호를 면바로 쏘아보았다.
《네가 쏜 총때문에 민응복놈을 놓쳐버렸단 말이야, 알기나 하니?》
《그게 정말이야?》
경준이는 기가 막혀서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위대장아저씨가 내 총을 메고갔구나.》
(자위대장아저씨가?)
경준이는 더 말할 힘이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자위대장아저씨는 저보다 먼저 골안을 지키고있

은게 아닌가?

경준이와 태호 그리고 명남이는 말없이 털썩털썩 마을입구에 들어섰다.

뜻밖에 계성이가 마주 뛰여오고있었다. 그애는 무슨 일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여있었다. 무슨 일이 또 생긴것인지?

《경준아, 태호야, 너희들은 어데 갔댔니?》

《왜, 무슨 일이야?》

《야, 글쎄 오늘 하마트면…》

《어서 말해, 뭔지.》

경준이가 성급하게 물었다.

《오늘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어. 선생님이랑 우리 소랑…》

《자세히 말해라. 무슨 소린지 알겠니?》

《글쎄 어떤 나쁜 놈이 강뚝에서 우리 누렁이가 먹고있는 꼴단에다 나비탄을 끼여놓지 않았겠니.》

《그게 정말이야?!》

경준이와 태호가 계성이의 팔을 움켜쥐였다.

《선생님이 모내는 논에 오셨다가 소가 먹고있는 꼴속에서 나비탄을 발견하구 깜짝 놀라 소를 끌어냈지 뭐. 소가 말을 듣지 않아 무척 혼나셨대. 하마트면…》

《그럼 아까 놓쳐버린 민응복 그놈이 한짓이였구나.》

경준이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두주먹을 내흔들었다. 온몸은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태호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숨마저 제대로 쉴수가 없었다. 계성이의 성난 눈길과 마주쳤던것이다. 그 눈길은 태호에게 《넌 뭘했어? 소를 보겠다고 자진해나서더니…》하고 쏘아붙이는것 같았다.

그날 오후였다.

밤나무밑에 자리잡고있는 교실에 선생님과 경준이, 태호가 마주앉아있었다. 미국놈비행기들이 부압산너머에서 폭격을 하는지 둔중한 폭음이 한참이나 울려오다가 즘즘해졌다.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앉아있던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고나서 얼굴을 쳐들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교실의 정적을 흔들어놓았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괴로운 표정이 어려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생활반책임자로서 태호동무를 잘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경준이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를 애써 뽑으며 겨우 말했다.

선생님의 음성이 나직이 울리였다.

《경준학생의 심정을 알만 해요. 우리는 오늘일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조직을 떠나서는 경준학생도 태호학생도 그리고 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소년단조직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무슨 일이예요?》

《…》

《태호학생은 총만 있으면 원쑤들과 싸워이길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원쑤놈들은 총을 가진 태호를 무서워하는게 아니라 하나로 뭉친 우리의 힘을 무서워해요. 보세요. 놈들이 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어머니들은 서로 힘을 모아 밭을 갈고 씨를 뿌렸지요? 지금은 논을 갈고 써레를 치며 모를 내고있어요.… 그런데 오늘 태호학생의 자유주의적인 행동으로 하여 어떤 후과가 차

례질번 했는가요?》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어요. 민응복놈이 얼마나 악랄한가는 나보다 동무들이 더 잘 알거예요. 이제 그놈들이 무슨 미치광이짓을 할지 알겠어요? 힘을 합쳐야 해요. 흩어지면 그것은 실패라는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돼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그리고 곡진하게 경준이와 태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태호는 꾹 쥔 손등으로 이마를 문대고나서 옹골차게 대답했다.

얼굴에는 자책과 함께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태호학생이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으리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경준이와 태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동무들을 믿고 도와주며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더우기 경준학생은 마을의 생활반책임자가 아닌가요?》

선생님의 차분한 음성에는 진정이 넘쳐있었다.

경준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생님이 정말 고마왔다. 계성이네 소를 살려내고서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잘못을 두고 괴로와하는게 아닌가.

경준이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싶은 심정이였다.

선생님은 계속하여 오늘 낮에 세포위원장아저씨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자위대장아저씨도 이제부터 어린 학

생들의 투쟁을 잘 이끌어줄것이라고 하시면서…

순간 경준이는 자위대장아저씨를 잘 돕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해났다. 자기들을 걱정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아저씨를 잘 도울 대신 오히려 멀리하면서 오늘과 같은 일을 저질러놓은게 아닌가. 정말 한심한 자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바로 들수가 없었다.

《자, 그럼 6.6절이 며칠 안남았는데 준비를 잘하자요. 이번모임을 통해 모든 소년단원들이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야 합니다.》

선생님은 활달한 음성으로 뜻깊게 말씀하며 밝게 웃었다.

《알았습니다.》

경준이와 태호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서다가 짐짓 멈춰섰다.

밤나무그늘밑에 몇명의 녀자아이들이 모여섰는데 옥이와 은옥이가 공기놀이를 하고있었다.

가위주먹을 해서 이긴 옥이가 공기돌 5개를 가지고 4개의 알을 바닥에 펴놓고 1개의 알을 우로 올려던진 다음 바닥에 펴놓은 알 1개를 손에 쥐고 떨어지는 알을 재빨리 받았다. 련이어 또 1개의 알을 올려던진 다음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2개의 알을 손에 쥐고 떨어지는 알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3개, 4개의 알을 다 받아잡아 초집기가 끝났다.

옥이의 날랜 손재주를 재미있게 바라보던 경준이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어데 갔니?》

《머리깎으러…》

은옥이가 가까운데 있는 개울가를 가리켰다.

(아니?)

개울가로 걸어가던 경준이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입을 반쯤 벌리고 한자리에 굳어졌다.

눈앞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자위대장아저씨가 리발기를 들고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있는것이였다.

아이들은 짧은 머리를 시원한 물로 벅벅 씻고는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떠들어대고있었다. 미역을 감으며 물을 뿌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물장구를 치며 자맥질을 하기도 하였다.

태호가 자위대장아저씨를 보자 흠칫 놀라며 못박힌듯 서버리였다.

《태호, 너도 머리를 깎아야지?》

태호는 말없이 서있기만 했다.

《태호야, 너 왜 그래?》

경준이는 짐짓 굵은 목소리로 꾸짖듯 한마디 하고는 태호의 등을 떠밀고 개울가로 걸어갔다.

교실문을 나서던 선생님이 등뒤에서 빙긋이 웃고있었다.

《자위대장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아, 너희들이냐?》

아저씨가 두 소년앞으로 걸어왔다.

태호는 고개를 수긋하고 서있었다.

《허, 용감한 〈저격수〉가 왜 이래?》

《아저씨, 저…》

《됐다, 내 다 들었다.》

자위대장아저씨가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발끝만 내려다보는 태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허— 우리 태호가 담이 큰 아인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 졸장부로구나.》

그러자 경준이와 태호가 싱긋 웃으며 더부룩해진 머리를 쓸어만지였다.

《자, 어서 머리를 깎자. 인차 6.6절이 아니냐.》

《예, 고맙습니다.》

웃음발이 그들의 얼굴에 한껏 비끼였다.

좋아라 뛰노는 아이들을 빙긋이 웃으며 둘러보던 아저씨의 눈길이 명남이의 얼굴에서 멎었다.

《명남인 뭘 찾느냐?》

《자위대장아저씨한테 권총이 있나 해서요.》

《나한테 무슨 권총이 있겠니. 권총보다 더 센 너희들이 있지 않니.》

《아니예요. 우린 〈헛방〉이예요.》

(아니 저애가?)

태호가 얼굴을 찡그리며 명남이를 겯주고있는데 아저씨가 웃으며 말하였다.

《왜 〈헛방〉을 쏘겠니, 명중으로 쏴야지.》

《야!—》

아이들은 손벽을 짝짝치며 좋아라 떠들었다.

아저씨의 웅글은 음성이 무게있게 울리였다.

《반동놈들의 책동은 계속 심해지고있단다. 너희들은 그럴수록 마음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을 쭉 펴고 채랑채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의 씩씩한 대답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퍼져갔다.

14. 《항상준비!》

《오빠, 지금 오나?》

경준이가 토방앞에 다가서기바쁘게 방문이 열리며 옥이가 둥실한 얼굴에 웃음을 짓고 반기였다. 팔소매를 걷어올렸는데 손이 젖어있었다.

《뭘 하댔니?》

옥이는 말없이 방긋 웃기만 했다.

경준이가 방안을 들여다보니 창턱까지 말끔히 닦아놓아서 한결 환해졌다.

벽에 모셔져있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액틀에 분홍색종이로 꽃송이들을 만들어 장식해놓아서 더욱 정중하면서도 숭엄해보였다.

《방금 은옥언니가 와서 해주고갔어.》

《정말 잘했구나.》

경준이는 은옥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상긋 웃었다.

며칠전에 6.6절을 맞으며 인민군대아저씨들한테 보낸 위문편지에도 은옥이는 여러가지 고운 물감을 날려서 공화국기발, 땅크, 비행기, 꽃다발을 멋지게 새겨넣었다. 편지봉투만 보고도 전투승리를 축하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력력히 깃들어있음을 알수 있었던것이다.

《너도 은옥언니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지?》

옥이는 두볼이 옴폭 패이도록 생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빠, 나두 이제 6.6절이 오면 소년단에 들지?》

경준이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빨리 소년단원이 되였으면 좋겠다고 6.6절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옥이였다.

《들구말구. 넌 정말 자격이 있거던.》

《자격?》

《너 요전번에 나쁜 놈들이 내돌리던 말을 듣고 은옥언니를 통해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이를테면 나이는 어리지만 반동놈들과 잘 싸운셈이야. 그런걸 그만 널 울려놨댔구나. 이젠 오빠를 용서해주겠지?》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뭐. 그날 오빠말을 까먹구… 다신 안그럴테야.》

《요건 그저…》

경준이는 사랑스러운 동생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옥이가 앵두같은 입술을 열었다.

《오빠, 소년단엔 어떻게 드나?》

《입단식에 참가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소년단원이 되지 뭐.》

《야, 좋다. 그러니까 입단식을 하려고 막을 멋지게 꾸렸나?》

어제 교실앞마당에는 명절맞이를 위한 새 막이 세워졌다. 밤나무가 하늘이 안보이게 무성한 가지를 드리운 넓은 공지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칡넝쿨로 얼기설기 그물을 엮은 다음 가둑나무가지들을 그우에 올려놓으니 제법 그럴듯한 막이 생겨났다. 그리고 막 한쪽에

는 가설무대까지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앉을 바닥에는 가둑나무잎들을 뜯어다 깔아놓았다.

명절맞이장소로는 그저그만이였다.

《야! 멋있는데.》

《꼭 작전대같구나.》

아이들은 향긋한 나무잎과 풀냄새가 풍기는 막안을 둘러보며 좋아라 떠들어댔다.

옥이도 그것을 보고와서 하는 말이였다.

《입단식에서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겠다는 선서두 하구 붉은넥타이를 매고 소년단휘장도 달고 또 노래두 부르고…》

옥이가 손벽을 짜락짜락 쳤다.

《야, 그래서 은옥언니가 나한테 노래를 배워줬구나.》

《무슨 노래?》

《응, 〈소년단행진곡〉이야.》

《그럼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경준이가 싱긋 웃으며 눈짓을 했다. 그러자 옥이가 살풋이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 우리들은 공화국의 나어린 영웅들
> …

《야, 잘 부르는구나. 그런데 노래를 곱게만 부르지 말고 힘차게 불러야 한다. 이 노래는 행진곡이 아니냐?》

《행진곡?… 맞았어. 오빠하고 함께 불러볼래.》

경준이는 얼른 일어나서 옥이와 함께 선자리에서 행진하듯 두발과 팔을 씩씩하게 놀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행진을 하면서 부르니 노래가 더욱 힘이 있고 온몸에 기운이 솟는것 같았다.

이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아니, 웬일들이냐?》

옥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달려갔다.

《어머니, 두밤만 자면 6.6절! 나 소년단원이 되거든요.》

《우리 옥이 좋아는 하는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옥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경준이의 눈앞에는 자기가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아버지는 논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경준이를 껴안으며 너무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두툼한 손으로 붉은넥타이와 소년단휘장을 쓸어만지던 아버지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준아, 너는 언제나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살던 이 아버지가 오늘은 장군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어엿한 주인이 되여 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있지 않느냐.

너도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를 하고있구. 그런데 오늘은 네가 장군님께서 무어주신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였구나.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이 없었다면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니. 경준아, 언제나 장군님의 은덕을 잊지

말구 오늘 다진 맹세를 잘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갈린 음성으로 말할 때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해났다. 아버지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

지금도 아버지의 갈린 음성이 귀에 쟁쟁하고 눈가에서 번쩍이던 물기가 눈에 삼삼했다.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애써온 아버지였다. 하기에 벼농사를 잘해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금포1》호를 지켜내신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입단할 때 다진 맹세를 잘 지킨다구 떳떳이 말할수 있을가?)

경준이는 차츰 생각이 깊어졌다.

어머니가 농짝문을 열더니 옥이를 위해 마련해두었던 붉은넥타이와 깨끗이 손질해둔 옷들을 꺼내놓았다.

《야, 붉은넥타이!》

옥이가 두손으로 넥타이를 펼쳐들고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서 옷을 입어보자. 꼭 맞겠는지…》

어머니는 환히 웃으며 까만 치마에 흰색저고리를 입은 옥이를 눈여겨보다가 옥이의 목에 붉은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런데 휘장이 없구나.》

《어머니, 소년단휘장은 나한테 있어요.》

경준이가 얼른 앉은뱅이책상안에서 소년단휘장을 꺼내서 옥이의 앞가슴에 달아주었다.

《정말 멋있구나.》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며 옥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경준이가 목청을 가다듬고 가볍게 구호를 불렀다.

《항상준비!》

옥이가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오른손을 이마우로 올려가며 소년단경례를 했다.

어머니와 경준이의 박수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방안 한가득 넘쳐났다.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였다.

금포마을 아이들은 명랑하게 웃고 떠들며 밤나무골에 있는 교실로 모여들고있었다.

옷을 깨끗이 손질해입고 모자를 쓴 아이들은 풀과 나무잎으로 온몸을 위장했다.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전에 없던 꾸레미를 하나씩 손에 들기도 하고 어깨에 멨는가 하면 허리에 둘러차기도 했다.

명절을 맞으며 어머니들이 소박하게나마 성의껏 마련한 음식꾸레미들이였다.

향기로운 풀냄새가 풍기는 막안에서 아이들은 서로 씨름이라도 하듯 껴안고 돌아가다가 녀자애들이 몰켜있는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짜증절반, 웃음절반이 일어나기도 했다.

류달리 쟁쟁한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막안에 정렬했다. 새까만 눈들은 별빛처럼 반짝이고있었다.

드디여 순영선생님이 조선소년단창립절을 기념하는 모임시작을 알리였다.

아이들은 가슴을 쭉 펴고 소년단기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소년단행진곡》을 불렀다. 맑고 푸른 하늘가로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갔다.

노래가 끝나자 선생님이 학생들앞에 나서서 지난 1년동안 소년단원들이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부모들의 일손을 도운거며 반동놈들과 용감히 싸워 《금포1》호씨앗을 찾아낸데 대하여서와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내고 후방가족원호를 한것을 비롯하여 모범적사실들을 소개했다. 그런 다음 새 조선의 후비대로 배우고 또 배워 굳세게 자람으로써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힘차게 나갈데 대한 과업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소년단입단식이 진행되였다.

소년단입단선서 선창에 따라 씩씩한 목소리로 9명의 꼬마들이 선서를 끝내자 선생님과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휘장을 앞가슴에 달아주었다.

선생님이 구호를 힘차게 부르자 아이들은 챙챙한 목소리로 《항상준비!》 하고 웨치며 손을 머리우로 올려갔다.

옥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자기 자리에 들어와앉았다. 아이들의 공연이 시작되였다. 막안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공연이 끝났으나 골안이 떠나갈듯한 박수는 그칠줄을 몰랐다.

모임이 끝나자 아이들은 나무그늘밑에 빙 둘러앉아 즐겁게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었다. 부압산에 원족을 간 기분이였다.

아이들은 집으로 흩어져가면서도 저마끔 《소년단행진곡》을 씩씩하게 불렀다.

경준이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귀전에 울려와 가슴은 마냥 후더워났다. 얼마나 뜻깊은 노래인가. 조국의 앞날

을 떠메고나갈 후비대!

건넌산기슭의 참나무숲을 바라보던 경준이는 얼굴을 돌리였다.

자지러진 총소리와 함께 명남이의 새된 소리가 들리였다.

《야, 저게 뭐니?》

경준이는 마을쪽으로 뛰여갔다. 하늘에서 무엇인가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며 바람에 날려오고있었다. 마치 하얀 가루를 뿌린것 같았다. 때를 같이하여 《웅—》 하는 소리를 내면서 비행기 한대가 높이 떠서 남쪽 산너머로 기수를 돌렸다.

어디선가 《삐라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삐라?》

하늘에서 번쩍거리던것들이 점차 머리우에서 맴돌았다.

명남이가 어느새 삐라 한장을 집어들고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어디 보자.》

삐라를 나꿔채서 들여다보던 경준이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개같은 놈들, 제놈들이 또 들어올테니 손을 들라구? 어림도 없지.》

어느새 논과 밭머리, 개울가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삐라를 주어모아 찢어버리고있었다.

《야, 삐라를 싹 불태워버리면 좋겠구나.》

《그런데 불이 어데 있니?》

아이들이 소리쳤다.

경준이의 머리에 좋은 수가 번뜩 떠올랐다.

《명남아, 넌 여기 있거라.》

경준이는 연자방아간쪽으로 뛰여갔다.

깨여진 유리병쪼각을 얻어들고 재빨리 되돌아온 그는 삐라 한장을 움켜쥐고 그우에 불룩하게 두드러진 병밑굽을 가져다댔다.

《그건 왜 그렇게 하니?》

명남이가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이제 보기나 해라.》

병밑굽을 통한 해빛이 삐라의 한곳에 모여들더니 검은 점이 생겨났다. 뒤이어 확—불이 일었다.

《야, 불이다! 불!》

명남이가 신이 나서 소리치며 그우에 다른 종이장들을 집어던졌다. 아이들이 저마끔 삐라를 모아가지고 뛰여왔다.

《야, 정말 멋진 생각인데.》

어떤 아이는 유리병쪼각을 빼앗아 손등에 댔다가 《앗, 뜨거워!》 하며 물러났다.

《미국놈비행사 대가리에 쪼여졌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미국놈두 비행기두 재가루가 될걸.》

아이들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15. 고마와라 그 사랑

서쪽하늘가에 감빛노을이 곱게 물들무렵이였다. 갑자기 동구길에서 아이들의 씩씩한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산에 들에 꽃이 피여 종달새 노래하던
나서자란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노래소리는 점점 논벌로 가까와졌다.

순영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대렬뒤에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아— 나어린 심장에 붉은피는 끓어
나섰다 싸움의 길로 고향을 위하여

논김을 매고있던 어머니들이 하나, 둘 허리를 펴고 노래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몸에 위장망을 두른채 대렬을 짓고 활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행진해오고있었다.

《아니, 저게 뭐요?》

계성이 어머니가 이마에 손채양을 얹으며 하는 말이였다.

《원, 뭐겠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지요. 그 집 계

성이가 맨 앞줄에 서지 않았소.》

태호 어머니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빙그레 웃었다.

《원, 저런! 아주 끌끌하구만.》

이러는 사이에 아이들의 대렬은 논머리앞 동뚝에 다 달았다. 개구리들이 길을 내여주듯 첨벙첨벙 논판에 뛰여들어 두다리를 쭉 펴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속에서 누구인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치는듯싶었다. 뒤이어 아이들의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논벌을 흔들었다.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머니!》

《원, 저렇게들 기특하다구야.》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데 태호가 동뚝에서 뿌르르 달려내려왔다.

《무슨 일로 이렇게 행차했느냐?》

경준이 어머니가 웃음담아 물었다.

《어머니들이 피곤을 풀게 하자구 춤, 노래를 마련해가지구 왔습니다.》

《태호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아니, 그건 경준이가…》

태호가 벌씬 웃으며 뒤더수기로 손을 가져갔다.

《자, 어서들 올라가자요. 우리 애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겠답니다.》

경준이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들은 흥이 나서 푸른 가지가 흐느적거리는 버드나무밑에 둘러앉았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도 오셨군요. …》

마을어머니들이 저마다 반기며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들을 질서있게 정렬시켰다.

물고를 보던 계성이 아버지도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싣고 주먹으로 허리를 툭툭 치며 자리를 잡았다.

선생님이 눈짓을 하자 경준이가 앞에 나서서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이 시작되였다.

합창 《조국보위의 노래》에 이어 명남이, 철식이가 출연하는 재담, 경준이와 태호의 2중창… 종목이 바뀔 때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지군 했다. 은옥이의 독창은 세번이나 재청을 받았다. 그가운데서도 계성이와 자민이의 농악무는 볼만했다.

계성이가 제법 서서, 앉아서, 옆으로 몸을 재치있게 움직이며 상모를 돌리였다. 자민이가 그옆에 서서 꽹과리를 가락맞게 두드리며 덩달아 신바람이 나서 춤까지 추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흥에 겨워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잘한다, 잘해. …》

《소밖에 모르는줄 알았더니 농악도 아버지를 닮았구만.》

전쟁전만 해도 계성이 아버진 농악무에서 한다하는 춤군이였던것이다.

어른들은 하루 피곤이 말짱 달아났다고, 우리 애들이 이런 재간을 가지고있은줄은 여직껏 몰랐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즐거운 휴식이 끝나고 모두 일손을 다시 잡으려는 때였다. 큰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동뚝길에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나타났다. 그뒤

로 낮모를 사람 몇이 따라섰다.

《여러분! 잠간 거기 계셔주십시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한손을 쳐들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고개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서로 마주보기도 하며 주춤거렸다.

한발 먼저 도착한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성급하게 말했다.

《군당위원장동지가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저씨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다부진 몸에 색날은 군관복을 입은 어른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습니다.》

경준이네도 어른들을 따라 정중히 답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 동무들까지 농사일을 도와나섰구만.》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군당위원장선생님이 경준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네가 경준이구나, 옳지? 그새 무척 컸구나.》

경준이는 군당위원장선생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바람에 저도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며 벌쭉 웃었다.

지나간 이른봄, 벼종자를 찾아냈을 때 만나본적이 있었던것이다.

군당위원장선생님이 주위를 빙 둘러보고나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전선지구를 시찰하시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곳 금포마을 농민들이 올해 봄파종을 열흘이나 앞당겨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순간 짝자그르르 박수가 터져올랐다.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감격에 겨워 눈굽을 훔치기도 하였다. 얼굴마다에 크나큰 자랑과 고마움이 물결쳐 흐르고있었다.

군당위원장선생님의 힘있는 목소리가 다시금 울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 더 많은 쌀을 보내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금포마을에 애국농민이 있었는데 그가 잘 있는가고 따뜻이 물으시였습니다.》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요?》

《경준이 아버지를?》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설레였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경준이는 가슴이 활랑거렸다.

《김현중동지가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 장군님의 높은 뜻이 어려있는 〈금포1〉호종자를 지켜싸우다가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는 애국농민이였다고,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몹시 애석해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의 유가족들이 있을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세세히 물으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안해와 어린 오누이가 있는데 13살난 아들이 마을어른들과 함께 반동놈들과 싸우면서 아버지가 숨겨놓았던 〈금포1〉호씨앗을 기어이 찾아냈다는것과 지금은 거기서 키운 벼모들이 논배미마다에 뿌리를 든든히 박고 푸르싱싱 자라고있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끊길가봐 숨을 죽이고 굳어진듯 서서 소리없는 눈물을 머금고있었다. 간혹 흐느낌소리가 바람

에 실려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중농민이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아주 기특하다고, 나라에서 그애들을 맡아 잘 키우자고 하시였습니다.

아울러 금포마을농민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농사를 잘 지어 전쟁승리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우렁찬 함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칠줄 모르는 만세소리가 금포벌을 뒤흔들며 석양이 비낀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아이들은 껑충껑충 뛰여오르며 만세를 불렀다.

여기저기에서 어머니들이 흐느끼며 머리수건을 눈언저리로 가져갔다.

《현중이, 이 사람. **김일성**장군님께서 자네를…》

계성이 아버지가 도장골둔덕을 바라보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선생님도 뜨거워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순영선생님이 아닙니까?》

《군당위원장동지!》

《순영선생!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터져오르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경준이 어머니의 두손을 꾹 잡아쥐며 고마움에 젖은 눈길을 쳐들었다.

《어머니!》

《경준아—》

어머니가 경준이를 품에 꾹 껴안았다. 두눈엔 뜨거운 물기가 고여오르고있었다.

《경준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를 잊지 않고계시는구나. 하늘같은 이 은혜에 꼭 보답해야 한다.》

《알겠어요, 어머니.》

경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경준아—》

아이들이 와르르 모여들었다.

《태호야, 계성아. …》

경준이는 두팔을 벌려 아이들을 부둥켜안았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한덩어리가 되였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고있었다.

경준이는 평양쪽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아버지 **김일성**장군님!》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맹세가 불타오르고있었다.

경준이의 마음을 알아서인듯 푸른 벼포기들이 살래살래 춤을 추고있었다.

16. 기다리기만 하다가

《빨리 가자, 아이들이 벌써 왔겠는데…》

경준이와 은옥이는 위장망을 두르고 자동차도로를 따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몇달전에 아카시아나무숲가까이에 있는 자동차길옆에 박우물을 파놓았다. 그때부터 전선으로 오고가는 인민군대자동차들이 이곳에서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떠나가군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들이 밤낮으로 쉴새없이 다니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샘물을 다시 손질하고 더 잘 꾸리기로 했던것이다.

짐을 가득실은 인민군대자동차들이 달려오고있었다.

운전칸지붕과 적재함에 씌운 위장그물에서 가둑나무며 새초들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경준이와 은옥이는 길옆에 비켜서서 마주오는 차를 향해 소년단경례를 한 다음 손을 높이 들고 흔들었다.

인민군대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차창밖으로 손을 마주 흔들어주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 샘물을 더 잘 손질해놓자!》

이때 휘파람소리가 휘—휘—나더니 큰길로 접어드는 오솔길에 태호가 나타났다.

《태호가 오늘 기분이 좋았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경준이가 허리춤에서 홀치개줄을 꺼내들며 은옥이한테 눈을 끔쩍이고는 길옆의 풀숲에 몸을 숨겼다. 은옥이에게 다가온 태호가 눈이 동그래지며 주위를 살폈다.

《경준이가 여기 있었는데 어데 갔니?》

《글쎄…》

은옥이가 모르쇠를 하며 머리를 가로 저었다.

이때 수풀속에 몸을 반쯤 숨기고있던 경준이가 태호의 머리우로 올가미를 날렸다.

올가미는 태호의 목에 면바로 철썩 걸리였다.

《엉?》

태호는 두손으로 줄을 움켜쥔채 놀라서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어때?》

경준이 풀숲에서 뛰여나오며 벌씬거렸다.

《호호… 꼼짝못하구 걸렸구나.》

은옥이가 손벽을 치며 좋아라 웃어댔다.

《그럼 날 체포한다는거야? 그새 솜씨가 꽤 늘었구나.》

태호가 큰소리로 웃으며 줄을 벗어들었다.

며칠전에 경준이가 비상련락망체계도를 그리면서 락하산줄로 코를 만들어가지고 홀치기련습을 하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때는 던지기가 서툴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경준아, 나도 홀치기련습을 하겠어.》

《좋아, 우리 함께 훈련하자. 하하.…》

경준이는 줄을 받아들며 함께 웃었다.

은옥이가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니 반동놈들한테 씌울거였구나. 나도 만들테야.》
《네가 이런걸?》
태호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니, 고추가루폭탄!》
《그런것두 있니?》
《왜 그러니? 항일아동단원들이 고추가루폭탄을 가지고 왜놈군대와 싸웠다는걸 넌 잊었니?》
《아, 그렇구나. 그것 참 멋있겠다.》
태호가 머리를 끄덕이며 손으로 뒤더수기를 긁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동무들이 모두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준비하게 하자.》
경준이가 힘을 주어 말했다.
태호보다 은옥이가 흥이 나서 머리를 끄덕였다.
샘물가에 이른 그들은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주변에 들국화를 떠다가 심고 샘물안에 흰 조약돌을 깔아놓기도 했다. 은옥이가 가져온 쪽박과 물고뿌까지 가지런히 놓으니 샘물터는 한결 정갈하면서도 시원해보였다.
《야! 참 멋있어졌는데.》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이 샘물만 마시면 힘이 부쩍 솟는다고 하셨댔어.》
은옥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였다.
(그런데 계성이는 왜 아직 오지 않을가?)
경준이는 큰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계성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철식이를 계성이네 집에 보냈는데 그도 감감무소식이다.
(혹시 어제 있은 일때문에…)

경준이는 문득 어제 있은 일이 생각났다.

어제 오전학습이 끝나고 헤쳐가려고 할무렵에 은옥이가 태호네 학습조에 달려와서 소리쳤다.

《계성이네 소가 송아지를 낳았대.》

《야, 그게 정말이니?》

아이들은 모두 환성을 질렀다.

《계성이가 꽤 좋아하겠는데.》

《송아지도 잘 키워야 하겠구나.》

경준이와 은옥이가 기쁨에 넘쳐 웃으며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우리 함께 계성이네 집에 가보자.》

《빈손으로? 누렁이가 애기를 낳았는데…》

철식이의 말에 모두 와—하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아이들은 흥성거리며 계성이네 집을 향해 씨엉씨엉 걸어갔다.

계성이네 집 외양간에는 벌써 사람들이 여러명 모여있었다.

송아지는 어미소배에서 나온지 한시간도 채 못되였는데 용을 쓰며 일어서더니 비척거리며 걸음을 내딛는것이였다. 제법 깡충깡충 뜀질까지 하였다.

《야! 송아지가 힘이 꽤 세구나.》

《귀엽게 생겼어!》

아이들은 송아지잔등을 쓸어보며 기뻐했다.

어미소가 한쪽에 서서 두눈을 씀벅거리며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목에서 방울소리가 쩔렁쩔렁 났다.

계성이는 어느새 따뜻하게 데운 물을 버치에 담아가지고와서 새끼에게 미역도 감겨주고 어미소의 젖꼭지를 입

에 물려주기도 하였다.

《원 저런, 어른들 찜쪄먹겠수다.》

《소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애요.》

《꼭 아버지를 닮았지요.》

동네어른들은 이렇게 계성이를 칭찬해주었다.

정말이지 새로 낳은 송아지는 계성이한테 큰 경사였고 기쁨이였다.

그래서 그날 오후 경준이는 계성이를 위해 근무시간도 되기 전에 그가 근무를 서고있는 축동쪽으로 갔다.

마침 태호도 위장망을 두른채 뒤따라오고있었다.

며칠전부터 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축동입구에는 보초막이 새로 생겨났다.

낮에는 주로 아이들이 서고 밤에는 민청원들이 맡아서 섰다.

겉으로는 항공감시를 하는것 같았지만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위대에 알리기 위한 비상련락망초소(별초소라고도 하였다.)였다.

축동에는 여러명의 아이들이 두팔을 벌려야 서로 껴안을만큼 둘레가 큰 느티나무가 푸른 가지를 펼치고 서있었다. 그 맞은켠 경사진 곳에는 아름드리 참나무가 한그루 서있었다. 올해에도 류달리 도토리가 주렁주렁 달리였다. 가을이 되면 단단하게 여문 도토리가 툴렁툴렁 떨어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기도 하였다.

퍽 오래전에 마을사람들이 아름드리 참나무에서 딴 도토리를 마을주변의 산기슭에다 알알이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오고 자라서 지금은 수많은 어린 참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었다.

여름 한철에는 마을로인들이 느티나무와 참나무밑에서 장기를 두며 휴식을 보내는가 하면 조무래기들은 나무뒤에서 숨박곡질을 하면서 《사람찾기》, 《보물찾기》 놀음을 재미나게 벌려놓군 하던 곳이였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이곳은 한적한 곳으로 되여버렸다.

다만 인민군대자동차들이 서늘한 나무밑에서 달아오른 자동차기관을 식혀가지고 전선으로 떠나가군 하였다.

그들이 보초막가까이에 이르자 보초막 창구로 나무총신이 삐죽 나와있는것이 보였다.

밀랍으로 닦음질을 얼마나 했는지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기까지 했다.

경준이는 싱긋 웃으며 문앞으로 걸어갔다.

《계성아!》

대답이 없었다.

《계성아-》

다시 불렀으나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된거야?)

보초막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던 경준이는 말뚝처럼 서버렸다.

막사안이 텅 비여있었다.

(얘가 어데 갔어?)

신경이 곤두선 경준이는 나무총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계성이는 보이지 않았다.

태호가 눈이 둥그래졌다.

《왜 그러니?》

경준이는 보초막을 눈짓했다.

《계성이를 도와주자고 나왔는데 글쎄…》

《그앤 어데 갔니? 나도 그래서 나왔는데…》

《누가 알겠니? 이 총만 창구멍에 내밀고있지 않겠어. 무슨 판인지. …》

《도대체 어델 갔다는거야?》

태호가 사방 둘러보다가 중얼거렸다.

며칠전에 자위대장아저씨는 보초를 서고있는 태호한테 새로 깎은 나무총을 주면서 《쌩한 총보다 이게 더 낫겠지?》하고 넌지시 한마디 하였다.

태호는 나무총을 받아쥐고 서있다가 얼굴을 쳐들었다. 총보다도 아저씨의 믿음이 더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자, 이 총을 손에서 놓아선 안된다. 알겠니?》

자위대장아저씨가 나무총을 태호의 어깨우에 반듯이 메워주며 말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런 총을 내버려두다니?

《저러다 수상한 놈이 나타나면 큰일아니야?》

경준이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보초막을 비워놓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일은 처음이였다. 계성이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것 같았다.

계성이가 헐떡거리며 나타난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먼곳에서부터 창구에 그럴듯하게 걸쳐놓았던 총이 없어진것을 보고 급히 뛰여오는 길이였다.

《너 어데 갔댔니?》

경준이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날카로웠다.

계성이는 잠시 주밋거리다가 슬며시 얼굴을 쳐들었다.

《사실은 별루 오가는 사람두 없구 해서 송아지먹을 풀

을 좀 베느라고…》
계성이는 아무일도 아닌듯 범상하게 대꾸했다.
《송아지야 아직 젖을 먹지 않니?》
《어미소가 풀을 많이 먹어야 젖도 잘 나오겠지?》
경준이는 대뜸 부아가 치밀었다.
《뭐? 어미소? 그렇다구 보초막을 비워서야 되니. 그러다가 소까지 잘못될수 있다는걸 몰라? 논판에서처럼…》
《뭐뭐? 소한테?》
계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였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사실은 우리 집쪽으로 웬 사람이 가지 않나 해서…》
《흥, 잘한다. 마을길을 감시하라구 했지 누가 너의 집을 감시하라구 했니?》
경준이는 어이가 없어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보초막을 조금만 벗어나면 산골짜기에 있는 계성이네 집이랑 마을길이 빤히 내려다보였던것이다.
《오늘은 소가 집에서 쉰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스럽더구나. 다시 안그러면 되지 않니.》
계성이는 경준이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고는 고개를 떨군채 시적시적 보초막으로 걸어갔다. …
경준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어제 내가 계성이한테 너무한게 아닐가? 내 성미도 참…)
이때 철식이가 급히 뛰여왔다.
《계성이가 어제 저녁 소풀을 베러 갔다가 발목을 다쳤대. 집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있어.》
《뭐라구?!》

경준이의 손에서 호미가락이 툴렁 떨어졌다.

(진작 찾아가봐야 했을걸. 아니, 태호랑 같이 소풀을 듬뿍 베다주었더라면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걸.

난 정말 생각이 깊지 못하구나. 그런것두 모르고 나오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하구…)

경준이가 자기를 탓하고있는데 태호는 무슨 가책이 드는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빨리 가봐야 하지 않겠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경준이가 태호의 옆구리를 건드리며 금포강기슭을 눈짓했다.

《계성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자.

그렇지 않아도 송아지까지 돌보느라 계성이의 몸이 축간것 같애. 몸보신을 해줄겸…》

《몸보신?》

태호가 벙긋 웃더니 머리를 끄덕이였다.

《반두를 가져올게.》

태호는 꽁무니에 불이 달리게 집으로 달려갔다.

경준이는 태호의 등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역시 태호가 속통이 좁은 아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준이는 은옥이와 철식이에게 뒤거두매를 하라고 당부한 다음 금포강기슭으로 걸어갔다.

(계성이가 그런줄도 모르고있었으니…)

계성이가 아침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던 강뚝이 저멀리에 바라보였다. 거기에선 지금도 세찬 물살이 소리치며 흐르고있었다.

태호가 어느새 반두를 한손에 든채 종다래끼를 둘러

차고 나타났다.

경준이는 바지가랭이를 바싹 걷어올리고 강기슭의 물웅뎅이에 발을 잠그었다.

아이들은 여름이면 강기슭의 웅뎅이에 모여와서 시원하게 미역을 감았고 붕어잡이를 하면서 물밑에서 조개를 건져내기도 했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드는것도 모르고 썰매를 타고 놀았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는 물고기잡이를 별로 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다.

두 아이는 어느새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었다.

《야! 멋있구나!》

《여기, 여기…》

《고기가 샌다—》

태호가 신이 나서 반두질을 했다. 경준이는 바지가랭이가 다 젖는것도 모르고 물을 첨벙거리며 반두가 있는쪽으로 고기를 몰아갔다.

17. 마음의 문

어느새 땅거미가 깃든 마을은 조용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집들에서 저녁을 짓느라고 희스무레한 연기가 실오리처럼 피여오르고있었다.

경준이와 태호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있는데 마을길 한가운데 계성이가 불쑥 나타났다.

《아니? 계성이 아니야?》

경준이가 마주 뛰여가서 서먹서먹해하는 계성이의 두손을 꽉 잡았다.

계성이는 입술까지 터갈라져있었다. 다리를 살룩살룩 저는것을 보니 몹시 다쳤던 모양이였다.

《계성아, 앓는다더니 이렇게 나다녀도 되니?》

경준이가 계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참을수 있어.》

계성이는 숨을 씩 내쉬였다.

경준이가 종다래끼를 쳐들어보였다.

《이거 너 몸보신시키려고 태호가 잡은거야.》

다래끼안에서는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아가미를 넙적거리고있었다.

《몸보신? 그건 무슨 소리야?》

계성이의 눈이 둥그래졌다.

《붕어탕을 먹구 네가 빨리 추서라는거지 뭐. 잉어가 한

두마리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계성이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자기를 위하는 동무들의 성의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너 왜 밤에 소꼴을 베러다녔니?》

태호가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계성이는 태호를 얼핏 보고나서 길옆의 버드나무아래에 주저앉았다.

《너 발목이 몹시 아픈 모양이구나.》

경준이는 계성이곁에 쭈그리고 앉으며 태호에게 앉으라고 눈짓을 했다.

《아픈것쯤이야 뭐…》

계성이가 부압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어제 날이 저물녘이였다.

계성이가 집에 돌아가보니 누렁소는 외양간에 누워 새김질을 하고 송아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어미곁에 붙어있었다.

(누렁소가 얼마나 힘들가?)

경준이한테서 말을 듣고 격해졌던 마음을 가라앉힌 계성이는 낫을 들고 슬며시 일어섰다.

요즘은 모내기를 끝내고 애벌김과 두벌김을 다 맸다. 이제 세벌김을 맬 차례였다.

강냉이밭에서 마지막후치질을 했으니 누렁소가 힘든 고비는 넘긴셈이였다.

그런데 송아지를 덜컥 낳았으니 여물이라도 량껏 먹여야 할것이였다.

겨우 문밖출입을 하는 아버지는 송아지의 시중을 드느라고 왼심을 쓰고있었다.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소꼴을 베오자. 송아지가 먹을수 있는 만문한 풀도… 그럼 젖도 덜 빨게 될거야.)

계성이는 꼴망태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다.

한창 낫을 휘두르며 풀을 베던 계성이는 이상한 감촉을 느끼고 얼굴을 쳐들었다.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한 어슴푸레한 숲속에서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움직이고있었다. 뒤모습을 보고서는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문득 보초막을 비웠던 일이 생각난 계성이는 온몸이 긴장해졌다.

(반동놈이 아닐가?)

계성이는 낫과 망태를 그자리에 놓고 그림자가 사라진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였다.

어느새 산기슭의 숲속에 들어선 계성이는 숨을 죽이고 사위를 살피였다.

가둑나무 포기사이로 희끗한 그림자가 얼씬했다.

(옳지!)

계성이는 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심히 뒤를 따랐다.

그림자는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빈 지게를 추스른 다음 지팽이로 땅을 쿡쿡 찌르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덧 어둠의 장막이 드리웠다.

계성이는 크지 않은 바위들이 나지자 거기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앞을 주시했다.

그림자는 비탈길을 오르고있었다.

(그럼 도가집으로?!)

계성이는 머리칼이 곤두서는것 같았다.

도가집이란 마을에서 상가가 나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상여도구들을 보관해두는 집이였다. 막돌로 나지막하게 담벽을 쌓아올리고 벼짚으로 지붕을 얹었는데 손질한지가 오래서 거의 쓰러지다싶이 되였다.

아이들은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여느때도 도가집주변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자 도가집은 더욱 인적없는 음침한 곳으로 되여버렸다.

(반동놈이 틀림없구나.)

계성이는 앞뒤를 가려볼새없이 무작정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급하게 바위벽을 돌다가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왼쪽발목이 그만 바위틈에 끼웠던것이였다. 안깐힘을 쓰며 발을 빼내려고 했으나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앞에서 움직이던 그림자가 불쑥 되돌아내려오는것이 아닌가.

(아?!)

계성이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필사적으로 발목을 뽑아냈다. 무릎까지 찌릿하고 얼얼했다. 손으로 더듬어보니 끈적끈적했다. 상처에서 피가 내밴것이였다.

그림자는 계속 다가오고있었다.

계성이는 한손으로 발목을 어루만지다가 바위돌에 착 붙었다. 그리고는 가슴이 한줌만 해서 숨을 죽이고 앞을 주시했다.

그림자는 일여덟걸음앞에서 멈춰서더니 잠시후 오른쪽 산기슭으로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야, 요놈의 발목은 왜 바위짬에 끼워가지구…)

더는 그림자를 따를수 없게 된 계성이는 하는수없이 아픈 다리를 끌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아침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 계성이는 소스라쳐놀랐다.

소꼴을 베던 꼴망태와 낫가락을 풀밭에 둬둔채 그냥 돌아왔다는 생각이 났던것이다.

(쳇, 내가 겁에 질리긴 질렸댔구나.)

계성이는 아픈 다리를 가까스로 끌며 토방에 나섰다. 떨구고온 꼴망태와 낫을 가져와야 했던것이다. …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며 여기까지 나왔니?》

태호가 걱정스러운듯 그의 다리를 보며 물었다.

경준이는 아까부터 《도가집… 도가집…》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는 경준이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태호가 한마디 했다.

《뭘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놈들이 아무리 쏼라닥거려도 우릴 어쩌지 못해.》

경준이가 태호의 말에 선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엥이, 발이 이렇게만 안됐어두 끝까지 따르는건데.》

계성이가 결김에 발을 탕 구르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두손으로 발목을 쥐였다.

《얘, 주의해.》

경준이와 태호는 근심어린 눈길로 계성이의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계성이는 그들의 진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두 참아야지 뭐. 다 내 잘못인데.》

계성이는 나직이 숨을 쉬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난 너희들에게 곁을 주지 않았댔어. 태호가 별스레 날 곱게 보지 않구 경준이 너까지도 그런것 같아서… 너무 소심하구 옹졸했지 뭐. …》
경준이는 목구멍이 싸해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열지 못했다.
태호가 계성이의 손을 불쑥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나만 잘났다고 하면서 널 숙보구 제멋대로 행동하길 더 좋아하구… 사실 총을 쏘려했을 때 너희들에게 먼저 말했어야 하는걸…》
태호는 물당치기에서 총소리를 내고 마을에서 소동을 일으킨것까지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난 계성이의 얼굴이 전에없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였다.
《됐어. 다 지나간 일인데… 이건 다 마을의 생활반을 책임진 내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탓이야.》
경준이의 진심어린 반성에 계성이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경준이 앞으로 다가앉으며 마침내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경준아, 나 역시 같아. 잘못이 많았어.》
《그건 무슨 소리야?》
경준이가 어리둥절해지며 되물었다. 태호도 무슨 말이냐싶어 눈이 휘둥그래졌다.
계성이가 고개를 돌리며 슬그머니 좌우를 살펴보았다. 자기들 셋뿐, 풀벌레우는 소리만 도간도간 들렸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고나서 드디여 말꼭지를 뗐다.
《반동놈들이 우리 집에 쪽지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아버지한테 가만히 말했지 뭐. 너희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댔어.

공연히 소문만 낼것 같아서…》

계성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이 박새풀을 베오는 바람에 누렁이까지 잘못될번 하지 않았댔니. 또 강뚝에 소를 매놓았다가 어떻게 될번 했니? 그때문에 너희들을 믿지 못했던거야. …》

계성이는 가슴속에 묻어두고있던 고까왔던 심정을 말끔히 털어놓았다.

(그래서였구나. 말도 잘 안하구, 동무들을 슬슬 피하면서… 그런것두 모르고 난…)

《계성아!》

경준이는 계성이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경준아.》

계성이도 목메인 소리로 부르며 경준이의 어깨를 꼭 그러잡았다.

경준이는 주먹으로 계성이의 잔등을 쾅쾅 두드렸다.

《난 네가 꼭 그 말을 할줄 알았어. 너의 아버지한테서 듣긴 했지만 난 네가 우리에게 터놓으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 못난 자식아!》

《날 콱 때려줘. 동무들을 믿지 못하고있었으니 정말 한심했지 뭐야.》

경준이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났다.

《계성아, 요전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동무들을 믿고 도와주며 잘 이끌어주라고… 그래야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부모들처럼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칠수 있다고 하셨어.》

《선생님은 정말 고마운분이야.》

소를 살려내던 선생님의 강직한 모습을 그려보던 계

성이의 눈에서는 물방울이 뚤렁뚤렁 떨어졌다.

태호가 손등으로 눈굽을 찍으며 고개를 쳐들었다.

경준이는 자기도모르게 목이 꽉 메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결연히 말했다.

《오늘 너희들과 말하고싶은게 있어.

태호는 총을, 계성인 소를 사랑하는데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거야. 따지고보면 아버지들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지 뭐겠니? 그런데 우린 그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있었거든.》

경준이는 나직이 숨을 내쉬며 두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고개를 수긋하고있던 태호가 머리를 쳐들며 코멘소리를 했다.

《그러니 우린 여태껏…》

《태호야, 계성아,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한마음한뜻이다. 굳센 하나가 되자는거야. 어떻니?》

경준이가 두 소년의 손을 덥석 잡고 머리를 끄덕였다.

《야, 굳센 하나! 참 좋구나.》

세 소년은 와락 부둥켜안았다. 그들의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흐르고있었다.

태호가 어줍은 웃음을 지었다.

《계성아, 용서해라. 난 너보구 담도 없는 토끼라고 생각했댔어. 그리구 소도 잘 돌보지 못하구…》

《별말을 다 하누나. 나도 이제부터 담을 키우겠어.》

계성이와 태호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던 경준이가 큰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서 가자. 붕어들이 섭섭해하겠다. 부글부글 끓여야지?》

《하하. …》

《하하하.》

아이들은 즐겁게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설 차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저쪽 굽인돌이에서 누구인가 황급히 달려오고있었다.

발자국소리만 들어봐도 은옥이란걸 알수 있었다.

《은옥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은옥이는 함뿍 웃는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경준아, 너의 어머니가 아까 선생님과 너를 찾댔어.》

《무슨 일이게?》

《글쎄 희생된줄 알았던 희남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대.》

《뭐라구? 그게 정말이야?》

경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은옥이의 두손을 꽉 움켜쥐였다.

《응, 방금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야, 김진국아저씨를 만나볼수 있게 됐구나.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가?》

경준이는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싶은 심정이였다.

아버지의 벼농사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아저씨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기에…》

《글쎄 문암마을에 갔다와야 한다면서 떠나셨대. 세포위원장아저씨랑 날이 인차 어두워지겠는데 래일 갔다오라고 말렸는데도 오늘중으로 갔다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떠나셨다는거야.》

《뭐? 오늘중으로…》

경준이는 흠칫 놀라 사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의 장막이 짙게 드리우고있었다.

18. 바라신것은

경준이는 태호와 함께 산비탈오솔길을 따라 숨이 턱에 닿게 걸음을 다그쳤다.

자기도 함께 가겠다는 계성이를 억지로 떼여놓고 은옥이를 시켜 어머니한테 알리도록 한 다음 길을 떠났던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오실가?》

태호의 미심쩍은 목소리였다.

《선생님은 한번 말했으면 그대로 하실거야.》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야…》

《넌 선생님이 어떤분이라는걸 아직 모르고있니?》

경준이의 목소리에는 핀잔이 섞여있었다. 경준이도 그런 생각이 피뜩 들었으나 머리를 흔들었다.

상냥해보이고 유순하면서도 강직한 성미를 지닌 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던것이다. 그들의 숲속길을 밝혀주려는듯 희미한 초생달도 얼굴을 량껏 내밀었다.

(선생님이 빨리 오셨으면… 아저씨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반가와하실가? 그리고 희남이는 또 얼마나…)

경준이가 재롱스러운 희남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걸어가는데 태호가 주춤 멈춰섰다.

《왜 그래?》

《저게 뭘가?》

태호가 어둠속에서 손짓을 했다.

경준이는 웃으며 대꾸했다.

《야, 그건 썩은 버드나무등걸에서 내보내는거야. 허깨비!》

두아름되게 자란 등걸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보내고있었던것이다.

《태호야, 정신차려.》

《알겠어. 공연히 저놈의 등걸때문에…》

《왜 놀랐니? 그까짓 허깨비를 보구.》

《놀라긴. 내 인차 저놈의 등걸을 없애버리겠어. 선생님이 자주 다니시는 길인데…》

《너도 용감성을 키워야겠구나. 놀라는걸보니. 계성이처럼…》

《계성이처럼?》

태호가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하긴 나두 같애.》

경준이가 멋적게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경준이가 갑자기 움쭉 멎어서며 한팔로 태호의 옆구리를 툭 쳤다.

《가만…》

《…》

한편 순영선생님은 자그마한 꾸레미를 가슴에 껴안은채 다급하게 걸어오고있었다.

응석을 부리며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희남이와 헤여졌건만 어둠이 깃든 숲속길을 걸어가는 순영선생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질줄 몰랐다. 그것은 이제 자기를 만나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히 어려왔기때

문이다.
(이제 경준이랑 태호랑 이걸 보면 막 좋아서 춤을 추겠지. …)
아이들을 또다시 그려보는듯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꾸레미를 정히 쓰다듬었다. 경준이, 태호, 계성이, 명남이, … 날이 갈수록 정이 드는 아이들이였다. 한시바삐 그들에게로 가고싶었다. 순영선생님이 어둠속에서도 낯익은 길을 더듬으며 굽이진 벼랑턱을 지나고있을 때였다. 앞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누구예요?》
선생님의 야무진 목소리가 어둠의 적막을 깨뜨렸다.
《나다. 너를 기다리던참이다.》
석쉼한 목소리가 담배진내와 함께 훌 스쳤다. 그옆에 서있던 장승같은 놈이 선생님의 얼굴에 전지불을 비쳐댔다.
《내가 누군줄 알겠지?》
아무말없이 서있는 선생님앞을 오락가락하던 놈이 갑자기 너털웃음을 짓더니 지껄여대기 시작했다.
《아하, 모르겠다. 하긴 모를수 있지. 우린 초면이니까. 내가 바로 이 땅의 주인 민응복이야.》
이놈은 제 졸개들로부터 순영선생님이 밤에 이길로 자주 다닌다는 통보를 받고 며칠째 여기를 지키고있었던 것이다. 놈은 자기의 거사가 자주 아이들때문에 저지당하자 그 앙갚음을 하자고 여기에 나타난것이다.
순간 선생님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네놈이였구나. 그래 어쩔테냐.》
《어쩌긴, 나도 너와 긴말할 생각이 없다. 벼종자를 찾

도록 도와나섰구, 또 애새끼들을 가르치면서 소를 살려냈구, 뭐 우리와 싸워 이기라고 선동질을 해? 내가 그저 쓰러질줄 알았어?》
《민가, 네놈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것 같으냐?》
《하— 주인이 바뀌였는가?》
그러자 선생님의 당돌한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쩌렁쩌렁 울렸다.
《민응복, 똑바로 알아두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가 주인으로 될것이다.》
《역시 선생이 다르군. 말하는 품이 달라.》
여전히 야유조로 말하던 민응복놈이 갑자기 뚝 굳어졌다. 가느다란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기때문이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메아리쳐왔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둠의 장막을 가르며 울려퍼졌다.
그 찰나 민응복놈이 《에익—》 하고 침을 뱉더니 손에 쥔것을 휙— 내둘렀다.
《앗!》
순간 순영선생님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희미한 의식속에서도 《이놈들, 어디 두고보자!》 하며 시커먼 그림자들이 숲속으로 사라지는것을 볼수 있었다.
《선생님— 어데 계시나요?—》
안타까이 소리치며 허둥지둥 달려오던 경준이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졌다.

사위가 희붐해진 속에 선생님이 길옆의 풀우에 쓰러져있었던것이다.

휙— 스치는 바람결에 옷고름이 선생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선생님—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준이가 와락 달려들어 옷고름을 치우며 선생님의 상반신을 쳐들었다. 태호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함께 도와나섰다.

《경준이… 태호구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겨우 들리였다. 얼굴에는 온통 진땀이 내배고있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의 옷을 살피던 경준이는 깜짝 놀랐다. 옷자락에 피가 고이고있었다. 경준이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거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이때 멀지 않은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였다.

《탕! 탕!》

뒤미처 은옥이가 달려왔다.

《은옥아,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님!》

은옥이가 두발을 구르며 울음을 터뜨리였다.

경준이는 선생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생기를 잃고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정신을 차리세요. 진국아저씨가 살아계신대요.》

《희남이 아버지?》

선생님의 가느다란 목소리…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았어요.》

경준이의 말소리는 자꾸만 떠듬거렸다.

《기… 기뻐요. …》

선생님은 힘겹게 두눈을 뜨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뜨직뜨직 말했다.

《민… 민가놈을 꼭 잡아야… 해요.》

《선생님! 아, 아, 어쩌나…》

《선생님! 나 태호예요. 은옥이랑 여기에 있어요.》

경준이와 태호, 은옥이는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은 꺽꺽 목이 메여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온몸을 떨고있었다.

이때 세포위원장아저씨와 경준이 어머니, 태호 어머니가 달려왔다.

《순영선생님!》

《선생님!》

어머니들은 선생님을 부둥켜안고 오열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선생님은 풀밭우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차디찬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리도 보고싶던 아이들을 만나서인지…

달빛이 선생님의 얼굴을 조용히 비치였다. 머리맡의 풀대만이 추연하게 서있었다. 어디선가 접동새의 구슬픈 소리가 정적을 깨며 들려왔다.

다음날이였다.

경준이네는 금포강기슭의 버드나무밑에 앉아있었다. 그들모두의 눈두덩은 퉁퉁 부었다.

어제저녁부터 밥을 한술도 뜨지 않은 그들의 얼굴엔 선생님을 살해한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이 어려있었다.

오랜 침묵을 깨뜨리며 경준이가 말없이 크지 않은 책을 꺼내놓았다. 전쟁시기 소년단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담은 《실화집》이였다.

《어제 선생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 책을 가지고오시였어. 여기엔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에 나어린 소년단원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있어.》

순간 아이들은 또다시 참고 참아오던 오열을 터뜨리였다. 경준이는 목이 꺽 막히여 더는 입을 열수가 없었다.

얼마나 인정많고 살뜰한 선생님이였던가.

지난 초봄에 집에 찾아갔을 때 반가이 맞아주며 살뜰하게 대해주던 상냥한 모습, 금포마을에 교원으로 배치되여온 첫날부터 자기들을 위하여 마음쓰시던 선생님,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탓하기보다 먼저 괴로움을 앞세우던 선생님!

계성이네 소를 살리느라고 애쓰시던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선생님이였다.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던 경준이는 순간 가슴이 쓰리고 아파났다.

선생님을 다시는 볼수 없게 되였다고 생각하자 선생님을 도와드릴 대신 애만 태우게 한것이 여간 후회되지 않

았다.

경준이는 얼굴을 쳐들고 동무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린 선생님에게 잘못한것이 너무나 많았어. 왜 진작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눈물을 그치자. 여기 앉아서 아무리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선생님은 우리들을 위해 애쓰시다가 가셨어. 선생님이 바라신게 뭐겠니? 우리모두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하나같이 굳게 뭉쳐 원쑤들과 싸워이기는거라고 생각한다.》

《옳아. 우리모두 선생님이 바라시던대로 우리 고향인 금포마을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태호가 주먹을 꽉 쥐고 흔들었다. 얼굴엔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아이들은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에 맞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포강의 푸른 물은 쏴—쏴— 소리치며 흐르고있었다.

19. 비바람을 맞받아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장마가 지기 시작했다.

비는 한주일째 그치지 않았다. 마치도 하늘에서 커다란 드레박으로 그냥 내리붓는듯 하였다.

폭격에 나무들이 뽑히운 산비탈에서는 사태가 났다.

산기슭에 지은 집들에서도 어느 집이나 할것없이 물이 나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경준이는 굴량골에 있는 논을 돌아보고 집에 돌아왔다.

옥이가 부엌바닥에 고인물을 바가지로 퍼내고있었다.

《오빠, 지금 오나? 옷이 다 젖었네.》

《이리 내라.》

경준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속에 들어서서 바가지로 물을 푹푹 퍼냈다. 뜨락에서는 흙탕물이 도랑처럼 흘러내렸다.

얼마 안가서 물이 다 찌자 부엌바닥이 드러났다.

경준이는 가마에서 밥그릇을 꺼내여 옥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옥이가 발그스레한 입술을 열었다.

《오빠, 어머니가 아까 나보구 전선원호에 갔다온다구 하면서 오빠랑 저녁을 지어먹고 자랬어.》

《응, 나도 알고있어.》

오늘오전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마을어른들

과 민청원누나들이 전선으로 원호사업을 떠났다. 전선은 20여리밖에 있었다.

경준이는 옥이에게 계성이네 집에 갔다올테니 혼자서 공부를 하라고 이른 다음 집을 나섰다.

계성이네 집에 가니 계성이가 소외양간으로 흘러드는 물머리를 돌리느라 물길을 째고있었다.

《수고하누나. 아버진 아직 안오셨니?》

경준이는 토방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계성이가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논들을 또 돌아보시는 모양이구나.》

아침 일찍 경준이가 굴량골에 있는 논이 걱정되여 비를 함뿍 맞으며 찾아갔을 때였다. 누구인가 도롱이를 걸친채 논뚝에서 삽질을 하고있었다.

경준이가 급히 다가가보니 계성이 아버지였다.

《계성이 아버지!》

《오, 경준이 왔구나.》

계성이 아버지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뻑 훔쳐내며 빙그레 웃었다.

상처가 차츰 나아지자 마을의 논들을 살펴보며 물고들을 손질해주군 했는데 오늘은 장마비에 불어난 논물을 돌아보며 경준이네 논에 나온것이였다.

《힘드실텐데 그만두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젠 다됐다. 보뚝이랑 물길을 단단히 손질해놓긴 했는데 비가 그냥 올가봐 걱정이구나.》

《계성이 아버지, 벌써 금포강에 물이 많이 찼어요.》

《그러게 말이다. 수십년전에 홍수가 지면서 금포강물이 넘쳐나 온 마을의 논밭을 휩쓸었다는데…》

《그게 정말이나요?》

경준이가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올해 장마가 그때의 그 장마와 같다구 모두들 걱정하지 않느냐. 허지만 수문도 건설해놓구 강뚝도 자주 손질해놓으니 일없을거다.》

계성이 아버지는 걱정스레 하늘을 쳐다보더니 경준이의 등을 떠밀었다.

《이젠 집에 가봐라. 논은 걱정하지 말구…》

경준이는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보뚝과 논들을 살펴보며 발길을 돌렸던것이였다. …

《너의 아버지가 정말 수고하시더라. 자, 이젠 내가 좀 하자.》

경준이는 선뜻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젠 다됐어. 내가 마저 할게.》

계성이가 말렸지만 경준이는 재빨리 삽을 빼앗아든 다음 물길을 내기 시작했다. 고여있던 흙탕물이 물길을 따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두 소년을 바라보며 머리를 주억거리였다.

《야, 송아지가 그사이 몰라보게 컸구나.》

계성이가 경준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왔니?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야?》

《너도 알지? 마을어른들이 전선원호를 떠난거.》

《응, 우리 어머니도 갔는데 뭐.》

《마을이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가?》

계성이는 아직도 한쪽발이 아픈듯 경준이 모르게 얼

굴을 찌프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눈을 가늘죽하게 뜨고 생각을 굴리던 경준이가 마침내 결심을 한듯 입을 열었다.

《축동에 동무들을 모이게 해야겠어.》

《알겠어. 그럼 신호를 할게.》

계성이가 토방기둥에 매달려있는 포탄깍지를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류달리 쟁쟁한 소리가 비발을 뚫고 아이들만 알수 있게 간격을 두며 마을로 퍼져갔다.

경준이와 계성이는 축동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억수로 퍼붓던 비가 좀 뜸해졌다.

하늘이 희붐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야, 해가 나려는 모양이야. 이젠 됐어.》

경준이는 비가 멎으면 금포강물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며 길가에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계성이도 반색을 하며 기뻐했다.

해가 온 누리를 비치기 시작했다.

《정말 멋있는데…》

비물에 말쑥해진 부압산이 더욱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논밭에서 곡식들이 바람결에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설레이고있었다.

《야, 무지개!》

어느새 명남이가 뒤를 따라오며 소리치고있었다.

수문에서부터 도장골사이에 령롱한 칠색무지개가 걸려있었다.

《정말 곱구나.》

《야! 저걸 만져봤으면…》

명남이가 무지개를 잡기나 하려는듯 어느새 수문쪽으로

뛰여갈 차비를 하고있었다.

《명남아, 한번 잡아보겠니? 허지만 무지개는 손으로 잡는게 아니야.》

경준이가 큰소리로 웃으며 소리치는데 명남이의 새된 소리가 울리였다.

《저건 뭐야? 신호탄이 아니야?》

《신호탄?》

경준이가 얼굴을 쳐들자 신호탄이 탕수골너머쪽으로 포물선을 그으며 사라지고있었다.

《저게 어느쪽에서 올랐니?》

《선바위골같아. 틀림없어.》

명남이가 두눈이 올롱해서 대꾸했다.

(그럼 반동놈들이?)

바싹 긴장해진 경준이는 논밭을 바라보았다. 어른들 몇이 논에 넘쳐나는 물을 빼고있었다. 한초한초가 새로웠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있었다.

(놈들이 신호탄을 왜 쏘았을가?)

경준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온몸이 긴장해졌다. 두주먹을 움켜쥐고 달음박질했다. 축동에 다달았을 때였다.

누구인가 재빨리 폭탄깍지를 두드렸다. 자지러진 종소리가 온 마을을 흔들었다.

남쪽산너머에서 파리떼같은 점이 나타나더니 미국놈 쌕쌔기편대가 소리없이 머리우로 날아들었다. 뒤미처 귀청을 째는 소음과 함께 금포강 다리쪽에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연방 솟았다. 비가 멎기를 기다린듯 악을 쓰며 달려든 적비행기들은 물이 가득 불어나 위태로와진 다리를 향해 마구 폭탄을 퍼부었다. 다리주변에는 온통 불

기둥과 연기가 자욱하게 덮였다.

(그러니 반동놈들이 비행기를 불러들였구나.)

경준이는 감시소에 몸을 의지한채 비행기를 쏘아보았다. 꽉 그러쥔 두주먹이 우들우들 떨리였다.

한참 폭탄을 쏟아붓고난 비행기들은 어느새 남쪽으로 뺑소니를 쳤다.

《다리가 끊어졌다!》

어디선가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다리가 끊어졌대요. 빨리들 나오라요.》

마을은 서로 찾고 대답하는 소리, 삽이며 곡괭이가 부딪치는 소리로 한참이나 소란했다.

어른들이 거의 전선원호에 나갔기때문에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몇이 안되였다.

그 몇 안되는 사람들마저 세포위원장아저씨가 데리고 떠나가자 마을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축동에 모여들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경준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준이의 귀전에는 아침에 세포위원장아저씨가 하던 말이 들려왔다.

《마을을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은 마을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피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에 자위대에 알려야 한다. 알겠니?》

경준이는 세포위원장아저씨의 말뜻을 알고도 남았다.

마을에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원쑤놈들이 무슨짓을 할지 모를 일이였다. 더우기 장마로 금포강과 개울, 온 논판에 물이 넘쳐나고있으니 원쑤놈들이 가만있을리 만무하였다.

얼마전에 수상한 놈이 가까이에 나타났다가 수문을 지키는 자위대아저씨의 눈에 뜨이자 물당치기로 사라져버리지 않았던가.

《야, 이걸 어쩌면 좋니?》

《신호탄이 오르기바쁘게 미국놈비행기가 달려들더니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니?》

아이들속에서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원쑤놈들이 불의에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다.

사실 그랬다.

원쑤놈들은 금포강다리를 끊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다리를 복구하러 떨쳐나서리라는걸 타산한것이 틀림없었다.

마을에 아이들이 몇명밖에 남지 않은 기회에 목적을 이루자는것이 놈들의 잔꾀였다.

경준이를 쳐다보는 계성이도 몹시 초조해하였다. 말은 내놓고 하지 않았지만 몹시 걱정하는게 헨둥했다.

(반동놈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건 민웅복놈의 작간이 분명하다.)

경준이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뒤에는 큰 참나무가 서있었다.

전에없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이들을 둘러보는 경준이의 모습에는 비장한 결심이 비껴있었다.

검은 구름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다.

《엥이, 하늘두 참…》

계성이가 원망어린 눈길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경준이는 모여온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태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태호가 없구나.》

경준이가 명남이를 바라보았다.

《응, 태호형이 굴량골논에 얼른 갔다온다고 말해달랬어.》

《알겠다.》

경준이는 아이들을 정렬시킨 다음 두주먹을 움켜쥐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 마을에는 어른들이 없다. 우리가 마을을 지켜야해. 이미 조직해놓은대로 각기 자기 위치에 가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제때에 별초소에 련락해야겠다.》

경준이가 말을 끝내기바쁘게 철식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앞에 불쑥 나타났다.

《아니 넌?》

《2호초소에서 신호가 왔어.》

《그래서?》

경준이는 온몸이 긴장해서 물었다.

《도가집방향에서 무슨 새가 날아올랐다가 사라졌대.》

(빨리 알아봐야겠구나.)

경준이는 재빨리 아이들을 둘러보며 눈짓을 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기 위치를 향해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는게 분명해. 내가 가보겠어.》

계성이가 앞으로 성큼 나섰다. 온몸이 비에 흠빡 젖어있었으나 조금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있었다.

《아니야, 넌 안돼.》

경준이는 자기가 가야겠다고 결심하며 계성이앞을 막아나섰다.

《왜 안된다는거야? 난 이미…》

계성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경준이는 그 심정이 리해되였다.

《좋아, 그럼 함께 가자.》

경준이는 말끝에 힘을 주며 계성이의 어깨를 툭 쳤다.

긴장한 속에서도 계성이가 웃음을 지었다. 전에 없던 모습, 위험속에 주저없이 선뜻 나서는 그의 장한 모습이 경준이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철식아, 넌 별초소를 지키다가 급한 련락이 오면 다리복구장에 가서 세포위원장아저씨에게 알려라.》

《알겠어.》

경준이는 계성이의 손을 꼭 잡고 산기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다.

어느새 사위는 어둠속에 잠겨들었다.

무정하게도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에서 또다시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가집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다. 경준이는 숨을 죽인채 도가집을 지켜보았다.

비방울이 후둑후둑 나무잎을 때리는 소리뿐이였다. 비물이 온몸에 흘러들어 잔등이 으시시해왔다.

(수상한 사람이 정말 여기로 오긴 왔을가?)

2호초소에서 신호를 했으니 여기 도가집근처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야 이상한 새가 왜 날아올랐을가? 그런데 왜 이다지도 조용할가?

(옳지, 도가집에 들어가보자.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

경준이는 계성이에게 속살거렸다.

《계성아, 넌 여기서 감시해라. 난 저안에 들어가봐야겠어.》

경준이는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놓았다.

도가집안은 먹물을 뿌려놓은듯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없었다.

작은 창문이 두개밖에 안되는데다가 검은 천을 쳐놔서 더욱 그런것 같았다.

잠시 눈을 껌벅이느라니 상여물건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경준이가 손더듬, 발더듬을 하며 들어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정갱이를 휙 스치였다.

《앗!》

경준이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번 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손더듬해보니 마른 나무가지가 손에 잡히였다.

(내가 너무 덤볐구나.)

경준이는 마음의 탕개를 바싹 조였다. 이대로 있다가 반동놈들한테 발각되면 그야말로 함정속에 빠진셈이 될것이였다. 하지만 물러설수는 없었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상여물건들을 들추기 시작했다. 길쭉한 둥근 나무함안에서 베개뭉치만 한것이 손에 잡히였다. 비옷천같은것으로 싸매고 쇠줄로 꽁꽁 동여맸는데 그런것이 세개나 되였다.

(이게 뭘가?)

손더듬을 해보니 비물에 견딜수 있게 기름종이로 돌돌 만 묵직한 뭉치에 도화선같은것이 비죽이 나와있었다.

(폭약!…)

경준이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졌다. 금시 요란한 폭음을

내며 터질것만 같았다.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탕수골에서 보았던 상자가 눈앞으로 얼핏 스쳐지나갔다.

반동놈들이 그 상자속에 들어있던 폭약을 여기에 숨겨놓은게 아닐가. 틀림없는것 같았다.

(그렇다면 놈들이 이 폭약을 가지고 어디를 노리고있을가? 이것이 원쑤놈들의 손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다.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숨겨져있을가?)

경준이는 부쩍 의심이 들었다. 원쑤놈들의 흉계가 꾸며져있음이 틀림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원쑤놈들은 탕수골에서 날라온 폭약꾸레미들을 등잔밑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여기 도가집에 보관해두었던것이다. 마을이 가까우니 아무때건 필요될 때 쓰면 그만이였다.

선바위골동굴은 이미 공개된 장소나 같으므로 폭약까지 보관하고있다가는 쓸모없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이놈들의 음모를 파탄시켜야 한다.)

경준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폭약꾸레미주변을 손으로 더듬다가 다시한번 놀랐다.

몇개쯤 되는 수류탄이 손끝에 닿았던것이다.

금시 터질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하고 머리칼이 쭈뼛 일어섰다.

(어떻게 할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빨리 세포위원장아저씨나 자위대에 련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급했다.

반동놈들이 폭약을 날라가려고 어느 시각에 나타날지 모른다. 어떻게 할가?

경준이의 눈앞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가?

옳아, 원쑤놈들을 맞받아나갔을거야.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계성이가 보내는 안전신호였다. 그렇다고 시간을 그냥 끌수는 없었다.

경준이는 침착하게 수류탄을 손에 집어들었다. 원쑤놈들을 폭약과 함께 날려보낼 수를 써야 했다.

언제인가 자위대장아저씨한테서 수류탄 쓰는 법을 배우던 생각이 났다.

(옳지, 수류탄과 폭약꾸레미를…)

경준이는 폭약꾸레미에 깊이 박혀있는 도화선들을 수류탄안전고리에 조심히 련결해놓았다. 그다음 수류탄안전고리에 만약을 생각하여 주머니에 늘 넣고다니던 노끈을 매고 그것을 길게 늘여 문고리에 비끄러매놓았다.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면 수류탄안전고리가 튀면서 먼저 터질것이다. 그다음은 폭약꾸레미와 함께 될대로 되라지. …

소리없이 밖으로 나오던 경준이는 《쉿!》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누군가의 손에 꽉 잡히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홱 돌렸다.

《나야, 나…》

계성이의 속삭이는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번쩍 드니 계성이옆에 웬 어른이 있었다.

낯이 익은 마을자위대원아저씨였다.

《아저씨!》

경준이는 안기듯 다가섰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저안에 들어갔댔니?》

《예. 폭약이랑 수류탄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니?》

《서로 고리에 련결했습니다. 수류탄이랑…》

《음, 알겠다. 이제 원쑤놈들이 나타날게다. 방금전에 두놈이 묵직한 꾸레미를 배낭에 지고 여기서 사라졌다. 우리 동무들이 지금 그놈들을 따르고있다.》

《아니?! 그럼 폭약을 날라가는게 아닐가요? 어느쪽으로 갔나요?》

《아무래도 수문이 마음놓이지 않는구나. 여기는 내가 맡을테니 너희들은 빨리 내려가거라.》

(수문이? 그래서 수상한 놈이 수문쪽에?)

경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혼자선 안돼요. 계성일 여기 남게 해줘요.》

경준이가 고개를 돌리자 말뜻을 알아차린 계성이가 얼른 대답했다.

《경준아, 빨리 가봐. 여긴 내가 있을게.》

《그럼 조심해.》

경준이는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나는듯이 뛰여갔다. 수문, 수문을 지켜야 한다. …

어둠속으로 비바람이 사납게 불어오고있었다.

20. 원쑤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경준이는 큰길을 따라 뛰다싶이 했다. 마음은 급했다.

이때 누군가가 뒤에서 진창길을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경준이는 비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한손으로 뻑 문대며 뒤를 돌아보았다.

키가 크지 않은걸보아 어른은 아니였다.

(태호가 아닐가?)

경준이가 주춤하는데 뒤따라오던 아이가 그자리에 멈춰섰다.

순간 경준이의 입에서 반가움에 겨운 목소리가 튀여나갔다.

《태호!》

《경준아!》

경준이는 태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너, 어떻게 된거니?》

태호가 숨을 몇번 내쉰 뒤 입을 열었다.

《아까 굴량골에 있는 너의 논에 갔댔어. 그런데 글쎄…》

《어떻게 됐다는거냐?》

《웬놈이 보뚝을 터쳐놔서 불어난 물이 너의 논으로 소리치며 흘러들지 않겠니. 물길을 얼마나 넓혀놨는지…》

《그게 정말이야?》

경준이는 너무 분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대로 있

었으면 한창 자라는 벼들은 물론 논까지 떠내려갈번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막아놓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너 아니면 큰일날번 했구나.》

경준이는 두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원쑤놈들이 수문뿐아니라 금포마을의 논판들을 노리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경준이는 태호가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는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다리를 다쳤니?》

《물이 불어나서 개울을 건늘수가 있어야지.》

《그래? 빨리 가면서 이야기하자.》

경준이는 태호의 등을 떠밀며 다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태호는 보뚝과 물길을 손질해놓고 급히 돌아섰으나 개울가에서 말뚝처럼 서버렸다. 빨리 축동으로 가야겠는데 엄청나게 불어난 물이 앞을 막는것이였다. 안타까이 기슭을 오르내리던 그는 개울 건너편에 오리나무등걸이 서있는것을 발견했다.

계성이네 소꼴을 베러 왔다가 경준이가 표적삼아 봐두었던 바로 그 나무등걸이였다.

태호는 비상용으로 늘 가지고다니던 포승줄을 꺼낸 다음 올가미를 만들어 개울 건너편에 힘껏 던졌다. 쉽사리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해보아야 헛수고였다.

그런데 마침 개울 건너편 웃쪽에서 누구인가 사방을 둘러보며 내려오는 애가 있었다. 눈여겨보니 명남이였다.

명남이가 먼저 알아보고 손짓을 해가며 뭐라고 소리쳤다.

사품쳐 흐르는 흙탕물소리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재빨리 주먹만한 돌멩이를 포승줄끝에 동여맨 다음 건너편으로 힘껏 던졌다. 명남이가 제꺽 눈치채고 포승줄을 받아 오리나무등걸에 든든히 동여맸다.

태호는 손에 쥐고있던 포승줄의 다른 한끝을 허리에 감아맨 다음 물속에 뛰여들었다. 이렇게 하여 간신히 기슭에 닿았는데 물살에 밀려 굴러내려오는 돌에 그만 다리를 다쳤던것이다.

《포승줄을 잘 써먹었구나. 그래 계속 걸을만 하니?》

경준이는 태호가 역시 남다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이쯤한건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오다가 별초소에 들리니 네가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달려오던중이야.》

태호의 대답은 씨원씨원했다.

《그럼 됐다.》

경준이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태호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것 같았다.

경준이는 힘을 내서 달려가다가 문득 멈춰섰다.

《우리 논 보뚝을 터뜨려놓았다고 했지?》

《응, 물이 막 쓸어드는걸… 벼구 논이구 다 떠내려갈번 했댔어.》

태호가 대꾸를 하면서 경준이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왜 그래? 수문이 급한데…》

《네가 물당치기에 올랐던 날 반동놈이 수문가까이 기여들었다가 자위대와 맞다들리지 않았댔니. 그러니 놈들이 수문에 먼저 나타나지 않을거야.》

《그럼 다른데?》

《맞았어. 강뚝이야, 강뚝―》

경준이의 목소리에는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이길 억척같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응, 알만해. 하마트면 놈들의 수에 걸릴번 했구나.》

태호는 경준이의 드놀지 않는 모습을 보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논판을 가로질러 은밀히 강뚝쪽으로 다가갔다. 어둠속에서 강물이 솨―솨― 흐르고있었다.

경준이는 괴춤에 있는 비상용주머니를 한손으로 어루쓸며 강뚝에 다달으자 바싹 귀를 도사리였다.

계성이가 아침밥을 먹던 여울목이였다. 어둠속에서도 소리치며 흐르는 강물이 어렴풋이 보였다.

흙탕물이 강뚝높이까지 거진 차오르는게 분명했다. 물소리를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다.

잠시후 어데선가 인기척이 났다.

경준이는 태호의 팔굽을 툭 건드렸다.

가까이 다가오던 그림자가 잠시 동정을 살피는듯 하더니 강뚝에 있는 버드나무밑에 다가가서 서두르기 시작했다. 경준이는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단정하며 강뚝쪽 가까이로 다가갔다. 태호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한치한치 뒤따랐다.

비는 여전히 멈출줄 몰랐다. 얼굴로 비물이 사정없이 흘러내렸다. 강뚝은 온통 비물에 젖어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어느새 검은 그림자들이 강뚝에서 서두르고있는게 희미하게 보였다.

(저놈들이 폭약장치를 하려는게 아닐가?)

이때 어디선가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으며 《쾅―쾅―》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금시 땅이 움찔했다. 사위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경준이와 태호는 움푹 패인 곳에 엎드려 삼단같은 불길을 바라보았다. 도가집이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부압산과 마을주변의 산들을 환하게 비쳐주고있었다.

(계성인 어떻게 됐을가? 자위대아저씨랑…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을가?

아니, 다 무사할거야.)

경준이는 강뚝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정체모를 놈이 움직이고있었다.

경준이는 온몸이 바싹 긴장해졌다.

만약 강뚝이 날아난다면 금포강물이 쓸어들어 온 논판의 벼들을 휩쓸게 된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강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길이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였다.

경준이는 두주먹을 꾹 쥐고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그림자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자 저쪽에서 또 한놈이 동시에 움직이고있었다.

(네놈들이 폭약을 장치하려구?…)

경준이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이 태호의 팔굽을 툭 치고는 원쑤놈의 등뒤로 다가갔다.

이때였다. 뜻밖의 일이 생겼다.

갑자기 《첨벙!》 하는 소리가 났다.

경준이의 뒤를 바싹 따르던 태호가 미끄러지면서 물창에 넘어졌던것이다.

《엉?》

겁에 질린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홱 돌아섰다.

경준이는 재빨리 포승줄올가미를 그놈의 등뒤로 홱 던졌다.

태호가 어느새 뒤에서 벌떡 일어서며 경준이의 손에 들려있는 포승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으으윽…》

불의에 날아든 올가미가 목을 조이자 놈은 썩은 통나무처럼 나가자빠졌다. 버들쩍거리는 그놈의 힘이 어찌나 센지 경준이와 태호는 포승줄을 거머잡은채 두발을 버드나무그루에 대고 딱 뻗치였다. 놈은 버드럭거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경준이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뛰여가 폭약꾸레미를 강한가운데 힘껏 내던졌다.

때를 같이하여 강가운데서 《꽝!》 하는 폭음이 울리였다. 물벼락이 아이들의 온몸에 들씌워졌다.

이때 《요놈의 새끼들!》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한 놈이 경준이쪽으로 달려들고있었다. 민응복놈이였다.

드디여 결산의 시각은 다가왔다. 자기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민덕보의 아들놈과 자기 고향을 지키려는 어린 용사들과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진것이다.

비는 여전히 그칠새없이 내리였으나 마주선 경준이와 민응복놈의 눈길이 마주치는 곳에서는 푸른 섬광이 번뜩이였다. 드디여 민가놈이 거미같은 팔을 뻗치며 달려들었다.

이때라고 생각한 경준이는 비상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한웅큼 집어 그놈의 얼굴에 확 뿌렸다. 은옥이가 만들어준 고추가루폭탄이였다.

《으으윽…》

놈은 두눈을 싸쥐고 갈팡질팡하였다. 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였다. 민응복놈은 눈을 비벼대면서도 또다시 달려들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누구인지 강뚝 웃쪽으로 달려가며 《엎디라!》 하는 소리가 울렸다.

경준이는 엎딜사이없이 앞에서 비척거리는 민가놈의 얼굴에 다시한번 손에 쥔것을 힘껏 뿌렸다.

《으윽…》

놈이 겁질기게 달려드는 순간 올가미가 민응복놈의 목에 날아와 그놈의 숨통을 조이였다. 태호가 던진것이였다. 때를 같이하여 《쾅!》 하는 폭음이 강한복판에서 또다시 울렸다. 이때 자위대아저씨들이 달려왔다.

《손들엇!》

《아이쿠!》

올가미에 걸렸던 놈이 포승줄을 잡아채며 《끅—끅—》 하다가 손을 들었다. 민응복놈이 자위대장아저씨의 포승줄에 묶인채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이 홰불을 켜들고 웅성거리며 달려왔다. 맨앞에 계성이와 명남이, 은옥이, 철식이, 자민이가 서있었다. 비물에 푹 젖은 그애들은 큰소리로 부르며 두팔을 벌리였다.

《경준아!》

《태호야!》

《계성아!》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다친데는 없니?》

《응! 일없지 않구.》

계성이와 경준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돌아가며 기

뻐했다. 태호는 명남이가 다가오자 별로 틀을 차리며 허리에 손을 척 얹었다.

《자, 어때. 내가 꼭 나쁜 놈을 잡는다고 했지!》

《역시 태호형이 이거야, 이거!》

명남이가 엄지손가락을 펴들자 아이들속에서 웃음판이 터졌다.

이때 경준이가 지팽이를 짚고 다가서는 계성이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며 말했다.

《계성이 아버지, 저길 보세요.》

경준이가 가리킨쪽을 보던 계성이 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노기가 번뜩했다.

《저놈이… 저놈이 민돼지의 아들놈이구나! 엉?!》

계성이 아버지가 지팽이를 휘두르며 놈에게 달려갔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가까스로 그를 진정시켰다.

《세포위원장, 글쎄 저놈이 내집에 협박장을 들이민 놈이요. 이 애들 선생을 학살한 놈이란 말이요. 이놈!—》

계성이 아버지의 온몸은 격분으로 하여 부르르 떨고 있었다. 두눈에서는 증오심이 불처럼 이글거렸다. 사람들이 치를 떨며 윽윽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서리찬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다가 자위대장아저씨에게 끌어가라고 하였다.

민가놈이 부시시 일어섰다. 다른 놈도 다리를 부여잡고 후들후들 떨며 일어섰다. 끌려가는 민가놈의 군화자국이 강뚝우에 찍혀졌다. 경준이는 그놈의 발자국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원쑤놈의 군화자국!

저놈은 저 미국제군화로 이 땅에 끼여들어 한창 자라나는 벼모들을 짓밟았고 마을의 이르는 곳마다에 더러운 피의 자욱을 남기였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저 군화발밑에서 신음했던가. 그러나 더는 이 땅우에 저 피의 자욱이 찍혀지지 못할것이다.

마치 경준이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비물이 더러운 흔적을 지워버리며 흘러내렸다. 이 땅에서 영영 씻어버리려는듯 깨끗이 지워버렸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커다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금포1〉호를 노리고 달려든 원쑤놈들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모인 마을 여러분들과 소년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한마음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합쳤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원쑤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워이겨야 합니다.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사람들이 요란한 박수로 기세를 올리였다. 아이들도 성수가 나서 짜락짜락 박수를 쳤다.

비방울이 뜸해지더니 시원한 바람이 휘익― 불어왔다.

하늘에서 구름장들이 쩍쩍 갈라져나가자 새벽하늘이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경준이 어머니와 태호 어머니, 계성이 어머니를 비롯하여 마을의 어머니들과 민청원누나들이 두팔을 벌리고 마주 달려왔다.

21. 금포마을 소년들

장마철이 지난지도 거의 한달이 되였다.

더위는 가셔진듯싶었으나 해빛은 더욱 쨍쨍 내려비치였다. 산과 들은 여전히 푸르렀다.

이따금 싱그러운 바람이 가볍게 불어올 때마다 어린 참나무는 물론 학교주변의 밤나무잎들도 살랑거렸다.

며칠전에 마을에서 멀지 않은 여기 밤나무골에 새로 교사를 건설했다. 교실도 넓게 내고 창문도 덧달아 겨울에는 춥지 않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었다.

아이들은 향긋한 송진내와 풀냄새가 풍기는 교실에서 공부에 열중했다. 집에 돌아가서도 복습을 꼭꼭 하고 예습까지 했다. 모든 학생들이 학습도 전투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학습에 달라붙어 최우등생이 되였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흐르고 달이 바뀌였다. 금포벌은 어느덧 검푸른 새옷단장을 했다. 포기마다 실하게 아지를 친 《금포1》호들은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을 하고있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논배미마다에서 벼포기들이 우쩍우쩍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동켠하늘가에 아침해살이 빛을 뿌리기 시작한 아침이였다. 마침 휴식일이여서 아이들은 논벼가 패리라는 어머니들의 말을 듣고 모두 환희에 넘쳐 논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계성이 아버지도 팔을 잡고 서로 부축하며 걸음발을 다그쳤다. 경준이 어머니와 태호 어머니, 계성이 어머니가 치마자락을 날리며 달려왔다.

사방에서 잠자리들이 논벼잎우로 날아가기도 하고 잎우에 앉아서 가벼운 바람결에 흔들거리기도 했다. 제비들도 날개를 펴고 춤을 추며 하늘높이 날아옜다.

(응? 이게 뭐야?!)

경준이는 바지가랭이가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슬을 걷어차며 논머리에 들어섰다. 허리를 치는 벼줄기 웃끝에 두손을 조심히 가져가며 눈을 크게 떴다.

납작하고 자름자름한것들이 잎사귀사이로 뾰주름히 내밀려있었다.

(야, 이삭?!)

경준이는 다른 포기로 눈길을 옮겼다. 꼭 마찬가지였다. 이삭이, 벼이삭이 팬것이였다!

경준이는 두팔을 번쩍 들고 환성을 터뜨렸다.

《야! 이삭이 패였다. 벼이삭이 팼다!》

맑고 청청한 목소리가 아침공기를 가르며 마을로, 집들이 있는 산골짜기로 울려퍼졌다.

집집마다 문이 벌컥벌컥 열리며 일나갈 차비를 하던 사람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했다. 기쁨을 알리듯 누구인가 포탄깍지를 가락맞게 두드렸다.

달리기에서는 아이들이 더 빨랐다.

맨앞에 명남이, 철식이, 자민이… 은옥이도 옥이의 손목을 잡고 아이들의 꼬리를 물었다.

《야!》

《만세!》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삭이 나온 벼를 들여다보며 환성을 올렸다.

서로서로 찾고 부르며 얼싸안았다.

《경준아.》

《태호.》

《계성아.》

경준이 어머니가 저고리고름을 눈굽으로 가져가며 물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됐구나, 됐어!》

《그동안 경준이 어머니랑 아낙네들이 정말 수고많았네. 세포위원장도…》

이렇게 말하며 어른들을 돌아보는 계성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계성이 아버지 수고가 더 컸어요. 그 집 누렁소가 아니였으면 어쩔번 했나요.》

경준이 어머니가 계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이 하는 말이였다.

세포위원장아저씨가 주위를 빙 둘러보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어른들뿐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장한 일을 했습니까. 가슴아픈 희생을 놓고 눈물대신 복수를 다짐하며 〈금포1〉호를 끝끝내 자래웠지, 반동놈들을 잡아냈지.…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꿋꿋이 자라 저렇듯 이삭이 패인 이 〈금포1〉호와 함께 마을아이들이 정말 끌끌하게 자랐습니다. 경준이, 태호, 계성이…》

아저씨는 한아이, 한아이의 얼굴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

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수 있은것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굳세게 싸웠기때문입니다. 우리를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포벌에 벼이삭이 물결치고 전승의 축포가 하늘높이 오를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야!》

《옳소!》

감격에 겨운 함성이 튀여나오고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경준이는 손벽이 터져라 박수를 쳤다. 코허리가 찡하고 눈굽이 쩌릿했다.

눈앞에는 잊지 못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를 잃고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던 일이며 《금포1》호종자를 찾아헤매던 일, 모판에 벼모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던 때의 기쁨과 태호, 계성이와 티각태각하던 일들, 서로서로 손을 꾹 잡고 반동놈들과 아슬아슬한 싸움을 벌리던 일, 자기들을 위해 애쓰시다가 희생된 순영선생님…

가슴아프던적은 그 얼마이며 속타던적은 또 그 몇번이였던가.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 슬프고 괴로운 때가 더 많았었다. 그러나 그 나날은 결코 헛되이 보낸 날들이 아니였다.

세포위원장아저씨의 말대로 우리가 이긴것이다! 물결처럼 설레이는 벼포기들을 이윽히 바라보는 경준이의 눈앞에 언뜻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지난해 가을 탐스런 벼이삭들을 두손으로 어루만지며 환

하게 웃음짓던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아버지가 지금 이삭패인 저 벼들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경준이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도장골둔덕으로 조용히 눈길을 돌렸다. 금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금포1〉호들이 이삭을 내밀었어요. 〈금포1〉호씨앗과 함께 우리도 자랐어요!》

동산우에 아침해가 높이 솟아올랐다. 논벌 아득히 눈부신 해살이 쫙 뿌려졌다.

《쿵—쿠쿵—》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승리의 포성이 남쪽하늘가를 뒤흔들고있었다.

건넌산기슭에서는 무성한 참나무숲이 가벼운 바람결에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중편소설

금포마을 소년들

저 자 경석우

편 집 리남혁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리금주

냅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6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6월 10일

ㄱ－26202 값 90원

ISBN 978－9946－21－320－0